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주년 기록집

언론운동의 판을 뒤집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주년 기록집



언론운동의



판을



뒤집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시민언론운동 20년, 지역의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활동하고 싶습니다!

이수희 충북민언련 대표

언론개혁 시민의 힘으로! 라는 가치를 내걸고 활동을 시작한 지 올해로 20년을 맞이했습니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충북민언련)은 2003년 11월 26일 창립했습니다. 충북민언련은 지난 20년 동안 지역언론 개혁을 위한 시민언론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관행에 마침표를!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촛지 수수 관행, 폐쇄적인 기자실 운영, 기준 없는 자치단체 홍보예산 배분 등 충북민언련 창립 당시만 해도 지역언론계에는 여러 가지 관행들이 자리했습니다. 충북민언련은 도교육청 기자 촛지 수수 사건, 충주시청 출입기자단 촛지 제공 사건, 언론사 대표와 기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사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정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자치단체장의 잘못을 시민들에게 알려냈습니다. 그리고 도내 지자체들의 언론홍보 예산을 분석 발표해 지역민들의 세금이 별다른 기준 없이 지역언론에 주어지는 홍보비 예산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지역언론들이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알려왔습니다.

지역언론을 지켜라! 충북민언련은 지역언론계의 잘못만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을 위한 법 제정 운동에도 앞장섰으며, 충청일보 바로 세우기 범도민 대책위원회, 공영방송 지키기 위한 각종 연대 활동 등에 앞장서왔습니다.

지역민의 삶을 이야기하는 지역언론이 필요해! 충북민언련은 창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역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선거보도 모니터를 비롯해 각종 현안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역언론의 보도 태도를 비판해왔습니다. 대다수의 지역민이 지역언론의 보도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바꿔보기 위해 좋은 보도를 발굴하여 알려내는 일과 일일 뉴스 브리핑, 뉴스 이면의 이야기 등을 콘텐츠로 제작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선거 특별판 페이지 <다른시선>과 청주여성시민매거진 <떼다> 등 언론에서 지워진 목소리를 담은 매체 창간에도 앞장섰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충북민언련은 지역민들에게 언론의 중요한 문제들을 알려내기 위해 대중언론 강연과 특화된 미디어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학교를 열어 한국 사회 언론이 가진 문제들을 이야기했으며, 글쓰기, 학부모를 위한 NIE, 미디어 활용 교육, 모니터링 방법 교육 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언론노동자와 함께! 청주방송 이재학 PD의 죽음은 방송계의 비정규직 노동의 처절한 현실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언론계에 만연한 비정규직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충북민언련

발간사

은 앞으로도 언론노동자들과 함께 지역미디어의 공공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계속 활동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시민언론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지역에도 지역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지역언론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역주민의 삶을 담아내는 지역언론 없이는 지역의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언론으로 나아가는 길에 충북민언련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충북민언련은 회원님들이 내주시는 회비로만 운영합니다. 정부의 보조금은 1원도 받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의 권력인 언론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단체이다 보니 회원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언론운동의 판을 뒤집기 위해 10주년을 맞아 기록집 <충북민언련 10년을 말하다>를 발간한 데 이어 20주년을 맞아 <언론운동 판을 뒤집다>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책은 지난 20년의 충북민언련의 역사와 청년 활동가들이 바라는 시민언론운동의 미래를 담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20년을 기록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 깨끗하게 지난 시간을 잘 버텼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청년 활동가들은 좀 더 나은 형편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임을 알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언론운동의 판을 뒤집어보겠다고 노력하는 활동가들의 귀한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충북민언련이 지속가능한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언론운동의 판을 뒤집기 위해

계희수 충북민언련 활동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개혁은 시민의 힘으로’라는 기치 아래, 언론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은 물론 시민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대안 미디어를 만들어보자는 뜻을 담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발족한 단체입니다. 지난 20년간 충북민언련은 언론을 감시하는 유일한 단체로서 건강한 지역언론을 만드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보도 감시, 언론사 사주의 언론 사유화 견제, 프리랜서 언론노동자 노동권 옹호 등의 투쟁을 통해 지역민과 지역언론을 지켜왔습니다.

2009년에는 언론약법 저지 농성을 방해한 청주시장을 고발했고, 2020년에는 ‘청주방송 故 이재학PD 사망사건 충북대책위’ 투쟁 중 사주로부터 당시 이수희 사무국장이 피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20년간 (반)상근 활동가 1-2인 체제로 운영되어 상황이 녹록지 않았지만, 그 어느 단체보다 가열차고 치열하게 싸웠다는 것만큼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 대안매체를 기획하고 제작하는데 많은 애를 썼습니다. 충북민언련은 우리의 역할이 언제까지 언론 견제와 감시에 머물러야 할지 오래전부터 고민해왔습니다. 언론 환경과 시민들의 의식 그리고 언론 활용 행태가 변한 만큼 운동을 하는 우리들도 변해야 하지 않

발간사

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역언론의 무성의한 보도를 오랜 시간 비판해 왔지만 현실을 바꾸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지역언론의 여건과 환경 개선이 있어야 보도의 질이 나아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주체를 발굴하고 이야기를 모아내는 것 또한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건강한 공론장을 갖는 것이 우리가 운동하는 궁극적인 목표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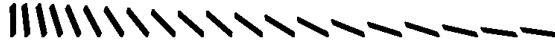
이런 배경에서 지난해 4월에는 지역의 노동·여성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6·1지방선거 특별페이지 <다른시선>’이라는 매체를 창간해 인터넷신문과 종이신문을 발간했습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목소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채로운 생각을 말과 글로 한데 모았습니다. 11월에는 인권, 여성이슈를 배제하는 열악한 지역언론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청주지역 최초의 공동체 여성시민 매거진 <떼다>를 기획하고 창간했습니다. 충북민언련은 기존 언론 운동의 틀을 깨고 상상만 해왔던 새로운 운동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성언론을 살피기 위한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시민이 지역언론의 가치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언론노조와 함께 <지역언론의 새 판을 만들다> 포럼을 열고 좋은 기사와 프로그램을 알렸습니다. 떨어진 언론과 시민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충북민언련의 20년 역사는 곧 지역언론과 언론운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20주년을 맞아, 저희의 문제의식과 활동을 정리한 <언론운동의 판을

뒤집다> 기록집을 만들었습니다. 기록집에서 지난 20년의 투쟁을 정리하고, 지역언론과 운동의 존재 이유를 재확인하고,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언론 운동의 미래를 상상하고자 합니다. 기록집을 보시는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고 상상해주신다면 참 든든하고 기쁠 것 같습니다.

차례



004 발간사

SECTION 1 나아갈 길

- 014 지역민언련,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묻다
- 027 충북민언련, 새로운 운동의 첫발을 <떼다>
- 038 우리에게 <다른사선>이 필요해

SECTION 2 뒹아낸 길

- 050 <지역언론의 새 판을 만들다> 포럼 현장
- 072 회원인터뷰, 당신의 지지로 길을 내다
- 이만큼 버텼는데 앞으로 더 못 버티겠어?
 - 임명수 회원
- 평범한 사람의 참여가 진정한 의미의 '언론 민주화'
 - 정미진 회원
- 충북민언련에서 언론과 젠더의 연관성을 깨치다
 - 김수정 회원
-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힘 있는 이들에게 긴장감 줄 수 있는 기자이고 싶다
 - 이정훈 회원
- 충북에서도 시민참여 저널리즘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충북민언련의 도전
 - 정윤채 회원
- 충북민언련, 시민들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기르는데 기여해야
 - 이성철 회원
- "거창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기자로서 일하는 것뿐이에요"
 - 이현경 회원
- 돌멩이 하나라도 물길은 달라진다, 충북민언련 역할 필요해
 - 안건수 회원

- 123 운영위원 칼럼, 지역을 바꾸는 언론 우리의 목소리
- 지역주민 권리를 지켜내려면 이번엔 달라야 한다
 - 이수희 충북민언련 대표
 - 땡땡 뉴스를 보고 싶지 않다
 - 선지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
 - 풀뿌리언론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 황민호 옥천신문 대표
 - 우리의 '삶'을 말하는 지역 언론이 필요하다
 - 유진영 노동당 충북도당 사회운동위원장
 - 우리의 끈질긴 지구력을 찬양하며
 - 박소영 충청리뷰 편집부국장
 - 보이지 않는 사람들
 - 김현정 충북대 심리학과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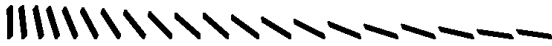
SECTION 3 걸어온 길

- 144 이재학 PD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 154 지역민이 담긴 지방선거 보도를 위해, 지역언론 선거보도를 모니터링하다
- 161 충북민언련 10대 운동
- 173 충북민언련사

SECTION 1

나아갈 길





014 지역민언련,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묻다

027 충북민언련, 새로운 운동의 첫발을 <떼다>

038 우리에게 <다른시선>이 필요해

지역민언련,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묻다

계희수 활동가

지역언론 기사를 그만두고 충북민언련에서 운동을 시작한 지 2년 반이 다 되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해고 복직 투쟁을 하던 현슬기 활동가도 충북민언련으로 이직해 활동을 이어온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도 뉴스와 신문에 한 줄도 나지 않는 현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정부와 정치인과 많은 시민이 뉴스를 통해 세상을 보고, 뉴스가 촉매제가 되어 사회문제가 해결됩니다. 건강한 언론이 없는 곳에서 절대 사람은 인간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몹시 열악한 여건에서도 버티고 있습니다.

지역언론 사정이 어렵게 된 지는 오래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의 광고비나 사업비에 의존해 간신히 연명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국과 주간지 언론인들이 고군분투하며 끝내 공동체가 언론을 잃어버리는 최후의 독이 무너질까 힘을 다해 막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종합일간지는 언론의 본령을 내려놓고 권력의 충실한 부역자로 기능합니다.

지역언론과 함께 지역민언련의 사정도 함께 어렵게 된 지 오래입니다. 둘 이상의 상임활동가가 단체를 운영하는 곳은 충북, 부산, 전북민언련 세 곳뿐입니다. 지역민언련은 1992년 광주전남민언련을 시작으로 2005년 강원민언련까지 모두 8개가 설립되었습니다. 한 때 각 지역에서 언론 감시 운동을 활발하게 해왔지만 녹록지 않은 여러 상황 때문에 부침이 많았습니다. 강원민언련은 상임활동가 없이 운영되다 해산했고 그 외 지역민언련은 1인 대표 혹은 상임활동가 체제로 버티고 있습니다.

충북민언련이라는 운동 단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언론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 사정이 안 좋으니 우리가 사라진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운동에 대한 고민보다 재정 문제로 인한 소멸 걱정이 앞서는 현실에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번 순서에는 기록집을 핑계 삼아 지역민언련의 운동 전망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묻고 그 답을 찾는 여정을 담아보려 합니다.

모든 지역민언련을 다 만날 수 없어 두 곳을 정했습니다. 지난 여름 전북민언련과 부산민언련을 찾아 활동가들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 고민을 나눴습니다. 전북민언련 손주화 사무처장과 조재익 활동가, 부산민언련 박정희 사무국장이 함께 했습니다. 두 단체를 각각 인터뷰한 내용을 하나의 글로 정리했습니다. 여러 고민이 두서없이 담겨있으니 너그럽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언론 운동의 기쁨과 슬픔



▲ 전북민언련과 충북민언련 활동가들 (왼쪽부터 현슬기, 이수희, 조재익, 계희수, 손주화)

충북민언련의 경우 2021년에는 주제별 특별 보고서를 냈고, 지난해부터는 TRAP(TRy Authentic news Paper)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민언련은 현재 '지역언론 훑어보기' 콘텐츠를 통해 주 1회 지역언론 보도를 비평한 모니터보고서를, 전북민언련은 '전북주요뉴스-피클'을 통해 지역 주요 뉴스를 선정한 일간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레거시 미디어와 지역언론의 영향력 약화로 모니터링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함께 약해지면서 모니터보고서 발행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이거 누가 보긴 보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박정희 언론을 접하고 비평하는 능력은 젊은 세대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저널리즘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매체를 들여다보니까 이제는 뭐랄까, 착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언론이 사회에 실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데 내가 언론이 여전히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감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거요. 그런데 또 반대의 착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영향력이 큰데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가 안 보니까 그 영향력을 작게 보는 착시요.

그래도 아직 언론인들한테는 영향력이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박정희 부산민언련의 경우 900명 메일 보낸 거 한 100명 읽는다 치면 그중 언론인들이나 시민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읽어요. 우리가 모니터한 걸로 분기별 좋은 보도를 뽑고 민주언론상 시상도 하나씩 지역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모니터 내용이 좀 회자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상 주러 가면 기자들이 누가 선정됐는지 알고 있어요. 사실 지역언론 구독률,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전반적으로 무관심한데 이렇게 열심히 보고 이야기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관심이 아무래도 없을 수 없죠.

손주화 우리는 풀뿌리 언론사가 여럿이라 풀뿌리 언론운동연대라는 연대체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언론사도 모니터 하는데 좋은 기사가 거기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 이런 신문사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리는 것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좋은

언론운동을 고민하는 사람들

신문사를 키워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관련해서 보고 서도 많이 쓰고, 좋은 기사 추천도 많이 하고요. 이분들과의 네트워킹을 도모하기도 하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울기도 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얼마나 일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뻔히 보여서요.

조재익 KBS 뉴스7에서 풀뿌리 주간지 언론인들을 출연시키는 코너 <풀뿌리K>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다른 지역에도 이게 있는데 전주에서 이 모델을 만든 KBS지역국 총국장이 본사 지역정책실로 가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손주화 풀뿌리K에서 매체 간에 결합이 되면서 주간 언론사 영향력이 커졌어요. 좋은 언론사가 영향력이 커지는 걸 지역에서 목격하니까 이 반열에 같이 합류하고 싶어 하는 기류가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기자를 채용해서 자체 생산 기사를 높이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민언련은 상시 모니터, 선거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특별모니터를 하기도 합니다. 상시모니터는 일간/주간/월간 등 형식도 다양한데요 어떤 방식이 더 많이 읽히고 효용성 있는 방법인지 모니터 하면서도 항상 고민이 돼요.

박정희 부산민언련은 주간 모니터를 발행합니다. 사실 저희도 일간이 일의 양은 많지만, 오히려 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끔 해보긴 하거든요. 근데 매일 한다는 게 또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도를 못 해요. 주간은 또 브리핑만 하기는 부족하니까 나름 핵심을 걸러내서 ‘엣지’를 넣어야 하는 게 고민이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주간으로 모아서 해도 가볍게 쓰거든요. 예전에 엄청 분석적으로 썼는데 지금은 또 ‘훑어보기’라고 해서 너무 큰 부담을 내려놓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요.

우리도 예전에는 여력이 안 돼서 상시 모니터를 못 했어요. 이게 모니터링 지식도 있어야 하고 품도 들어가는 일인데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거기에 활동비를 맞춰줘야 유지가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때는 복성경 대표님이랑 ‘우리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어야 언론사 문제나 언론악법에 쓴소리라도 하지’ 하면서 버텼어요. 진짜 필요할 때 존재감 있는 활동을 하는 걸로 의미를 찾으면서 버틴 거죠. 언론감시 단체가 꼭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존재해야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언론 이슈로 외부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시민들이 언론 이슈를 잘 모르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피해나 부작용 같은 게 없으니 삶에서 다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해요. 건강한 언론이 있는지 없는지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요.

박정희 언론 감시해봐야 안 바뀌고, 어차피 시민들도 지역언론 안 보니까 영향력 없는데 왜 하나 싶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손을

언론운동을 고민하는 사람들

놓으면 경제계랑 관이랑 공론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휘둘러요. 언론 감시하는 건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균열을 내야 하는 거죠. 지방의회는 의회대로 감시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감시해서 공조가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언론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실제 영향력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착시인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 채로 본인이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거죠.

미국 사례를 들어보면 지역신문이 사라지면서 인식의 양극화도 더 가속화된다고 해요. 지역신문이 사라지면 소위 메이저 언론만 보는데 메이저는 지향이 있잖아요. 근데 지역언론은 보통 수도권 언론보다 중립적이고 정보성 기사들이 많아서 딱히 정치색이 별로 없이 지역 의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잖아요. 지역언론이 쇠퇴할수록 중앙언론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손주화

저희는 언론사 운영상에서 발견된 부정부패를 형사 고발하기도 해요. 실제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지금은 전주 대한방직 공장 부지가 지역의 주요 언론사와 결합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도하지 않는 부분에 관련해서 투쟁하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재무구조도 분석하고 어떻게 유착 관계가 형성되었는지도 살펴보고요. 사장이나 대표이사의 문제점을 거론하기도 하는 등의 싸움을 많이 하고요. 신문윤리위원회의 서창훈 이사장이 전북일보 회장으로 선임됐을 때도 그 문제를

지적했어요. 토착 자본 세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편집권도 침해했던 사람이 신문윤리위원회 같은 자율 구조의 기구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문제 제기였어요. 이것을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싸우면서 이 사람에 대한 논란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확산이 됐고, 원래 그 자리가 지역 사장들이 돌아가면서 회장직을 맡았던 자리였는데,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회장단을 맡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어요. 활동가들이 직접 문제의 당사자를 고발하기도 했어요.

정말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지역 운동조직들이 언론 이슈에 적극적으로 결합이 되는가 봐요.

손주화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원래는 큰 단위에서 함께 투쟁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이 이탈하셨어요. 정치인과 기업이 없으니까 많이들 부담스러워하더라구요. 지역사회를 바꾼다는 건 정말 많은 부담을 안고 뛰어들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결국 활동가 개인이 결합해서 총 8명이 굉장히 힘들게 고발을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지역 내 강성 활동가들이 남았고 소위 '주류'들은 빠졌어요. 시민사회계에서는 젊은 활동가들이 주축이 돼서 뭉쳤고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사 중에서도 다른 단체의 대표 이사가 개별로 들어오기도 했고요. 우리도 시민사회 연대회의와 함께 하는 활동도 있긴 한데 갈수록 연대회의의 기능이 약화되는 게 있어서 요즘에는 성향이 맞는 개별 단위의 시

민단체와 연대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때 고발한 세 명 중 두 명이 1년 6개월의 징역을 살고 있는데요.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하지만 저는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기자 문제는 아무도 보도를 안 하니까 다들 괴로워했거든요.

저희는 아까 말했듯이 지역 주간 신문들과 풀뿌리 언론운동 연대도 하고 있거든요. 회사 자체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의식 있는 편집국장들이나 기자들이 같이 결합해 지역의 의제가 묻히지 않게 교류하기도 하고요. 주간지의 경우 시군 단위는 주재 기자들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언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풀뿌리 미디어들이 같이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운동 조직을 하나 만든 거예요.

지역 순회하며 교육도 같이 다녔고, 공영방송 정상화 파업 때도 같이 결합해서 다녔고 관련한 상영회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해고 되신 분들을 전주로 오시라고 초청해서 시군 단위까지 모시고 다니면서 상영회를 했는데 지역민들도 좋아하셨고 저희도 재밌었어요.

조재익 그때 기억이 인상 깊으셨는지 지금도 언론학교 같은 특강을 지역에서 같이 하자는 제안을 많이 해주세요. 많은 것들이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이곳저곳을 찾아가는 기획이 중요

한 것 같아요.

민연련 운동, 계속할 수 있을까



▲ 부산민연련과 충북민연련 활동가들 (왼쪽부터 계희수, 김보영, 박정희, 이수희)

지역민연련에 5년 차 이하 2030 활동가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각 지역민연련에 젊은 활동가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빼고는 지역민연련 중 조재익 활동가가 5년 차가 넘었는데 재익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가요?

조재익 저는 모니터하는 건 차라리 괜찮아요. 그건 시간이 좀 걸려도 혼자 하는 거니까 할 만한데 저는 스스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활동 연차가 생겨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으로 해야 하

언론운동을 고민하는 사람들

는 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이어서 요즘에는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언젠가는 거쳐야 할 일이겠지만요. 사람들에게 조안을 구하기도 하고 그래요. 최근에는 공동체 라디오가 전주에 곧 생기는데 우리도 회원들을 모집해서 참여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해본 걸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지역민언론 활동가 일이 참 어려운데 조직도 작고 여건도 안 좋아요. 혼자서 많은 종류의 일을 하고 회원 관리를 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조재익 회원님들과의 소통이 약간 부족하다고도 느껴요. 매번 행사 때 오시는 분들만 오니까요. 물론 그분들께도 너무 감사하지만, 활동하지 않는 회원분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런데 직접 만날 기회도, 목소리를 들을 기회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이 있어요. 대안으로 소식지에 회원 인터뷰를 넣거나 회원님들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 광고를 넣는 것을 명목으로 연락을 드리기는 해요. 회원 모임도 확장하고 싶긴 한데 이게 회원님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되면 좋지만, 활동가들이 모임마다 들어가서 약속도 잡아야 하고 주제도 이끌어가야 하니까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회원이 빠지기만 하고 늘진 않는 것 같아요. 저희도 신규 회원가입이 회원 해지 속도를 못 따라가서 밀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

니다. 재정이 많이 힘들어져서 재정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재정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들 힘든데 지역민연련이 얼마나 더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박정희 저희도 인건비에 맞춰서 노동시간을 조정하기도 하죠. 그나마 우리는 사회연대기금 부산형 사회연대기금이라고 해서 지역은행에서 은행사랑 노조랑 같이 기금을 마련한 게 있었어요. 그건 문턱이 낮고 전에는 연령대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서 활동비에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부산은 지금 신규 회원가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언론인들 가입이 전보다 많이 저조해요. 전에는 노조위원장한테 후원회원 가입서 10개 정도 드리면 위원장에 따라 다르지만 집행부들한테 가입서 받아다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렵게 찾아가도 본인만 겨우 하고 조합원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가입해달라고 해도 한 세 번은 만나야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세 번 만나려면 3년은 걸려요. 또 가끔 보니까 가입해달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또 연대할 때 만나다 보면 언론사 사정 안 좋으니 후원해 달라기도 뭐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손주화 전북민연련도 누적해왔던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에는 저희도 후원 행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사회를 하면서 이 돈을 다 쓰면 문 닫자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10년 안에 문 닫는 지역 민연련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면 상근자 없이 조직 이름만 남거나, 실질적으로 활동은 하나도 못

언론운동을 고민하는 사람들

하고 성명서만 내는 단체가 되는 건 아닐지 지금의 활동이 미래 세대에도 가능할 것인지 고민이 되고요.

그럼 지역언론은 어디서 누가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건지 고민이 되죠. 전통적인 방식의 시민 조직이 유지가 가능할 것인지는 회의적이고요. 요즘에는 상근 조직 없이 프로젝트 성으로 모였다 해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10년 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판단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운동조직의 역량, 지역언론 생태계, 언론의 수준이 모두 달라 저마다 그에 상응하는 특화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두 곳의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치열하게 운동하는 그들의 모습에 반성하기도 했고 명맥이 끊겼거나 시도해보지 않았던 운동 방식의 가능성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장 5년 뒤, 그보다 먼 10년 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가는 길이 험난하겠지만 같이 걷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기가 생기겠지요?

충북민언련, 새로운 운동의 첫발을 <떼다>

언론감시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더욱 적극적으로 판을 뒤흔드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고민으로 충북민언련은 지난해 11월 '청주여성 시민매거진 <떼다>'를 창간했다. 떼다는 '첫발을 떼다', '여성이 입을 떼다', '차별의 꼬리표를 떼다'라는 모토로 지역 여성들이 발행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기반 시민 참여형 매체다. 매거진이라는 형식에 맞게 칼럼과 만평 등을 포함해 내용의 풍부함을 갖췄다. 여성들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부터 정치적인 이슈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바로 오늘 청주 지역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반영한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언론이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언론에서 여성과 젠더 문제를 다룰 때 이슈를 협소하게 다루거나 이슈 자체를 주변적으로 여기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지역언론에서 그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청주여성시민매거진 <떼다>

충북민언련은 감춰져 있던 여성과 젠더 문제를 충분히 드러내고, 여성들에게 자신과 동료시민의 이야기를 말하고 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충북민언련은 떼다를 통해 여성과 젠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러한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어 시야를 확장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워진 여성의 목소리를 끄집어내자

충북 지역 언론에서 여성의 얼굴을 찾긴 힘들다. 언론인을 비롯해 보도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취재원, 전문가, 각종 위원회에서도 여성의 몫은 실제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인구 몫에 훨씬 못 미친다. 이는 생산되는 뉴스나 프로그램 아이템으로 고스란히 반영된다.

2022년 청주시 양성평등 부위원장을 지내던 젠더전문가 김수정 회원이 충북민언련에 여성신문 창간을 제안했다. 충북민언련은 양성평등기금을 받아 창간 작업을 시작했다. 편집장 계희수 활동가, 부편집장 현슬기 활동가를 필두로 5인의 편집위원을 구성했다. 김수정 청주시 양성평등부위원장, 오정란 청주여성의전화 대표, 정미진 인권활동가, 유진영 충북스쿨미투지모임 회원, 김현정 전 청주페미니스트연대 청주시의원 출마자로 위원단이 구성됐다. 시내에 현수막을 걸어 시민 기자단을 모집했다. 7월에는 '성평등한 기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주제로 기자단과 시민 대상의 창간 기념 기획 강연을 열었다.

'성평등한 기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저널리즘 교육



▲ 2022년 7월 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떠다> 창간 맞이 저널리즘 교육

충북민언련은 7월 1일부터 27일까지 시민 기자단 및 강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성평등한 기사를 쓰는 능력과 그러한 기사를 선별하는 안목을 배양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가장 먼저, 김수정 청주시 양성평등 부위원장과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짚어 보는 것으로 교육의 문을 열었다.

청주여성시민매거진 <떼다>

이어 한겨레 이정연 기자와는 기성언론이 성평등한 기사를 쓰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살폈다. 오마이뉴스 박정훈 기자와는 앞으로 매체를 만들 우리가 어떻게 기사를 소비하고 또 써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점검했다. 또 월간 옥이네 박누리 기자와 지역의 눈으로 지역을 기록하는 일과 보도 사진 찍기를, 경향신문 우수빈 기자와 기사에 어울리는 제목 달기와 편집하기를 배웠다.

마지막 충청리뷰 박소영 기자와 함께한 기사쓰기 실습에서는 각자 '떼다'에 기고하고 싶은 아이템을 발제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놀라운 것은 기자들이 굉장히 참신하고 다양한 주제를 발제했다는 점이었다. 이 수업에서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매거진 기자단은 발행호에 실릴 기사 아이템을 비르고 취재를 해나갔다.

입을 떼자 쏟아진 이야기들

청주시 양성평등기금이 활용된 만큼 청주지역 여성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모아낼 공론장 역할을 기대했다. 창간호에는 기사, 칼럼부터 영화 비평, 만화까지 8명의 청주시민이 써 내려간 다채로운 이야기가 담겼다. 다른시선에서 기사를 써본 적 있는 학보사 기자들, 교사, 인권활동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했다. 청주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는 여성들의 취향, 고민, 지향이 드러났다. 1호는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총 4,000부가 인쇄됐다.

땀으로 밟을 '매다' 청주에서 운동하는 여자들

정주에서

“정주”라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꾸리는 이들. 하지만 이젠 새로운 이야기는 시작됐다. 여자들은 청주에서 낯선 환경에서도, 새로운 활기를 띠고 있다. 낯선 도시를 밟아도 그들은 이 땅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이 땅을 지키고 싶어한다. 이 땅을 지키고 싶어하는 여자들은 이 땅을 사랑한다.

배치소 여자 야구팀 - "우리 모두 애호스입니다"



배치소 여자 야구팀

배치소 여자 야구팀의 선수들은 야구를 좋아한다. 야구, 농구는 물론 축구, 배드민턴, 탁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긴다. 특히 야구는 팀워크와 끈기, 승부욕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야구 선수들은 야구를 통해 팀워크와 끈기, 승부욕을 키웠다. 야구 선수들은 야구를 통해 팀워크와 끈기, 승부욕을 키웠다.

배치소 여자 야구팀의 선수들은 야구를 좋아한다. 야구, 농구는 물론 축구, 배드민턴, 탁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긴다. 특히 야구는 팀워크와 끈기, 승부욕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야구 선수들은 야구를 통해 팀워크와 끈기, 승부욕을 키웠다.



배치소 여자 야구팀의 선수들이 야구를 즐기고 있다.

JWFC LADIES 농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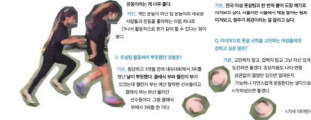
농구팀의 활약을 응원하는 여자들은 계속됩니다!



JWFC LADIES 농구팀

농구팀의 활약을 응원하는 여자들은 계속됩니다! 농구팀의 활약을 응원하는 여자들은 계속됩니다! 농구팀의 활약을 응원하는 여자들은 계속됩니다!

농구팀의 활약을 응원하는 여자들은 계속됩니다! 농구팀의 활약을 응원하는 여자들은 계속됩니다! 농구팀의 활약을 응원하는 여자들은 계속됩니다!



▲ <매다> 창간호 2-3면 '청주에서 운동하는 여자들'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들도 무척 다채로웠다. 2-3면 '청주에서 운동하는 여자들'(이아연)에서는 청주에서 활동하는 여자 야구단과 풋살팀을 만나 땀 냄새 물씬 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농촌에서 살아가는 청년 여성의 삶과 고민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10면 '이장이 꿈인 여자, 프로시골러 안재은 씨를 만나다'(정윤채)에서는 안 씨의 재기발랄한 활동 이야기를 통해 농촌만이 지닌 매력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 또 농촌의 지원된 성평등 문제도 드러냈다.

15면 '청년들은 왜 청주를 떠날까'(배시혜)에서는 타지역 출신으로 청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의 시선에서 청주를 바라본다.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지, 해당 기사에서 힌트를 얻

청주여성시민매거진 <떼다>

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비혼 1인 가구 여성의 시선(김영우), 2022년 충북여성영화제 현장(김혜지), 낙태죄 폐지 후 청주에서 임신 중단하기(행동하는 페미니스트) 등 오늘을 살아가는 지역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 청주 성안길에서 <떼다>를 배포하는 여성 활동가들

떼다 창간 소식은 한겨레, 여성신문 등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여성 이용률이 높은 청춘잡담, 청년뜨락5959, 청주여성의전화, 청주YWCA 등 지방자치단체 위탁 기관 및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매거진을 배포, 비치했다. PDF와 단체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도 매거진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로 매거진 비치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의 문의처도 열어두었다.

우여곡절 끝에 2호 발행

당초 최소 3년은 사업을 지속해달라는 청주시의 요청과 달리, 시정의 기조와 담당자가 바뀌면서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무너졌다. 결국 충북민언련은 발행 부수를 축소하더라도 양성평등 기금을 받지 않고 매거진을 발행하기로 했다. 연 4회 발행 계획도 연 1회로 축소했다. 2호 발행을 위해 충북여성재단에서 소액의 풀뿌리사업 지원금을 받았다. 예산이 크게 줄어들어 따라 부수와 원고료, 디자인 비용 등 모든 것을 대표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디자이너를 비롯한 참여자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이들은 흔쾌히 함께 매거진을 만들어 졌다.

만드는 과정에서는 외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자주 터졌다. 여성들이 혐오범죄로 길에서 살해당하고, 교사들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고, 오송참사를 비롯해 시민들이 폭우 피해로 숨지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다. 처음 발제한 아이템 일부가 빠지고 새로운 의제들이 자리를 잡았다. 2023년 10월에 비로소 2호가 세상에 나왔다.

가장 먼저 실린 '묻지마 범죄가 묻지 않은 것'에서는 최윤종 너클 여성살해 등 여성을 노린 범죄가 여전히 묻지마 범죄로 치부되는 현실에 대해 8명의 여성이 쓴 글이 실렸다. 충북민언련은 자유롭게 이야기를 풀 수 있도록 익명의 온라인 공간을 열어 글을 모집했고, 그 곳에 모인 글을 엮어 매거진에 실었다.

스쿨미투 후 5년이 지난 지금, 그때 그 파도를 겪어낸 당사자들은 현재 어떤 기억을 갖고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4-5면 '스쿨미투 세대, 대담하다'(나은진)에서는 스쿨미투 세대 나은진이 또다른 스쿨미투 세대를 인터뷰했다.

시리즈로 기획된 아이템들은 2호에도 계속됐다. 12-13면 '자기만의 방'(현슬기) 시리즈에는 동성 파트너와 결혼해 살고 있는 '예고'의 공간을 찾았다. 사회가 부여한 편견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 지역에서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9면 네 컷 만화 시리즈 ‘청주에서 비혼 여성으로 살다’도 경쾌한 내용으로 웃음을 준다.

‘자기만의 방’ 을 찾은 여자들

시공, 그것은 꿈향

‘자기만의 방’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개방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닫힌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이는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방’을 찾는 여자들

최근 몇 년간 여성들은 ‘자기만의 방’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찾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만의 방’을 찾는 여자들

이제는 ‘자기만의 방’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자신의 삶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찾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만의 방’을 찾는 여자들

이제는 ‘자기만의 방’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자신의 삶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찾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레스 입은 사람이 돌아오면

‘자기만의 방’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개방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닫힌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이는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방’을 찾는 여자들

최근 몇 년간 여성들은 ‘자기만의 방’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찾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만의 방’을 찾는 여자들

이제는 ‘자기만의 방’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자신의 삶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찾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만의 방’을 찾는 여자들

이제는 ‘자기만의 방’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자신의 삶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찾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 <떼다> 2호 12-13면 ‘자기만의 방’

기획면인 14-15면은 ‘대학교는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일까?’라는 주제의 두 편의 기사가 실렸다. ‘백래시 파도 거스르며 우리는 간다’(채봄)는 대학교 내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생 페미니스트들을 만났다. ‘온라인 공론장마저 빼앗긴 여성 대학생들(배시해)’에서는 유일하게 대학생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에서조차 여성혐오에 노출된 현실을 진단한다.

8-9면 ‘낙태죄 가고 영아살해죄 오다’(떼다 취재팀)에서는 70년 만에 영

아살해죄가 폐지되면서 언론은 영아 인권이 재정립되었다며 환영했지만, 한편에서는 영아살해죄 폐지에 대해 낙태죄를 대리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사실과 그 이유를 분석한다.

2호에 실린 두 편의 칼럼에서는 오송참사와 서이초 선생님 사망사건 등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죽음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6면 ‘오송참사, 각자도생이 아닌 동병상련으로’(연미영)라는 칼럼에서는 참사의 반복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한다. 10면 ‘교권 너머에 교사의 인권과 노동권이 있다’(울량중학교 교사 지연) 칼럼에서는 인권과 노동권과 성평등이 보장된 사회에서는 교사도 학생도 모두 안전하고 평등할 것이라 말한다.

16면 ‘혁신 혹은 상식, 차별 없애는 에어로케이 항공사’(김혜지) 기사에는 여성 승무원에게 과도한 꾸밈 노동을 강요하는 타 항공사들과는 차별을 없애는 특별한 행보를 보이는 청주 모기지 항공사를 소개한다. 7면 ‘공공자전거 타고 싶어서 청주시청 담당자 찾아간 썰.txt’에는 청주에 공공자전거가 도입되길 바라는 대학생이 청주시청 담당자를 찾아가 나눈 이야기를 풀었다. 11면 콘텐츠 큐레이션 ‘속절없이 흐르는 날들, 당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김혜지)에서는 기자가 엄선한 6개의 콘텐츠가 소개됐다.

함께 만든 사람들에게 떼다의 의미는?

김수정 회원은 “여성주의 의식을 가진 두 여성 활동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신문 매거진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충북민언련이 한편으로는 여성운동의 확장 지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떼다의 의미를 짚었다.

1호에 ‘자기만의 방’ 코너와 여성청년 농업인 인터뷰를 쓴 정윤채 회원은 당시 충북대학교 학보사 편집국장이었다. 그는 “일반 시민도 기자가 될 수 있고, 평범한 사람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곳이 ‘떼다’였다”고 말한다. 정 회원은 인터뷰 과정부터 기사가 나오는 순간까지 계속 들떠 있었다고 전했는데, “사람 냄새 나는 인터뷰 기사를 쓰는 게 오랜만이라서”라는 이유였다. 그는 모든 기사가 ‘떼다’여서 쓸 수 있는 기사라는 점이 참 좋았다고 매체에 참여한 소감을 나눴다.

1호, 2호에 모두 글을 기고한 정미진 회원은 “개인적인 얘기를 공식적으로 써보고 누군가의 얘기를 비판도 해보는 이런 학습은 정말 꼭 필요하다”며 “그래서 평소 생각하지 못했거나 써보지 않은 방식으로 쓰려고 연습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미진 회원은 앞으로 더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떼다 창간호를 기획할 때는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매거진이라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 우리는 이 매거진의 존재가 지역에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함께 하고 싶어할까?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하지만 막상 기자단 모집이 시작되고 시민들을 만나보니 지금까지 한 걱정이 모두 기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역의 많은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직접 글을 쓰는 데에 큰 열망이 있었다. 여건 때문

에 연 1회 발행도 벅차지만 이런 매거진이 매달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자주는 어려워도 꾸준히 떼다의 발을 뺏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떼다를 통해 여성 중심의 매체에서는 그동안 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가 터져 나온다는 걸 경험했다. 예산 문제로 떼다가 계속 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지역 여성들의 환대 속에 가능성을 찾아본다.



떼다 전체 기사를 볼 수 있는 블로그 바로 가기

우리에게 <다른시선>이 필요해

충북민언련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특별페이지 <다른시선>을 운영했다. <다른시선>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의제들을 ‘다른시선’으로 바라보고자 기획했다. 6·1 충북 지방선거 특별페이지 <다른시선>은 적·녹 보라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석해 정치와 연결하려는 시도를 선보였다. <다른시선>은 온라인 페이지와 함께 특별판 1만5천 부를 제작해 충북 곳곳에 배포했다. 충북민언련으로선 선거 때 선거보도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하다가 처음으로 매체를 운영하고 제작하는 새로운 시도를 펼쳤다. 다른시선은 3월 한 달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온라인 기사를 출고했으며 선거가 끝나는 6월 1일까지 활동했다.

<다른시선>은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의 선지현 대표의 제안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선지현 대표의 제안에 충북민언련과 민주노총 충북본부 등이 다른시선 제작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아 논의를 시작했다.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 선지현 대표,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톨토리 활동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김기연 대외협력국장, 충북민언련 이수희 대표 등 4명이 발행

인을 맡았으며, 기자 경험이 있는 충북민언련 계획수 활동가가 편집국을 맡아 활동했다. 그리고 김현석 브랜드 디렉터가 매체 디자인을 맡았고 정윤채, 맹찬호, 이아연, 김혜지, 배시혜 등 지역 대학 신문사 기자들이 시민기자로 참여했다. 기자 경험이 있고 언론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왔지만 매체를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1인의 상근 인력과 3명의 비상근 인력으로 데일리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기 쉽지 않았다. 특히 취재 인력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운영진들이 현장 취재와 기사 작성까지 도맡아 체력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건강한 언론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자부심이 컸다.



▲ 다른시선 편집 회의 모습

적녹보라의 관점으로

4명의 발행인은 발행인 인터뷰를 통해 다른시선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선지현 대표는 충북청주경실련 사태와 이재학 PD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충북지역 언론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지역언론이 철저히 지역의 주요사안들을 외면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매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선지현 대표는 피해자의 시선에서, 노동자의 시선에서 사건을 제대로 다뤄주는 매체를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장우정 발행인은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언론이 가진 영향력을 생각할 때 그냥 있어선 안 되겠다, 다른시선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으며, 김기연 발행인은 노동 이슈를 외면하는 현실에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매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동참 취지를 밝혔다. 이수희 충북민언련 대표는 그동안 충북민언련 활동을 통해 지역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해왔고 그 때문에 지역의 민주주의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다른시선> 매체를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다양한 목소리 담아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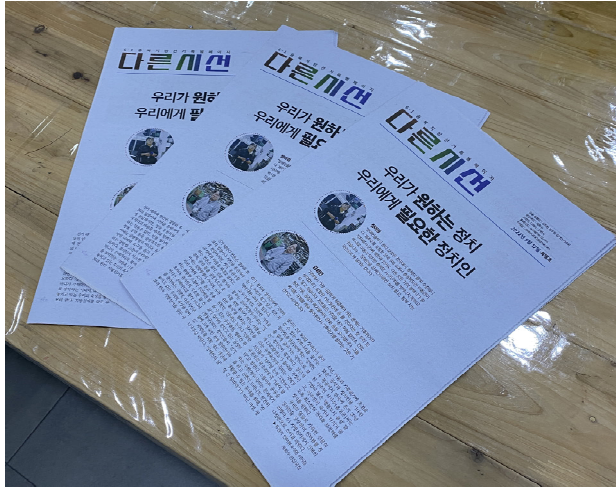
<다른시선>은 적녹보라 관점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지방선거에서 농민, 여성, 서민, 노동자, 진보정당 등 지워진 목소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내 지방선거의 주인공으로 만들고자 했다. 진정한 의미의



▲ 〈다르시선〉 온라인 홈페이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론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선지현 발행인은 “적·녹·보라가 따로따로 노는 개념은 아니고 노동이 여성과 기후 문제를 다루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이나 노동자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적인 삶이나 실천들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적·녹·보라 얘기가 필요하다”고 발행 취지를 설명했다. 적녹보라 관점을 매체에 구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적녹보라 관점을 담아 표현하면 어떻게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지를 실험하고자 했다.

<다른 시선>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한 공론장 소유 욕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방선거 기간 동안 지역 내 모든 언론을 통틀어 비교했을 때 내용이 가장 다양했으며, 질적인 면에서도 손색이 없었다고 자부한다. 낙태죄 폐지 이후 청주지역 병원의 임신중단 실태, 기업 중심 성장 정책이 만들어온 LNG발전소·소각장·폐기물 매립장 문제, 지역의 돌봄 노동자와 민간위탁 노동자가 겪는 부당한 현실, 지역에서 쿼어 축제를 꿈꾸는 성소수자의 목소리로 지면을 채웠다.



▲ 지면 발행된 <다른시선>

두 달간 진행한 <다른시선> 특별판 페이지는 말 그대로 특별함으로 가득했다. <다른시선>은 매일 같이 칼럼을 발행했으며, 선거 이슈를 다른시선의 시각으로 취재해 보도했으며, '유권자가 묻는다'와 같은 기획 인터뷰해 보도했다. 기성 언론에서 양당 중심의 보도를 이어갔다면 다른 시선에선

진보정당 등 소수정당 후보들과 그들이 내세운 공약 소개도 충실히 했다.

16명의 필진으로 칼럼 매일 발행

〈다른시선〉이 기존의 매체와 확연히 달랐던 건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이슈로 매일매일 발행했던 칼럼이다. 외부 칼럼진을 구성해 기후 위기와 환경, 노동, 지역 공동체, 지역 언론,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쉬지 않고 내 빛을 발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준 고유, 지연 교사, 청소년 인권 문제를 이야기한 주연 활동가, 여성 정책을 평가한 이지영 충북 여성정책포럼 정치사회분과장, 노동현장 이야기를 들려준 조남덕 금속노조 활동가, 김기연 발행인, 이주노동인권 문제를 이야기한 서선영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일하는 여성의 삶과 육아 이야기를 한 김현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총무부장, 페미니스트 활동가 톨도리 발행인, 기후위기 의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홍덕화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박윤준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동물권을 이야기한 김미진 전 활동가,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전한 김현식 정의당 충북도당 성소수자위원장, 지역과 공동체 이야기를 전한 황민호 옥천신문 대표, 지방선거와 지역언론 이야기를 해온 충북민언련 이수희 대표 등이 칼럼을 썼다.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16명의 필진은 매일같이 자신의 목소리를 지역사회에 들려줬다. 〈다른시선〉의 창간 취지대로 적녹보라 관점에서 고민과 제언 등을 이야기했다. 계획수 편집국장은 다른시선을 기획하면서 칼럼 필진들을 만나는데 그 누구도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나 의심

없이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반응이었다며 지역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다른시선으로 실행할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다.

<다른시선> 칼럼진은 지역에서 배제된 목소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이야기, 삶과 투쟁의 현장에서 맞닥뜨린 고민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인권 문제와 기후위기라는 어려운 의제를 잘 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존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필진 구성으로 향후 지역 기반의 독립언론을 만들 때 선례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성과를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달간의 실험이 가져온 성과와 한계

두 달간의 특별한 실험은 끝났다. 두 달간의 <다른시선> 실험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의 존재를 확인시켰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기존 언론이 회피하는 여러 문제를 <다른시선>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두 달간 여러 필진의 좋은 글을 접하면서 지역사회에 계속해서 이런 글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커졌다. 계희수 편집국장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을 많이 발굴해야겠다는 생각했으며, 대안언론이지만 지역 간 불균형과 같은 기존 언론이 갖는 한계에서 다른시선도 벗어나지 못해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선지현 발행인은 <다른 시선>이라는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언론의 역할을 확인했다며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여러 사람과 연대하면서 대안언론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며 언론플랫폼을 만드는 운동을 고민한다고 밝혔다.

건강한 언론을 만드는 데에 뜻을 모았지만, 운영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다른시선 제작과 운영에는 약 1천5백만 원이 들었다. 이 비용들은 선지현 발행인의 개인 대출과 후원 조직 등으로 만들어졌다. 매체를 함께 만들 사람들을 모으는 일도 중요하지만 운영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추는 것도 매체를 유지하는 큰 몫을 담당한다.

기존의 지역언론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지역사회에 필요한 좋은 언론을 상상하고, 실제로 가능한지 실험해 보고, 공동체저널리즘을 구현해낼 수 있는 언론 플랫폼을 만드는 운동에 대한 고민까지 <다른시선>을 통해 값진 경험을 했다. 매체를 만드는 데에 있어 자본과 인력이 필수적 요건이라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역 내 여러 주체가 모여 매체 제작에 나서 지역 공동체 저널리즘으로 구현해본 실험이어서 의미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선거보도 모니터링에서 매체 창간까지

충북민언련은 2003년 창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 기존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선거보도 모니터링을 해왔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후보 위주 동정 보도와 경마식 보도를 넘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정책보도와 검증을 충실히 해달라는 주문을 해왔지만 선거보도 관행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 언론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

을 돕는 역할보다는 정쟁만을 중계보도하거나 정치 혐오와 무관심을 양산하는 보도를 내놓기에 바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작 지역의 주요한 의제들은 선거라는 공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역의 민주주의 기능도 확인해야 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충북민언련은 <다른시선>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언론이란 무엇인가를 확인했다. 또한 언제까지 언론 견제와 감시에 머물러야 할까. 개선되지 않는 지역언론의 보도 행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언론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새로운 주체를 발굴하고 이야기를 모아내고 소외된 사람에게 마이크를 쥐여주고, 지역에서 지워진 목소리를 공론장으로 끌어내는 것도 시민언론운동 단체로서 마땅히 해나가야 하는 역할이다.



선거보도 모니터링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성언론이 놓치고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담아낸 매체 <다른시선>은 적극적인 미디어리터러시의 방법으로 새로운 시민언론운동을 모색한 특별한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SECTION 2

뉘아넌 길



지난 20년동안 충북민언련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신 회원님들을 만났습니다. 운영위원 6인의 릴레이 칼럼에서는 건강한 언론의 중요성과 언론권력 감시 운동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050 <지역언론의 새 판을 만들다> 포럼 현장

072 회원인터뷰, 당신의 지지로 길을 내다

이만큼 버텼는데 앞으로 더 못 버티겠어?

- 임명수 회원

평범한 사람의 참여가 진정한 의미의 '언론 민주화'

- 정미진 회원

충북민언련에서 언론과 젠더의 연관성을 깨치다

- 김수정 회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힘 있는 이들에게 긴장감 줄 수 있는 기지이고 싶다

- 이정훈 회원

충북에서도 시민참여 저널리즘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충북민언련의 도전

- 정운채 회원

충북민언련, 시민들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기르는데 기여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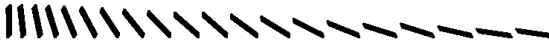
- 이성철 회원

“거창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기자로서 일하는 것뿐이에요”

- 이현경 회원

돌맹이 하나라도 물길은 달라진다, 충북민언련 역할 필요해

- 안건수 회원



123 지역을 바꾸는 언론 우리의 목소리, 운영위원 칼럼

지역주민 권리를 지켜내려면 이번엔 달라야 한다

- 이수희 충북민언련 대표

땡땡 뉴스를 보고 싶지 않다

- 선지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

풀뿌리언론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 황민호 옥천신문 대표

우리의 ‘삶’을 말하는 지역 언론이 필요하다

- 유진영 노동당 충북도당 사회운동위원장

우리의 끈질긴 지구력을 찬양하며

- 박소영 충청리뷰 편집부국장

보이지 않는 사람들

- 김현정 충북대 심리학과 박사과정

지역언론의 가치와 희망을 발견하다 〈지역언론의 새 판을 만든다〉 포럼 현장

충북지역 언론사에서 활약하는 현직 언론인들이 독자시청자와 만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9월 26일, 〈지역언론의 새 판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언론인들을 초대해 좋은 콘텐츠와 혁신적인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포럼은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언론노조충북지역협의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후원했다.

이번 포럼의 목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언론의 가치를 더 잘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덮어놓고 ‘지역언론 볼 게 뭐 있어’라는 말로 흘리기에 좋은 콘텐츠와 해야 할 이야기들이 넘쳤다.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주제들, 꼭 만나야 할 언론인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11명의 언론인은 포럼에서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기까지의 치열한 과정과 성과를 발표했다. 언론의 가치와 언론인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충북민언론 회원, 대학 학보사 기자, 노동·시민사회 활동가, 시민 등 50여 명의 인원이 포럼에 참석했다. 전국언론노조 MBC충북 이일범 지부장, 옥천신문 이현경 국장 등 여러 언론인들도 자리에 함께 했다. 이상대 언론노조충북지역협의회 의장의 축사와 충북민언론 이수희 대표의 인사말로 포럼의 문을 열었다. 〈지역언론의 새판을 만든다〉 포럼은 콘텐츠, 보도,



운영 세 가지 파트로 나눠 진행했다.

포럼을 마치고 매년 이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참석자들의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 참석자들은 “숨겨진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포럼에 참여한 언론인들도 “서로 몰랐던 좋은 콘텐츠와 진솔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좋았다”며 “많이 배워간다”는 말을 남겼다. 특히 서로 교류하지 않던 신문과 방송 종사 언론인들이 서로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큰 자극이 됐다고 덧붙였다.

여성 언론인, 방송의 다양성을 만든다

MBC충북엔 정규직 여성 PD가 딱 한 명 있다. 바로 김우림 PD이다. ‘가장 진보적인 콘텐츠, 지역에서 전국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우림



▲ MBC충북 김우림 PD

PD는 여성 출연자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가 본인 한 명 뿐이라며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여성 언론인의 존재와 역할이 중요함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림 PD의 첫 다큐멘터리가 <아이엠비너스>라는 점은 이를 정확히 반영했다. 아이엠비너스는 여성의 성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가부장제가 은폐한 여성의 몸을 상세히 다뤘다. 빼어난 영상미까지 갖춘 이 다

큐는 국제적인 상을 수상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김 PD는 다큐 제작 이후 전국 곳곳에 GV와 강연을 다녔는데 지역의 소도시로 갈수록 성교육의 질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꼈다. 그러한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도 지역언론의 역할이라 생각했다. 김 PD는 2년 후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성교육은 처음이라>를 제작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배경의 출연자들이 나와 성적 정체성과 지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성을 탐구했다.

‘지역 공영방송과 PD 저널리즘의 가치’라는 주제를 발표한 KBS청주 김효진 PD도 다양한 아이템을 다룬다. 특히 김 PD는 “페미니즘 이슈는 꾸준히 화제가 되고 있음에도 방송에서 우회적으로만 다룰 뿐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려준 적은 거의 없다”며 방송사의 페미니즘 외면 현상을 언급했다. 이에 <한끼시사> 팀은 페미니스트들을 불러 모아 토크 형식으로 ‘당신도, 페미니즘이 불편하신가요?’와 ‘당신이 몰랐을 생존자의 이야기’ 편을 제작했다.

30년 넘게 CBS충북의 라디오를 지키고 있는 이수복 PD는 충북 지역 1호 여성 PD이다. ‘PD 겸 앵커로, 깊이 있는 라디오 시사 프로의 비결’을 발표한 이 PD는 자신의 지난 시간을 “모든 것이 검열이고 모든 것이 투쟁이었”다고 표현했다. 그도 그런 것이 생방송 연결을 약속한 인터뷰도 앵커가 여자라고 당일 취소하는 등 ‘여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것이 가로막혔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 CBS 이수복 PD

지역의 여성운동과 합류하고 공부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한다. 일부러 이름 없이 여성 잡지를 만든 적도 있다고 전했다.

‘젊고 새로운 선거 콘텐츠’를 발표한 이지현 MBC충북 기자는 선거 후보자를 청년이 검증하는 <청년면접>을 제작해 큰 호평을 받았다. ‘늘 면접을 보는 청년들의 입장을 뒤집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기획이다. 이 기사는 후보자 섭외보다도 청년면접관 섭외에 공을 들였다고 한다. 본인의 색깔이 뚜렷하지만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이들을 찾으려 노력했고 지방선거 출마 경험자, 중학교 학생회장, 장애인, 연극배우, 자영업자 등 다양한 주체를 등장시켰다.

이 기사는 프로그램 중 가장 신경 쓴 코너로 <소수의견>을 꼽았다. 농사를 짓느라 밭더미에 오른 청년 농부, 자립 준비 청년, 중도 입국 청소년, 경계성 지능인의 엄마, 스쿨 미투 활동가 등을 찾아 면접 형식으로 다루지 못한 내용을 VCR로 담아 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선거 출마자들

충북민언론 20주년 기념 좋은 콘텐츠 포럼



▲ MBC충북 이지현 기자 발표 모습

이 아니라 유권자에게 더 오래 마이크가 가야하고, 거기서 나온 다양한 유권자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게 바로 지역 언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이 기자의 생각이다.

지역 시사다큐가 더 많이 나와야 하는 이유

KBS청주는 충북 지상파 방송사 3사 중 중 유일하게 꾸준히 시사다큐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PD저널리즘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방송 중인 <다큐공작소>는 네 명의 PD가 프로그램을 꾸려간다. 김효진 PD는 프로그램의 포맷을 따로 두지 않고 현장과 당사자를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수어를 주제로 다뤘던 '소리 없는 세계'는 세상에 나오기까지 4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PD부터 수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했기에 직접 배우는데 시간을 들였기 때문이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청주동물원의 갈비뼈 사자 구출기 '안녕 바람!'도 제작하는 데 두 달 정도가 걸렸다. 김 PD는 장기간에 걸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이유로 제작 기간에 정해진 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긴 호흡으로 지역 이야기를 담았을 때 지역민의 관심이 더욱 크고, 지역민들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7월 15일 충북 지역에 폭우가 내리던 날 네 명의 피디는 각자의 아이템 준비를 잠시 뒤로 하고 참사 현장으로 향해 밤새 장례식장과 오송 참사 현장을 촬영했다. 전국적으로 많은 방송 팀이 몰렸지만, 청주에 사는 사람들하기에 제일 일찍 가고, 제일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며 보다 깊이 있는 취재를 할 수 있었다. 제작진은 같은 날 산사태로 숨진 청년의 죽음을 최초 보도하기도 했다. 관련 기관에서는 파악조차 되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취재가 시작되니 담당자들이 부랴부랴 유가족에게 연락했다.

김효진 PD는 지역에서 일하는 것에 효능감과 쓸모를 느꼈다고 한다. KBS 본부의 시사 프로그램 <시사직격>에서도 수해 피해를 다뤘지만 오송 참사는 전국적인 이슈 혹은 기후 문제의 하나의 사례로만 등장했다. 하지만 지역에 사는 우리는 오송 참사가 재난 시스템 컨트롤타워의 부재임을 안다. 국토관리청과 충청북도, 청주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지역에 사는 언론인이기에 취재로 밝혀낼 수 있었다.

김효진 PD는 함께 시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네 명의 PD 모두가 충북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역색이 뚜렷하지 않은 충북을 보며 충북이 가진 매력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더불어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의 힘을 느꼈



▲ KBS청주 김효진 PD 발표 모습

다. 그는 지역의 언론인들이 지지하지 않고 현장에서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역에 아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수복 PD는 자신의 흔적이 남는 것이 싫어 포럼 참석 여부마저도 고민했다고 한다. 오랜 세월 언론인으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지역의 많은 관계와 일부러 거리를 두곤 했다. 그럼에도 그는 30년 동안 자신을 이끌어준 것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언론에서 살피지 않는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던 것이 30년을 버티게 했다. 앵커와 PD를 병행하느라 매일 스튜디오 앞을 지킨다는 이 PD는 자신을 대신해 로컬의 이야기를 잘 담아달라고 후배 언론인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시청자의 감시가 필요해



▲ CJB청주방송 방찬희 PD

‘지역방송에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를 발제한 CJB청주방송 방찬희 PD는 충북 지상파 3사 중 유일하게 시민 참여형 비평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CJB청주방송은 2011년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방송 송출만으로 일이 끝나지 않는데, 방 PD는 시청자 평가원이 방송 프로그램과 뉴스에 대한 공개 비평을 하면 방송 이후 원고를 심의 부서로 전달한다고 전했다. 심의 부서에서는 해당 원고를 방송국 내 각 부서로

전달해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언론사 내부 평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의 중립적인 시선에서 보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CJB청주방송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는 SBS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받아 송출했다.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방송해 법적 의무만 해결하고 자사 프로에 대한 시청자 비평은 받지 않는 것이다. 방 PD는 이를 두고 정작 지역 시청자들에게 더 밀접한 프로그램들은 비평 대상조차 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방 PD는 비록 월 1회 방송이지만, 지역 민영 방송사 중 가장 먼저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한 것에 대해 작은 자부심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CJB청주방송 <TV를 말하다>

에서는 시청자가 직접 출연한다.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업해 직접 비평에 참여하는 시청자 비평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방찬희 PD는 비평단에 많은 지역민이 참여하길 독려하면서도 시청자 비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작을지라도 지역 방송사와 지역민이 함께 코너를 꾸리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제약도 많았지만

김우림 PD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담으며 방송사 내부에서 많은 우려의 소리를 들어야 했다. 첫 다큐 아이엠비너스가 화제된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성교육은 처음이라서 성적 정체성과 지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스온어스>에서 성소수자로 커밍아웃을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을 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하지만 김 PD는 이런 과정이 제작진들에게는 문제의식을 심화하는 과정이었다고 전한다. 또한 김우림 PD는 재원도 사람도 부족한 제작 환경을 이야기하며 지원 사업에 응모해 콘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화제를 모은 김 PD의 최근 세 가지 작품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작 지원을 받은 콘텐츠들이다.

이지현 기자는 <청년면접>이 호평을 받긴 했지만, 내부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 기사, 제작을 함께했던 김대웅 기자 모두 데일리 아이템을 보도해야 하는 취재 기자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선거에

출마한 단체장들에게 지역에 사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그를 새벽까지 일에 매달리게 했다.

이수복 PD는 위기를 맞은 언론에 대해 이야기했다. 과거 열 달을 무노동 무임금으로 파업했던 이 PD는 당시 겪은 힘든 상황을 전하면서도, 시민이 언론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 삼아 더 나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람을 만나 피땀 흘려 취재한 것이 뉴스다

1989년 창간한 옥천신문은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며 언론의 순기능을 실천하고 있다. 황민호 대표는 신문 발간 이외에도 옥천 취재 기자 체험 프로그램 <옥천저널리즘스쿨>, 주민들이 만드는 공동체 라디오 <OBN>, 면단위 마을신문 <청산별곡> 등을 기획하고 실천하며 꾸준히 새로움을 만들어냈다. 황 대표는 ‘지역 밀착이 곧 혁신’이라고 말한다.

지난 9월 25일, 옥천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벌였다. 일촉즉발의 심각한 분위기 속에 12시간이 넘는 시위와 집회가 이어졌지만, 옥천신문 외 언론사에서 보도는 나오지 않았다. 기록에 남지 않으므로써 투쟁은 없는 일이 됐다. 황 대표는 “이들은 일상이 재난인 사람들이다. 이들이 참다못해 투쟁하는데 옥천신문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신문에도 나오지 않는다. 언론에 대한 불신이 이런 데서 쌓이는 것”이라며 일갈했다.

황민호 대표는 옥천신문의 구독 해제 사유가 대부분 ‘사망’이라며 독자들



▲ 옥천신문 황민호 대표

이 죽을 때까지 옥천신문을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언론사가 원칙과 기준을 떠나 네이버에 검색이 되기 위해 혈안이며, 유튜브 구독자와 뷰 수에만 목을 맨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작 네이버 뉴스에 ‘옥천’을 검색하면 대부분 보도자료를 받은 기사들만 나온다. 황 대표는 ‘이것이 뉴스가 맞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진정한 뉴스란 “주민과 독자를 만나 피와 땀 흘

려 취재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작년에 발행을 시작한 면 단위 마을신문 <청산별곡(현 주간영동)>도 ‘진짜 뉴스’를 보도하는 신문이 지역에 없기에 만들었다고 한다. 특히 영동군에는 주재 기자는 있어도 취재 기자는 없으며 군청 앞에서 삭발 시위를 해도 보도되지 않는 답답한 현실을 전했다.

‘더 가까이, 더 깊이 다가가는 보도’를 발표한 MBC충북 조미애 기자는 사건과 사람에게 깊이 다가가는 뉴스를 만들었다. 조 기자와 이채연 기자가 보도한 ‘검은 속삭임-널 구해줄게’ 시리즈에서 두 기자는 미성년 성착취 남성들을 어플로 유인해 직접 만나 이들의 수법을 폭로하고 형사 처벌과정의 문제점과 낮은 형량을 짚어냈다. 특히 이 보도에서는 ‘헬퍼’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기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숙식을 제공해주는 도움을 주겠다고 유인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조 기자는 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아 어플에 청소년인 것처럼 꾸며 프로필을 올렸고, 다섯 시간 만에 수십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조 기자는 연결된 사람 중 다섯 명을 실제로 만나



▲ MBC충북 조미애 기자

질문을 던졌다.

조 기자는 2021년 이부 오빠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으나 이것이 사랑으로 포장되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은 케이스를 취재한 걸 계기로 이 아이টে에 파고들었다고 한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소위 ‘그루밍 성범죄’는 이것이 성립하기 어렵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양형 기준이 높지만 실제로는 여러 번 범행이 일어나도 폭행과 협박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실정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전했다.

조 기자가 검증하고 싶었던 것은 다섯 가지였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①집행유예가 대다수인가 ②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③ 13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가 ④ 양형 기준 기본형보다 낮은 형량인가 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이유

가 합의 때문인가 이 다섯 가지를 검증 대상으로 삼아 조 기자는 후배 기자와 함께 5년 치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700여 건을 전수 조사했다.

현장 취재 전 데이터 분석을 마치고, 이런 분석을 토대로 기획 보도팀은 현장 취재에 나섰다. 비대면으로 접근하는 성인이 많기에 청주에 거주하는 16세와 15세로 프로필을 만든 두 기자는 헬퍼, 즉 가해자들과 SNS로 이야기를 나눴다. 자칭 헬퍼들은 조건 만남이나 유사성행위 가능 여부, 콘돔 없는 성행위 여부 등을 서슴없이 물었다. 헬퍼들을 직접 만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조 기자는 취재를 하며 오히려 왜 만나러 갔느냐며 성인들이 피해 아동을 탓하는 경우를 봤다고 전했다. 이런 책임 전가의 선입견이 재판에서도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우리의 보도가 사회의 선입견을 부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다

‘지역민의 삶을 바꾸는 보도의 영향력’을 발표한 CJB청주방송 안정은 기자는 ‘겉쌍둥이 부부의 눈물’이라는 리포트를 소개했다. 안 기자는 쌍둥이를 두 차례 출산한 뒤 부인이 하반신 마비 증세를 얻어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사연을 보도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뜻밖에도 제보는 충청북도 인구정책팀에서 받았다고 한다. 도청은 김영환 지사가 공약으로 걸었던 출산육아 수당을 겉쌍둥이 출산 예정인 한 부부에게 주고 싶었으나, 아내가 출산 과정에서 하반신 마비를 겪어 축하금을 전달하기엔 애매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안 기자는 이러한 상황을



▲ CJB청주방송 안정은 기자

보도했고, 안타까운 사연에 SBS에서도 해당 보도를 송출했다.

뉴스는 블로그와 맘카페로 퍼지며 전국적인 화제를 얻었다. 부부가 긴급 복지 지원을 받았고, 이를 담당했던 청주시 공무원들이 성금을 모았다. 각 계각층, 지역 곳곳에서 후원금 문의가 빗발쳤다. 언론에 화제가 되면서 많은 언론사가 부부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전부 대응할 수 없었던 부부는 인터뷰 창구를 CJB로 통일하는 등 취재진을 신뢰했다.

안 기자는 지역에 밀착한 보도로 지역민을 도울 수 있다는 자부심을 얻었다고 전했다. 다양한 사건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뉴스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지역민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기사를 생산하는 것도 언론인의 역할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다시 확인한 재난주관방송사의 필요성

‘재난·재해 상황 속 공영방송의 역할’을 발표한 KBS청주의 송국희 기자는 호우가 내렸던 지난 8월 신속한 보도로 지역민에게 재난 상황을 알렸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참사의 경위를 꾸준히 추적하고 보도하며 수신료의 가치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KBS청주 송국희 기자

송 기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며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렸다. 특히 한국방송공사(KBS)는 재난방송 주관사로서 책임지고 재난방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난 업무의 소관 부처나 지자체장 등에게 관련 정보를 요구할 권한도 지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KBS는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모의 훈련도 하고 있다고 한다.

송 기자에 따르면, 호우가 내렸던 올해 재난방송의 목적은 ‘피해 최소화’였다. 이를 위해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을 보여 주며 지역민들의 대피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재난방송만큼은 KBS 기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송 기자는 그럼에도 많은 사망자를 만든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KBS청주는 전날부터 재난방송 체제에 돌입해 현장을 지켜지만, 임시 제방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다. 송 기자는 “우리가 먼저, 혹은 어떤 방송사든 주변에서 현장 연결을 하고 있었다면, 시민 제보를 조금 더 빨리 알아 증계를 했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으며 뼈아픈 반성을 했다고 전했다.

이번 재난 당시 KBS청주가 현장 연결로 보도한 기사는 134건이라고 한다. 참사 이후인 16일과 17일 보도에는 대응 부실 관련 내용들이 주로 보도됐다. 송국희 기자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대비는 하고 있는지에 재난방송 포인트가 맞춰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송 참사 이후에도 잠깐의 국지성 호우로 CBS 앞 도로가 침수되는 일이 있었는데 워낙 빨리 침수된 탓에 현장 증계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이런 상황을 얼마나 빨리 알아채고 현장에 갈 수 있는지, 시시각각 닥쳐오는 재난에 대한 시스템 정비가 숙제가 됐다고 전했다.

재난 유형이 달라지며 지자체에서도 평상시 배수로나 독을 잘 관리하는 등의 일이 과제가 됐다. 송 기자는 이런 과제를 기사를 통해 던지고, 재난당국이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언론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난방송의 가치가 KBS의 현재 가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만연한 재난에 얼마나 빨리 대처할 수 있는지가 KBS의 고민이고 숙제라는 말로 강연을 마쳤다.

권력 감시의 중요성과 무게

‘권력을 감시하는 탐사보도의 힘’을 발표한 충북인뉴스 김남균 편집국장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부적절한 참사 대응과 부동산 문제를 꾸준히 보도했다. 이에 충청북도는 충북인뉴스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재갈 물리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김남균 국장은 탐사보도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연단에 올랐다.



▲ 충북인뉴스 김남균 편집국장

김남균 국장은 복사-붙여넣기만으로 하루에 수십 개의 기사 생산이 가능한 지금, 충북에만 똑같은 기사를 쓰는 언론사가 200개나 필요하겠냐고 물었다. 이들의 지향점은 지역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담고, 권력에 대한 탐사 고발 위치독을 하자는 것에 있다.

최근엔 이런 지향점 때문에 고발을 당하는 경우도 생겼다. 포럼 며칠 전에도 충청북도교육청은 충북인뉴스가 윤건영 교육감의 ‘호상’ 발언을 왜곡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그 이전엔 김영환 도지사 의혹 보도로 충청북도가 고발을 했다. 김남균 국장은 “고발 전문매체 하려다 피고발 전문매체가 되어버렸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화제가 되었던 김영환 도지사 시리즈 보도는 제보에서 시작됐다. 올해 3월, 김남균 국장은 정치권 관계자로부터 김영환 지사가 한순간에 많은 부채를 갚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부채를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한 의심을 했고, 파헤치다 보니 관련 탐사보도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 국장은 권력 감시에서 중요한 것은 ‘팩트보다 의심’이라고 했다. 의심이 합리

적이라면 보도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김영환 지사의 부동산 문제나 참사 대응을 추적해 나가고 있으며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모든 의심에 완전히 장담할 수 없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억압”이라며 합리적 의심을 모두 가져 뉴스 취급하는 지자체의 행보를 비판했다.

김남균 국장은 권력자들이 언론사를 입막음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협박을 한다고 말했다. 언론사의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를 끊어버리고 이후 다시 줄 것처럼 유혹하며 협박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는 신문사를 통째로 사버린다. 김남균 국장은 충북인뉴스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해 장내를 술렁이게 했다. 그럼에도 그는 “충북인뉴스는 지속해서 김영환 지사와 또 다른 지역의 권력자에 대해 뒤쫓을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 충청리뷰 이재표 편집국장

‘정론지 충청리뷰의 도전’을 발표한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도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사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충청리뷰는 1994년 발행을 시작한 충북의 대표 정론지이다. ‘작지만 강한 신문’을 선언한 충청리뷰의 이재표 편집국장은 종합미디어 구축에 도전하고 전문기자클럽을 꾸리는 등 언론의 가치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충청리뷰는 최근 뉴스타파와 함께 검찰 특활비 탐사보도를 준비하고 있다

고 알려 지역사회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그러나 이 보도와 관련해 회사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고, 이 때문에 이 국장은 사표를 결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에서 검찰 눈치를 본 것이다. 그는 다행히 편집국 기자들과 의기투합해 함께 투쟁하기로 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국장은 다음 날 충청리뷰에 실릴 자신의 칼럼 〈할 말〉을 낭독하며 강연을 마쳤다. 해당 칼럼에서는 검찰 예산 검증 보도에 대해 모든 사내 구성원이 동의에 이르지 못해 보도를 시작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후 포럼 다음 날인 27일, 이재표 국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측으로부터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다고 알렸다. 이 국장이 공개한 칼럼 〈할 말〉은 삭제된 채 신문이 발행됐다. 10월 4일, 충청리뷰는 이재표 국장에 대한 보직해임을 철회했고, 충북민언련도 성명을 통해 충청리뷰에 힘을 실었다.

지역언론, '사회 인프라'라는 인식 필요해

계희수 활동가는 저널리즘을 공부하며 큰 꿈을 안고 기자가 됐지만, 현실은 처박했다고 토로했다. 중요한 지역 이슈에 대해 열심히 뉴스를 만들어도 사람들은 네이버를 장식하는 서울권의 사소한 이야기에 더 주목했다. 계 활동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언론의 수혜를 공평하게 받고 있지 않다고 느꼈다.

특히 계 활동가는 지역 주재 기자조차 두지 않는 언론사들이 태반이며, 서울 수도권권의 뉴스로 지면을 채우면서도 '중앙언론', '전국권 언론'이라고 칭하는 언론사들을 행태를 비판했다. 중앙언론, 전국언론을 자처하는 언론

들 때문에 독자들이 전국 뉴스를 다 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내 동네 소식은 하나도 모르는 현실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계획수 활동가는 뉴스 구독을 고민할 때 “내가 사는 곳의 뉴스를 이 언론사는 얼마나 다루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라고 전했다.



▲ 총북민언련 계획수 활동가

2021년, 청주시 북이면의 한 마을에서는 인근 소각장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로 집단 암이 발병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지역에서 많은 투쟁이 있었지만 환경부에 강력한 메시지가 닿지는 않았다. 서울 언론의 외면 때문이었다. 전국권 뉴스들은 환경부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했다. 주민들과 관련 단체, 심지어 전문가까지도 환경부의 발표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의 이야기는 실리지 않았다. 본사인 KBS 뉴스9에는 키보드 단속 첫날임을 알리는 기사는 나갔지만, 북이면 소각장 이슈는 보도되지 않았다. 하지만 KBS청주의 기사는 달랐다. 환경부의 발표에 대해 주민들이 이에 항의하고, 퇴장당하는 장면까지 담긴 소식이 상세히 보도됐다. 계획수 활동가는 이것이 “실제로 취재를 오는 지역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의 핵심적인 차이”라고 설명했다.

계 활동가는 왜 우리의 이야기가 전국뉴스에는 나오지 않는지 의구심을 가져야 하며, 지역언론을 사회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나 유튜브가 사실상 뉴스를 데스크킹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언론이 생산하는 콘텐츠를 얼마나 제대로 접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이에 우리부터 지역언론을 사회 인프라라는 인식을 하고 모든 주체가 다양한 차원의 방법

을 고민해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희수 활동가는 ‘뉴스 사막화’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언론사들이 사라지며 뉴스가 고갈되는 지역이 생긴다는 말이다. 그는 이것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지역언론의 존립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역언론의 새 판을 만든다> 단체 사진

충북민언련 20주년 기념 좋은 콘텐츠 포럼 <지역언론의 새 판을 만든다>를 통해 좋은 뉴스와 프로그램을 만났고, 메마른 지역언론 환경 속에서도 단비가 되어 주는 언론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런 긍정적인 재생산이 반복된다면 지역민들도 지역언론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북민언련은 단비와도 같은 언론인들과의 연대를 통해 건강한 지역언론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언론운동의 판을 뒤집다



“이만큼 버텼는데 앞으로 더 못 버티겠어?”



임 명 수 회원

충북민언련 20주년 특집 인터뷰 시리즈 <당신의 지지로 20년의 길을 내다> 첫 번째 회원으로 임명수 회원님을 만났습니다. 임명수 회원님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대표로서 충북민언련의 역사를 함께 해 온 분인데요. 단체가 어렵고 힘들어도 언제나 활동가들을 지켜주고 계신 고마운 분입니다. 임명수 회원님을 만나 충북민언련의 지난 20년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열혈 독자에서 충북민언련 대표로

초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언론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처음에는 조선일보를 보다가 동아일보가 정권 탄압을 받으면서 응원 차원에서 동아일보를 계속 봤어요. 동아일보 신문에 백지 광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돈 내서 광고를 냈거든요. 그러다가 한겨레 신문이 만들어져서 초기부터 독자 주주를 했고 한겨레 가족 모임도 하게 됐어요. 지역별로 주주들 중심으로 산악회를 만들고 백두산 다녀오고 하다가 가족 모임이 생긴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였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반 독자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고 하는 게 대단하다 싶어요. 교직에 계시면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게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럴 줄은 나도 몰랐죠. 그냥 한 거지, 그냥. 보수적인 충북 땅에서 한겨레 보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는 마당에 더군다나 회장을 맡으면서, 아이고 힘들었어요. 그때 전두환, 노태우 때인데 한겨레 가족 모임 회장이면 ‘이 새끼...’하면서 노릴 때지. 그때 중앙정보부였나 안기부였나 거기 사람들이 우리 학교 이사장한테 전화해서 임명수가 누구냐고 묻고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학교까지 정보과 형사가 와서 동태 파악을 했어요. 한겨레 가족 모임 하는 것 때문에 직장까지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게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 와서 DJ가 대통령 딱 되니까 안 왔죠.

한겨레는 참 복이 많은 거 같아요. 이런 독자 분들이 지금까지 계시고 한겨레 지금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들 건 들 건 봐야지요. 그냥 응원하는 심정으로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창간 주주들은 봐야 돼(웃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지.

한겨레 가족 모임이 작년에 삼십 주년 됐어요. 처음보다 사람들이 많이 줄었지. 그런데 나는 삼십 년을 하는 자체가 되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모임원들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정치적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계속 (모임에) 올 수 있다는 게 기적이다, 그래요. 어디든 모임에서 다 이렇게 위기와 부침은 있기 마련이야. 그런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가는 거, 진짜 그게 기적 아니여?

주변 분들은 소위 유튜브 보수 채널이나 보수 언론 많이 보시나요?

보지도 않아요, 듣기만 하지. 노인들은 스마트폰 잘 못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지. 그리고 TV조선을 참 많이 봐요. 아이고 시장에 가봐도 가게 방에 다 TV조선이야. 요즘 지칠만 하면 트로트를 틀어주고 또 시사 토크를 하다가 또 지칠만 하면 트로트가 나오고. 옛날에는 트로트가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노래교실 가도 트로트만 해요.

원래 한겨레 가족 모임만 하시다가 저희가 엄청 부탁해서 충북민언련 대표까지 맡아주시고, 사실 처음에 되게 부담스러워하셨잖아요.

나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한 경험이 없어서요. 원래 시민단체의 일이 진짜 힘들잖아요.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것도 없지. 시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려고 여러 노력을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될 때도 많고, 시민 운동하시는 분들 진짜 힘들어요. 20년 버틴 것도 자기의 신념과 정신이 없으면 안 돼요. 대단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힘을 줘야죠. 내가 능력껏 한 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해보자, 그런 거였어요. 나는 명예고 권력이고 다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이상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언제나 잘한다, 잘한다 항상 따뜻하게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실무자로서 대표님의 존재 자체가 큰 힘이 됐죠. 무조건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참 잘하지 못했던 순간에도 무조건 잘했다고 해주셨던 게 되게 힘이 많이 됐어요. 진짜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어른이 있다고 주변 단체에도 자랑을 많이 했었어요.

“변치 않고 버티는 활동가들 그저 고마워”

언론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언론이 국민 수준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바른 언론이 돼야 해요. 올바른 판단과 가치가 있지 않으면 국민들을 우롱하고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은 진짜 올바른 정론이 돼야 해요. 언론이 물론 재원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돈에 물 들어가지고 보도하면 안 돼

요. 편파적인 보도를 한다든가, 안 해야 하는 거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러는 거 문제예요. 언론은 항상 사회 비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언론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재벌에 속한 언론이 되면 안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도 빛나는 건 언론이거든요. 언론이 정말 참 진실을 보도해야 해요.

시민단체가 여러모로 다들 많이 어렵거든요.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에 국
회, 언론, 시민단체가 들어가잖아요. 가장 신뢰받아야 할 집단들이 오히려
신뢰도에서 평균 이하 점수를 받고 있어요.

그렇지 뭐 언론이 엉망이야. 지금 언론이 전보다 더 한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너는 안 되고 나는 되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우리가 하는 한겨레
가족 모임이 그 당시에 항상 퍽박 받고 그럴 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데 그때도 우리들이 곳곳이 억압을 당하면서도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버
텼은 거 보면 앞으로도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

충북민언련도 벌써 20년이예요.

그동안에 참 활동가들이 고생 무지하게 했고 그만큼 끌어왔다는 게 기적
이고 잘한 거야. 시민운동이라는 게 누가 지원 해주는 것도 아닌데 어려
운 일을 꾸꾸고 타개하는 분들이 훌륭한 거예요. 하여튼 나는 고마을 뿐
이지 뭐. 그렇게들 열심히 하니깐 그게 고마운 거야. 이런 운동을 했을 때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활동가들이 변치 않고 운동
한다는 거 자체가 진짜 어려운 거거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생각을 공

유하고 그런 게 내 마음이지 다른 거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한 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활동해야 할 지 다음 계획이 있겠지만 이대로 그냥 하는 거야. 하여튼 꾸준하기만 하면 돼. 이제까지 잘했기 때문에 20년이나 세월이 온 거야. 충북민언련 안에서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힘을 합쳐왔기 때문에 20년 이렇게 버틴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니까 여러 사람이 도와서 함께 왔고 함께 갈 수 있는 거. 나는 그래요, 이만큼 버텼는데 앞으로 더 못 버티겠어?

평범한 사람의 참여가 진정한 의미의 '언론 민주화'



정 미 진 회원

충북민언련이 만난 두 번째 회원은 정미진 님입니다. 정미진 회원님은 활동을 시작하며 언론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간 지역언론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해 오며 언론이 담는 내용적 확실성에 대해 누구보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정미진 회원은 시민들의 삶을 언론에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언론 민주화'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이루기 위해 충북민언련 활동에 열성

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미진 회원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희도 언론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뉴스가 재미없던 내게, 내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준 곳

정미진 회원님은 언제부터 언론에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뉴스가 재밌었던 기억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때는 내가 이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슈에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활동을 시작하면서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용이 여성이고 청소년인 내가 흥미를 끌 뉴스들이 아니어서 그렇구나, 나처럼 이 사회가 주류적으로 인정하는 가치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흥미롭지 않은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왜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지금 언론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내용이 배제돼 있으며 무엇이 문제인지 말해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자연스럽게 충북민언련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됐겠네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시민단체가 시민을 대변하기도 하고 시민이 참여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의제를 대변하지만, 언론을 감시하고 언론 수용자를 대변한다는 건 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역에 유일한 언론감시 단체였고 또 민언련이라는 단체가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워낙 활

동이 활발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저도 활동가로서 당연하게 충북민언련에 가입하고 회원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을 잘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비판적 시각이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학습되어야 하는 거고 특히나 이 사회에서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을로서 누군가한테 적응하고 맞추는 것이 항상 익숙하기에 그 비판적 시각이라는 게 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매일같이 기사를 보고 TV를 보는 활동가들이 한 번이라도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는 건 엄청 중요한 거죠.

언론권력 감시라는 게 너무나 필요하지만, 을의 위치에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충북민언련 같은 단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MBC충북에서 청년 관련 콘텐츠로 라디오 진행을 했던 걸로 알아요. 어땠어요?

라디오 8개월 정도 했는데 제 관점이나 생각이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 꾸준히 나간다는 경험이 정말 생소하기도 하고 하다보니 어찌면 이런 것도 권리일 수 있겠다 싶었어요. 우린 공식적인 매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걸 엄청 특권처럼 느끼니까요. 그래서 중반부에는 라디오 하면서 이슈별로 제가 계속 다른 사람들을 섭외해서 같이 출연했던 기억이 나요. 나를 계기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매체에 나가보자, 이렇게요.

다들 낯설고 부끄러워했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공적인 매체를 통해 타인과 공유한다는 건 상당히 정치적인 경험이니까 신기해했죠.

평범한 시민이 누군가를 대신 투표로 뽑는 것 외의 정치적인 경험을 할 기회가 없는 세상이지않아요. 그래서 이후에 잘 되든 안 되든 팻캐스트도 해보자 해서 이어서 했던 것 같아요.

언론에 직접 출연하고 경험하면서 느낀 게 있나요?

언론도 다양한 시각을 담아야 한다곤 하지만 전문가 중심의 사고가 지배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소수자 이슈를 다뤄도 정작 당사자를 섭외하지 않고요. 출연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대중에게 전문적으로 느껴지도록 어떤 감투를 가졌거나 그런 직군의 사람을 출연자로 선호하고요. 전 이런 게 시민이 말할 권리 측면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언론이 자신들의 섭외 권한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저한테 언론의 민주화는 그런 대목인 거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언론은 그래도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말이 나가야 언론의 신뢰도가 유지된다고 하겠지만, 전 그런 걸 누가 판단하며 과연 다양한 삶의 현실이나 다양한 입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데 있어 전문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작동하나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소수자들이나 배제된 이들의 삶과 입장이 전문가에게 호명되어 대신 전달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리로서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언론에 보장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권리를 언론이 독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판적으로 보고 쓰는 것 배운다

그래서 충북민언련이 개최한 언론학교, 모니터 수업에 성실히 참여했던 거네요. 정미진 회원님께는 우리가 청주여성시민매거진 <떼다> 제작할 때도 글 기고 요청도 드리고 했었어요.

맞아요. 저는 지면이나 화면을 통해서 언론권력이 본인들의 관점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이데만이 독점하는 행위가 아니라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쓰고 말하는 능력을 대중에게 학습시키고 교육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비판적 관점을 갖고 뭔가를 본다는 건 상당히 학습되어야 하는 일이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겐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인권단체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민주주의나 인권, 헌법적 가치들이 표현의 자유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소위 언론이라고 인정받고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은 언론들만이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북민언련 활동을 통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고 직접 제작도 해보면서 배우는 거죠.

개인적인 얘기를 공식적으로 써보고 누군가의 얘기를 비판도 해보는 이런 학습은 정말 꼭 필요해요. 그래서 언론 모니터 수업이나 <떼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한 번 할 때마다 너무 신선하고 평소 생각하지 못했거나 써보지 않은 방식으로 쓰려고 연습하게 돼요. 앞으로 더욱 이렇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북민언련은 독립매체를 두 개나 만들었어요. 지방선거특별페이지 <다

른시선)과 청주여성시민매거진 <떼다>요. 기존 언론감시 단체에서 잘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회원으로서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계희수 활동가가 기존 언론을 비판하는 걸 넘어서, 언론에 나와야 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평범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미디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엄청 공감했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기사만 보면 사회에 어떤 희망도 느끼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단순히 마음 아픈 내용이 담겨서 뿐만 아니라 권력자들의 목소리나 입장, 이해관계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와요. 이 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인 저로서는 별 관심 없는 내용도 너무 많고 내 삶에 동떨어진 내용도 너무 많기 때문이죠.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독립 매체나 콘텐츠를 만드는 건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소수자 중요하다, 지역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이슈가 진짜 공론장에 올라오려면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현실은 그들이 뭔가를 하기 힘들고 그들의 말을 실어주는 곳도 없고 조명해 주는 곳도 없고, 그들이 그런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학습할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독립 매체라는 틀, <다른시선>도 그렇고 <떼다>도 그렇고 이런 기획의 장이 있어야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죠. 당장에야 자극적인 보도들 중심의 언론 환경에서 조명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차곡차곡 충북민언련이 이런 좋은 활동들을 누적해가면 분명히 주목받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북민언론 안정기 접어드는 시기, 같이 '으쌔으쌔' 해요

충북민언론이 20년이에요. 회원으로서 대하는 게 있다면요?

제가 지역사회에 같이 활동하는 활동가여서 고충을 잘 알죠. 정말 단체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이런 구조 속에서, 특히 우리는 시민단체라고 말하고 시민이 참여해 주길 바라지만 현실은 회비를 내는 것만으로 활동들이 대체 되는 현실이 참 힘들어요. 그리고 재정적인 독립이라는 것도 갈수록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단체를 지속하는 것이 큰일이라는 이런 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네요.

활동가들이 재정 문제로 많이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회원이나 지역사회에 긍정적이고 희망찬 메시지를 많이 내보내고 있어요. 같은 활동가 입장에서 그런 에너지가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진짜 엄청 중요하거든요. 충북민언론 활동가들이 워낙 젊어졌고 그건 지역사회 시민단체에서 되게 보기 드문 일인데, 여기서 주목할 건 활동가가 단순히 젊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권한과 주체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에 의무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그간 요구돼왔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정말 활동가들이 하고 싶고 집중하고 싶은 것들에 힘을 쏟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옛 회원들이나 신입 회원들과 좀 같이 으쌔으쌔 잘 해볼 수 있는 활동들을 꾸준히 해나가면 뭐든지 좋아요, 저는.

너무 든든하고, 고맙네요. 회원들의 애정이 활동에 절대적인 힘이라는 걸 요즘 새삼 깨달아요.

사실 활동가 윗세대와 우리 세대에 간극이라는 게 너무 멀잖아요. 사람이 꾸준히 키워질 수 없었고 시민단체들은 한두 명이 해오던 활동을 몇십 년 동안 같은 사람이 하는 구조라서요. 지금 충북민언련 활동가들 많이 고생하고 있고 저는 지금이 단체가 안정기에 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상임 활동가들이 조금 더 긴 전망으로 조직의 운동을 고민하는 시점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 주변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글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도 꼭 회원가입을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젊고 새롭게 시도해보고자 하는 활동가가 있는 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의무감을 가지고 회원가입이든 후원이든 활동 참여든 해야 하지 않겠나요.

언론-시민 사이를 다시 엮어내보자

20주년 슬로건 ‘언론운동의 판을 뒤집다’는 어떤 거 같아요?

시민사회 운동도 주체들이 변화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도 질적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것을 선언하고 만드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인지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반기웠어요. 이렇게 충북민언련이 생각하는 새로운 공론의 장을 만드는 일을 어떻게 지역의 자원들과 잘 엮어내고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저는 그게 향후 몇 년 간 주요한 단체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해요.

아마 판을 뒤집는다는 표현대로 20주년이 충북민언련이 그간 맺어온 관계 측면에서도 엄청 큰 전환점이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충북민언련이 새로 시도하는 운동들이 기존의 관계들 안에서만 시도하기 힘들 거거든요. 운동의 질적 내용이 바뀐다는 건 회원을 포함한 관계까지도 재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만나게 되고 협업하게 될 관계도 바뀔 거고요. 새롭게 다시 안정적인 구도를 짜고 있는 활동가의 역할은 무거운 것이고 상당히 고생하는 거다, 그래서 전 그 안정기를 위해 작업해나가는 시기를 길게 설정했으면 해요.

그런 맥락에서 9월 26일에 하기로 한 포럼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언론인들이 토론회 같은 곳에 한 명씩 초대된 적은 있어도 이렇게 질적으로 훌륭한 지역언론 콘텐츠를 이야기하려고 모인 적은 없는 거 같거든요. 지역사회 주체들을 언론을 소재로 엮어내는 작업들, 언론과 시민이 만나는 접점을 만드는 거 아주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자리를 경험해보고 지역언론이나 지역사회 이슈 중에 더 심도 있게 논의 해볼 주제들을 포착해서 후속 토론회도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홍보할 거예요.

충북민언련에서 언론과 젠더의 연관성을 깨치다



김 수 정 회원

김수정 회원님은 젠더전문가로 민·관의 여러 분야에 참여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여성시민매거진 <떼다>의 편집위원을 맡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회원님이 처음 충북민언련에 가입하게 된 계기, 그리고 활동가들을 응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성으로서 또 젠더전문가로서 충북민언련의 활동을 어떻게 보고 무엇을 기대하는지도 들어봤습니다.

언론과 젠더의 연관성을 깨우쳐 준 계기

충북민언련 회원이 된 이유는요?

충북민언련이 역사가 오래된 단체라 알고는 있었지만 특수한 분야이다 보니 친숙하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그러다 제희수와 현슬기가 들어가면서 부터 충북민언련의 행보가 더 선명해지겠다는 기대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회원가입하고 후원금을 내기 시작했구요.

특히 충북민언련에서 청주시 양성평등 기금을 받아 여성 매거진을 만들 수 있었어요. 정말 좋은 기회였죠. 여성주의 의식을 가진 두 여성 활동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신문 매거진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2호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충북민언련이 한편으로는 여성운동의 확장 지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면이 더욱 애정으로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됐어요.

우리가 언론운동의 자장 안에서 여성과 젠더 이슈를 다루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국민의 반이 여성이니 언론이 젠더 문제는 일상적으로 붙어서 분석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론이 젠더 문제를 다루면 여성운동의 협소함 또는 여성의 예민함으로 치부되는 문화가 있잖아요. 젠더 문제를 별도의 영역으로 특화시켜서 보기도 하고요. 그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언론사의 글도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 충북민언련에서 젠더 문제를 계속해서 담아내는 게 우리의 시야를 훨씬 객관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저도 힘

을 보태서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충북민언련 활동이 언론과 젠더가 어떤 연관성을 중요하게 갖는가를 깨우쳐준 하나의 계기로 작동하기도 했죠. 두 활동가를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친밀한 사람이 들어가서 일 하는 걸 가까이 보면서 이렇게도 영역을 확장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기존의 언론운동 진영에서는 언론만 이야기했지 젠더를 그 속에서 이야기하거나 분석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들춰내지 않았던 문제를 전면화했다는 점에서 충북민언련의 활동을 아주 반갑게 생각했죠. 그런 의미에서 두 활동가들의 행보가 지역의 자원으로서는 되게 귀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충북민언련의 역할

지금의 지역언론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역신문 안 본 지는 좀 됐어요. 전에는 중부매일이나 충청리뷰 정도 봤었고 지역 신문에 칼럼을 많이 썼었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했죠. 근데 어느 순간 언론 지형 자체가 인터넷 중심으로 바뀌었죠. 점점 지역 신문은 연합뉴스를 계속 베껴 쓰고 탐사보도도 없고 칼럼도 읽을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운동 진영에서 기대하는 투쟁 현장이 담긴 현장성 있는 기사 같은 것도 잘 안 써주고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니 전체적으로 질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관공서만 기사를 열심히 읽는 거 같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 기자들이 여성계 취재한다고 찾아 올 때 보면 이슈를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90년대 여성민우회 활동 한참 할 때만 해도 여성

부 기자들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그때는 다 같이 무식해서 조금만 알아도 쓸 수 있었나? 아무튼 지금은 워낙 영역이 다각화되기도 하고 꽤 알아야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됐죠. 기자들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이걸 누가 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본인이 왜 기사를 하는지 질문하는 자기 소명을 가진 기자도 드문 것 같고요.

저희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정말 바뀌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지역 시민이 살길이 언론이 로컬을 제대로 전하고 방향을 만드는 거라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추동할 수 있는 충북민언련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떨 때는 시장 자체가 변화했는데 우리가 아무도 안 보는 신문에 너무 과한 의미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대안 언론도 많아지고 유튜브 같은 것들 영향력이 훨씬 커지니까, 필요하다면 이것들을 특화할 수 있는 조직을 충북민언련 안에 새롭게 편성해서 대안 언론을 만드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떼다이기도 하고 다른시선이기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든 대안언론을 하나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판을 할 때는 뭔가 변화를 기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언론 사주나 신문의 기조를 결정하는 임원들의 면면을 보면 너무 철저히 도저히 나아질 수 없겠다 싶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지금

의 현실에서 똑같은 길 계속 비평해내는 건 서로가 기운 빠지는 일이라. 지역언론의 중요성에 동의하지만 살아 있는 생물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는 과감하게 변신이 필요한 거죠. 아무도 보지 않는 신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충북민언련이 기존 언론을 계속 비판한다면 무언가 새로운 방향이나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고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안언론도 필요하고 언론을 견제하는 충북민언련의 역할도 아주 중요한 거죠. 덧붙이면 지역언론도 살려서 역할을 하게 만들고, 그러려면 충북민언련도 살리는 게 필요하다 말하고 싶어요.

죽지 않고 살아남아 새로운 장을 열자

충북민언련 20주년 슬로건을 언론운동의 판을 뒤집다로 정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운동판에 그런 시대적 딜레마가 있는 거 같아요. 이전에 해왔던 방식을 답습하면서 살아왔는데 세계가 너무 다원화되고 세부화 되니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뭐를 바뀌어야 되는지는 그림이 안 나오는 혼돈 상태인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예전에 운동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그 판을 계속 잡고 있던 말이에요. 오래 해왔던 사람들 머리에서 새로운 게 절대 나올 수 없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젊은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그들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세계는 바뀌고

있는데 후배들이 크지 못하고 어르신들만 남아 있는 이상한 운동판, 그리고 언론판이 되는 거죠.

이걸 뒤집으려면 흔들리겠죠. 아마 몇 년이 걸릴 거예요. 생존 조건도 너무 어려워지는 세계잖아요. 후원금 문제부터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게 사니까 오히려 어느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이상한 사회가 돼서 활동 동지들을 만들어내기도 더 힘든 것 같고요. 이런 외중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새로운 장을 열어야죠. 어떻게든 도우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힘 있는 이들에게 긴장감 줄 수 있는 기자이고 싶다



이 정 훈 회원

KBS청주총국의 이정훈 기자는 제천영육아원 아동학대 사태를 파헤친 보도로 충북민언련이 10주년을 맞아 제정한 '충북민주언론시민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십 년이 지나 다시 만난 이정훈 기자는 여전히 현장에서 심층보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는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며 인터뷰를 사양했지만, 이정훈 기자가 말하는 ‘기자’를 전하고자 허락을 구했습니다.

북이면 소각장 이슈 아직도 감사하고 있다

2년 전 환경부가 북이면 소각장 주민 역학조사 재조사를 결정하는데 이정훈 기자의 보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어떻게 취재하게 됐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한 마을에서 각종 암으로 사망한 주민이 60여 명이 넘는데 소각장과 집단 암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는 발표를 보고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클 거라 예상했는데 너무 조용했어요. 처음엔 언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서울에서 일어났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북이면은 사실 청주에서도 변방이고 주민들도 고령화되고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분위기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결합하면서 문제 제기 없이 가라앉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치 침묵의 카르텔처럼. 그런 상황이 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라 공부를 많이 해야 했어요.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내용 들은 사실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상당히 힘들 개념들이잖아요. 공부하고 취재해 나가다 보니 환경부가 조사결과를 객관적인 검증을 하지 않고 소각장에 면죄부를 주는 발표를 했다는 판단이 들었죠.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해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철저히 검증하는 쪽으로 취재 방향을 잡았습니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며 KBS가 악의적 보도를 한다고 대응하기도 했고 취재 협조도 어려웠습니다. 언론사에서 독자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 국내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에게 계속 자문을 구

하며 취재를 해나갔어요. 그렇게 계속 보도해 나가니까 청주시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문제제기하고 주민들도 집단행동으로 항의 집회에 나서는 등 조직화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노력 들로 결국 재조사 결정이 났지만, 현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사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출입처 중심의 보도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탐사보도나 심층 취재 보도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런 분위기에서도 차별화된 보도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기레기’라는 말이 일반 명사처럼 돼버린 언론 현실에서 언론인들이 내세울 수 있는 생존 전략이 차별화된 보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입처 제도는 효율적인 면도 있긴 하지만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힘들게 만드는 구조라서 기자들이 쉽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남들이 안 하고 피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공익적으로 의미 있고 기사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는 이슈를 찾으려고 합니다. 제천 영유아 아동학대 사건이나 북이면 소각장 문제, 구제역 물백신 탐사보도나 특전사 질식사 가혹훈련 고발보도 등은 언론이 문제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들의 목소리를 계속 옆에서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재난 보도도 마찬가지죠. 피해자 중심의 보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힘든 부분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계속 관심 갖는 게 필요합니다. 지역은 특히 지역민들이 갈등을 느끼는 사안이나 소외된 곳을 비추는 보도가 필요해요.

피해자 중심의 보도로, 소외된 곳 비추는 역할 하고 싶다

열심히 심층 보도를 해나가는 힘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지지지는 않나요? 이 기사를 버티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요?

탐사보도에 관심 갖게 된 것도 사실 지역적인 한계 때문이에요. 다양한 아이টে임을 찾기 어려운 지역 환경이죠. 저는 깊이 들여다보는 이슈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 대학원에서 공부한 이후부터 부쩍 공부에 재미를 느꼈고 열심히 했습니다. 덕분에 구제역 물백신 탐사보도에 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사회적 약자를 도와 줄 수 있는 무기를 찾는 느낌이에요. 공부를 안 하면 뻔한 기사 밖에 쓰질 못하니깐요. 기사도 결국 전문성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남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굽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짚어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본인이 전문성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원래 평범하게 하는 걸 거부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군대로 해병대로 자원입대했고, 요즘은 안 하지만 마라톤도 뛰고 그랬죠. 워낙에 자기관리를 잘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번 아웃이 올만도 한데 안 오네요.(웃음) 그리고 가족들이 든든하게 버틸 힘이 되어 줍니다. 고맙죠.

십여 년 전에 충북민언련에 찾아와 모니터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기자들이 보통 민언련에 거리 두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직접 찾아와 모니터링을 부탁해 인상적이었어요.

KBS에 입사하기 전에 지역 케이블 매체에 있었는데 뭘 하든 피드백이

별로 없었어요. KBS에 들어가서는 파급력이 크니 이전과 다를 거라 예상했는데 피부로 외당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충북민언련에 찾아갔어요. 민언련은 언론을 감시하는 역할로 언론계에 긴장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언련에서 모니터링을 해주는 게 기자들에겐 동기부여 역할을 할 수 있어 유의미하다고 봤죠. 지금 언론 산업계 전체가 상당히 위축되는 분위기이고 지상파도 위기를 많이 느낍니다. 여러 플랫폼이 생기면서 웬만한 언론사들보다 파급력이 큰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으니까요. 특히 수신료 분리 징수 상황이 되면 지역이 더 희생양이 될 수도 있고요.

긴장도 격려도 필요합니다. 민언련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어요. 민언련에 활동가들이 늘어나면서 활력도 생기고 정체되지 않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여성시민매거진 <떼다>를 만드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도 발전하는 것 같아요.

충북민언련에 바란다 ... 긴장도 격려도 필요하다

“심층보도를 하는 기자, 자신만의 ‘필모그래피’가 있는 기자”로 지역사회에서 나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포부도 밝혀주세요.

평생을 언론계에 몸담았다고 하더라도 내세울 만한 기사가 제대로 없는 기자들도 많은 것을 보면 나는 나름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밥값 하는 기자, 시청자들에 기억에 남는 보도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KBS 기자로서 수신료의 효능감을 알게 해주는 기자이고 싶습니다.

당신의 지지로 길을 내다, 회원인터뷰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서도 현장을 언론인들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나 역시 70대가 되어도 현장을 지키고 싶습니다. 언론 현장을 오랫동안 지키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목소리에 귀담아들어 주고 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는 게 진짜 제대로 된 기자이고 언론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충북에서도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충북민언련의 도전



정 윤 채 회원

정윤채 회원님은 '다른시선'과 '떼다'의 기자단으로 활동하며 충북민언련과 연결되었는데요. 기자단 활동 이후 지역 일간지 충청타임즈 기자로 활약하다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을 들어가 지워진 이들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언론운동의 판을 뒤집기 위한 충북민언련의 시도를 일선에서 함께 하며 "충북에서도 시민 참여 저널리즘이 가능하단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는데요. 새싹 언론인 정윤채 회원님이 바라본 충북민언련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단독방 성희롱 사건에서 언론의 힘을 느끼다

충북대학교 학보사에서 편집장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과 관련된 학과가 아닌데도 학보사 활동을 결심했던 계기가 있나요? 언제부터 언론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궁금해요.

학보사는 언론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대외활동 이력이나 쌓아볼까 싶어 들어갔었어요. 그러던 중 학교에서 단독방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죠. 당시는 지역에 상관없이 대학 단독방 성희롱 사건이 연이어 터졌을 시기이기도 했고, 다른 학교의 사건보다 성희롱 수위가 심했기에 공론화 대자보가 붙자마자 온갖 매체에 대서특필되었어요. 학교는 언론에 보도된 후 태도를 순식간에 바꾸었고요. 매뉴얼과 내부 상황을 운운하며 "어쩔 수 없다"던 학교가 기사 몇 개에 "최대한 강력 조치하겠다", "피해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실제로는 얼마나 지저분하게 피해자들을 대했는지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모든 말이 우습고 화가 났어요. 피해 학생들이 물어봤을 땐 죽어도 알려줄 수 없다던 것들도 기자들이 물으면 대답해주더라고요. 이를 계기로 언론의 힘을 강력하게 느꼈죠.

당시 지역의 대학교에서도 단독방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크게 보도되었던 것이 기억나네요. 해당 사건에 대해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나요?

사건 초반에는 서울은 물론, 신문·방송·통신 할 것 없이 기사가 나갔어요. 하지만 대부분 발생 보도에 그쳤고, 시간이 지나자 이후 발생한 다른 대학 성희롱 사건에 '한편'이라는 접속사 뒤 사례로 덧붙여지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혔죠. 학교 측에선 다시 전화 돌리기를 시작했고, 학내 여론도 미온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단독방 성희롱 사건 발생 초기, 취재 겸 자문 겸 연락했던 타 대학 단독방 성희롱 사건 피해자들의 말이 생각났어요. “처음엔 누구나 이런 일이 있단 걸 알게 되면 다들 가만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다들 가만있더라고요. 그렇게 가만히 식는 거예요. 기사 나가고, 에브리타임(온라인 대학교 커뮤니티) 터지고 해도 오래 안 가요.” 우리 학교도 그렇게 끝나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때 우연히 계획수 활동가의 기사를 봤어요. 당시 계획수 활동가는 충북인뉴스 기자로 있었는데, 꾸준히 지역 대학교에서 발생한 단독방 성희롱 사건을 보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일이 잊혀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큰 힘이 됐어요. 나도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다짐했고, 개강호 대학 신문에 단독방 성희롱 사건의 처리 과정을 담은 기사를 썼죠. 이 기사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자 계획수 활동가의 페이스북을 찾아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로 간간히 연락을 하게 되며 충북민언련까지 알게 됐어요.

시민참여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보여준 '다른시선'과 '떼다'

지방선거특별페이지 '다른시선'과 청주여성시민매거진 '떼다'에서 기자단으로 활동하기도 했었죠. 어땠어요?

'다른시선' 객원 기사를 하며 명함을 받았는데 그 뒤에 "당신의 목소리는 아직 지워지지 않았"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 한 줄에 가슴이 뛰더라고 요. 실제로 '다른시선' 활동은 지역 내 사회적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 좋았어요. 저는 사회적 소수자 안에서도 나름의 계급이 있다고 생각해요. 장애인도 서울 도봉구에 사는가, 청주시 서원구에 사는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의 양과 질이 천차만별이죠. 충북 안에서도 그렇고요. 하지만 서울에서 소수자 의제를 다룰 때 이런 차이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역 언론에서도 소수자 의제를 종종 다루긴 하지만, 이들을 주인공으로 호명하는 일은 적은 것 같아요. 이에 반해 '다른시선'은 탄생 배경부터 '지워진 이들의 목소리를 찾겠다'는 거잖아요. 기획과 일치한 활동을 통해 내가 되고 싶은 기자의 모습을 정립하게 됐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언론대학원 홈페이지 속 제 소개 문구는 "사회에서 묵음처리된 이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스피커가 되겠습니다"예요.

일반 시민도 기자가 될 수 있고, 평범한 사람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곳이 '떼다'였어요. 여성 시민이 여성의 시선으로,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청주에 거주 중인 1인 가구 여성의 생활을 담은 '나 혼자만의 방' 코너와 문의면에 사는 여성 농업인 안재은 대표님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썼는데, 인터뷰 과정부터 기사가 나오는 순간까지 계속 들떠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 냄새 나는 인터뷰 기사를 쓰는 게 오랜만이기도 했어요. '다른시선'이 그랬듯, '떼다'에서 나온 모든 기사가 '떼다'여서 쓸 수 있는 기사라 참 좋았어요.

함께 활동해 준 덕분에 '다른시선'과 '떼다'가 더욱 빛났어요. 충북민언련의 이런 시도가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에 함께했던 내부 구

성원으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북민언련의 새로운 시도에 함께했던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충북도민이기도 해요. 충북도민으로서 반가웠어요. '다른시선'과 '떼다'가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충북민언련 내부에서만 진행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적극 참여시켜 함께 꾸린 플랫폼이라는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언론과 시민은 파트너다, 언론은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언론은 시민을 대변해야 한다고 하지만 가끔은 언론이 나서서 시민을 타자화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시선'과 '떼다'는 달랐어요. 시민들이 만들었고, 시민들이 움직였죠. 설 수 있는 무대를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대를 직접 만들었잖아요. 충북에서도 시민참여 저널리즘이 가능하단 걸 보여준 계기라고 봐요.

뉴스타파의 뉴스쿨(뉴스타파 저널리즘스쿨) 교육생 선발 공고에는 이런 말을 써있어요. "뉴스타파와 같은 비영리 독립언론이 우리 사회에 10개, 100개가 생기면 망가진 한국언론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시선'과 '떼다' 활동으로 확실히 느꼈어요. 좋은 독립언론이 충북에 단 1개만 있어도 지역사회가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겠다고. '다른시선'은 발행기간이 두 달밖에 안 될 만큼 짧았고, '떼다'는 이제 막 창간호가 발행됐지만, 많은 것을 남겼다고 생각해요. 강한 첫발을 뗐으니, 이 한 발자국을 시작으로 충북에 또 새로운 대안언론이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하게 됐어요. 언젠가는 대구의 뉴스민, 경남의 단디뉴스를 마냥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언론과 시민의 거리를 좁혀주고, 좋은 보도 격려했으면

충북민언련이 벌써 20주년이에요 기대하는 게 있다면?

그냥 지금 해왔던 것처럼 굳건하게 충북민언련의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충북민언련이 언론과 시민들 간의 거리를 좁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시선'이나 '떼다', 언론학교를 통해 시민들이 언론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더 많이 가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충북민언련에서 하는 언론 모니터링 'TRAP'을 자주 보는데, 좋은 기사로 선정된 보도를 볼 때마다 반가운 마음이 들어요. 언론 산업의 위기가 어둡다는 이야기는 워낙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지역 언론은 그 위기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해요. 고작 몇 개월 일했던 주제에 알아봐야 얼마나 아냐는 소리를 들을까 봐 뭐라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지역 언론에도 좋은 기사가 많거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한 비판도 물론 필요하지만, 좋은 보도는 아낌없이 격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충북지역언론,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나아갈 길을 독자로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충북민언련, 시민들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기르는데 기여해야



이 성 철 회원

이성철 회원님은 대학 시절 잠시 휴학을 하고 충북민언련에서 영상미디어 팀 활동가로 일했습니다. 퍼블릭액세스시민영상제를 기획해 주관했으며, 지역언론 모니터링, 학부모를 위한 NIE교육 등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9년 부산 주감초 교사로 근무하던 시기에 미디어오늘이 기획 취재 보도한 <넥스트미디어리터러시> 교육현장편에 이성철 교사의 수업 내용이 소개되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성철 회원님은 학교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강의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현재 부산 교육청에서 미디어교육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부산에서 이성철 회원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다하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답은 서면으로 보충했습니다.

지역신문 보는 아이들 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한다

초등학생들에게 뉴스리터러시 교육을 하면서 지역언론을 활용한다고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지역의 문제를 지역언론에서 꼼꼼히 찾아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환상적인 미디어 교육이자 시민 교육 그 자체가 될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은 지역언론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어린이들은 발달 단계상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에서는 마을 등 가까운 동네의 특성을 인식하고, 3~4학년 수준에서는 고장 등 지역의 지리적, 인문적 특성을 인식합니다. 지역 신문에서 보도하는 학교 주변의 소식들은 학생들이 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기억에 남는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건강을 위해 좋은 밀가루만 쓴다는 학교 주변 동네 빵집 뉴스를 함께 읽고 그 빵집의 빵을 사와 학생들과 나누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동네 빵집이 뉴스에 나오고 빵을 나눠 먹은 재미있는 추억담으로 그칠 수 있었지만 다른 수업에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문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어려운 사회 주제에 대해 토론하거나 배울 때 동네 빵집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지역언론이 알리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들이 소소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까닭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이나 게임 문제로 고민이 많죠. 무조건 규제해야 하는 게 정답은 아닌 듯 싶은데, 부모 입장에서선 하지 마라 소리부터 하게 되네요.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스마트폰 사용이나 게임에 대해서는 부모가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화가 나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이 아이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당장 무엇인가 할 수 없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부모 자신의 무기력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모들은 자녀의 스마트폰 또는 게임 사용 문제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맞벌이 또는 가정 문제 등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환경에서 활발하게 부모와 의사소통 하는 어린이는 미디어와 디지털 기기에 과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 시간을 정량적으로 체크하기보다 사용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각이나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사용하고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시간이 남아 한 두 시간 게임이나 유튜브에 더 몰입한다고 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며 아이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독서나 운동, 여행이나 산책과 같은 언플러그드(Unplugged)한 감각적 활동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자극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현명한 부모입니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원 부족, 중장기적 로드맵 필요

교육 현장에선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하는 연구나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 등을 이야기해주세요.

최근 교육 현장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관심을 갖는 교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과에서도 미디어 문해교육 관련 내용 요소가 대폭 늘어나는 등 이전보다 많은 면에서 변화가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생성형 인공지능 등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술적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교육 현장에서도 관련된 교육 내용과 방법이 빠르게 차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기술과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원은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만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에 반해 정작 기기를 이용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접할 학생들의 중요한 기초 소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업에는 그 1%도 투입되지 않으니 말입니다.

소양과 관련된 중요한 교육일수록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법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교육의 문제를 경제의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와 같은 당면한 교육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인 교육 로드맵을 세워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디지털페어런팅 중요해져, 학부모 대상 교육 필요해

충북민언련은 지역언론을 주로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미디어리터러시를 주목하는 이시기에 새롭게 적용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있어서 충북민언련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충북민언련에서 NIE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논술 열풍도 있었고,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참여했습니다. 학부모는 학생, 교사와 함께 교육의 3주체이자 시민입니다. 학부모 대상 교육은 비영리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좋은 교육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에서는 디지털 페어런팅 등이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비판적 미디어 읽기와 창작,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학습 방법 지도하기 등의 내용을 교육 주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언론, 출판의 개념은 정보의 접근과 이용의 권리로 폭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충북민언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존의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한 운동뿐 아니라 시민이 다양한 미디어와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고 생산할 줄 아는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여했으면 합니다.

“거창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기자로서 일하는 것뿐이에요”



이 현 경 회원

충북민언련이 일곱 번째로 만난 회원은 옥천신문의 젊은 리더, 이현경 편집국장입니다. 10년 차 기자이자 3년 차 국장인 이현경 회원님은 매주 옥천 주민들께 전해야 하는 소식을 다 전하는 것이 기자로서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하는데요. 이현경 회원님은 치열하게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언론을 감시하고 기사를 비판하는 '보는 사람'의 중요성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늘 언론과 충북민언련이 서로의 생존을 함께 고민하고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간 옥천신문에 대해 이것저것 묻느라 정작 '기자 이현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원인터뷰를 핑계로 옥천을 찾아 이현경 회원님께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했습니다.

그저 기자로서 일할 뿐

옥천신문은 지역언론의 희망, 혹은 모범답안으로 꼽혀요. 언론이지만 동시에 지역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많은데 그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저는 그냥 언론이 해야 할 일을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깥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 운동하듯 하지 않아요.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그냥 저널리스트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늘 생각 하거든요. 어느 순간에도 가장 저널리스트다운 판단과 가치 판단을 하자는 게 저의 직업관이자 직업 윤리예요. 바깥에서 그렇게 말해주실 때마다 저는 기자로서 노력하는 중이라고 이야기하지, 뛰어들어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감히 로컬 운동을 하고 있다, 노동 운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희는 진짜 저널리스트로서 합리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뿐인데 그렇게 평가해주시는 게 황송하고요.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기자나 언론의 수준, 윤리의식 같은 것들에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니까, 옥천신문처럼 저널리즘에 부합하는 기사를 쓰고 운

영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투쟁이나 운동처럼 보이는 거 같네요

맞아요. 옥천신문이 내년에 35주년인데 그런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건 가장 언론스러웠기 때문이라고 봐요. 저희가 완전히 주체로서 행동했다면 저는 중간에 위기가 크게 오거나 문을 닫았을 지도 모를 여러 변곡점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가장 언론스러웠기 때문에 35년간 옥천신문이 버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주문해요. 가장 저널리스트다운면 된다고. 무슨 운동가처럼, 투쟁처럼 하는 거 요구하지도 않고 그걸 지역주민들이 우리에게 바라지도 않는다고요. 지역에 좋은 운동가들은 있지만 언론은 없거든요. 주민들이 말하길 운동가나 활동가는 지역에서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데 기사를 키우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 그 역할만 해' 하시는 거죠.

되게 건조하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정말로 돈 받고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회사가 제게 임금을 주면서 '넌 이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받은 만큼 일해야 해'라고 하면 저는 그걸 하는 거죠. 거창하게 내가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기자라는 직업이 열심히 하고자 하면 내가 받은 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을 감수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물건이 아니니까요. 기사 쓰는 데 오랜 시간 매달리는 이유는 기사에 내 이야기가 아니라 타인의 삶이 담기잖아요? 내 이야기는 한 줄도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써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열과 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나에 대해 쓰는 글이면 단어 하나 잘

못 선택해도 불이익을 내가 감수하면 되는 건데, 남의 인생에 어찌 뒀든 관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돈 받은 만큼만 시간을 쓰겠어요. 어떤 피해가 돌아갈 줄 알고요.

저는 그래서 이 기사가 나갔을 때 돌아올 파장 같은 것들도 사전에 설명해 드려요. 제보자들은 거의 피해자의 위치거든요. 저는 기자로서 감당할 자신이 있는데, 당신은 감당하실 수 있겠느냐. 지역사회가 좁아서 아무리 익명으로 나가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래도 괜찮겠느냐고요. 곰곰이 생각해보시라 하죠.

피 말리게 막고 싶었던 것

취재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장면이 있나요?

좀 웃긴데. ‘내가 진짜 피 말라가면서 기사 쓴다’라고 그냥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진짜 피가 부족해서 쓰러졌던 거예요. 우리 옥천에서는 조합 아파트가 처음 시도됐는데 조합형의 성공 사례가 거의 없는데도 저렴하게 분양받는다는 것 때문에 모집 초창기에 지역 주민들이 너도 나도 가입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업자를 만나봤는데 돈 벌려는 목적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기사를 계속 쓰는데 자고 일어나면 조합원들이 불어나 있었어요.

‘내가 기사를 조금이라도 더 잘 쓰면 주민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텐데’, ‘내가 못 막아서 전부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스트레스가 심했죠. 업자들은 저희를 자꾸 만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황민호 대표랑

업자를 만났고 맥주가 오갔는데 정말 참을 수 없이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 없으니까 이를 악물고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걸어가다 그냥 쓰러졌어요. 머리부터 팍 바닥에 부딪혔는데 우스운 게 그 충격이 오니까 잠깐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기어 가서 누워있었죠.

큰일 났다 싶었어요. 소문날까 봐서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쓰러졌다고 소문나는 게 나올까, 취재하다가 쓰러졌다고 소문나는 게 덜 창피할까 이런 거요. 그리고 멀쩡한 척 다시 자리로 들어가서 중요한 전화 받다가 늦었다고 했어요. 그때 민호 선배(황민호 대표)랑 같이 있었는데 그날 일로 선배가 기자들한테 엄청 혼났죠. '안색이 이렇게 안 좋은데 술자리를 데려갔네', '건강도 안 좋은 애 술을 먹었네' 하면서요.

내 기사도 평가 받아야

언론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민운동이 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올해 옥천 언론문화제 때 시민상 수상한 친구들이 옥천신문 비평 활동을 하는 옥천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저희가 그 친구들한테 단순히 신문읽기 교육을 한 게 아니라 미디어 비평 교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은 아웃풋이 돌아와서 굉장히 감사하고 평가 받는 입장에서 무섭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대로 된 미디어 비평이 없으면 언론사들이 뭘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독자가 미디어 비평을 올바르게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조선일보는 반민족 신문에 친일파고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조선일보에 무슨 기사가 어떻게 해서 잘못됐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도 똑같이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사가 어떤 것 때문에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요새는 나랑 똑같은 생각이어야만 잘 쓴 기사가 나머지는 다 가짜뉴스라고 얘기해요. 그건 비평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뉴스를 쓰려고 노력해도 이런 양상은 안 고쳐진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답은 미디어 비평밖에 없어요.

같은 생각이예요. 무조건 나쁜 언론, 무조건 좋은 언론은 없어요. '우리 편이라 좋은 언론'이 아니라 정확하게 비판받고 칭찬받아야 해요.

맞아요. 기자들은 꼭 평가받아야 해요. 평가받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다고 후배들한테 얘기하지만, 저도 신문이 나간 직후인 금요일 오전만 되면 여전히 무섭고 가슴 떨려요. 보통 신문 받자마자 전화 걸 때는 큰 문제가 있거나 강력한 항의 전화일 때가 많거든요. 덜덜 떨면서 딱 받았는데 황민호 선배가 "어 그래 현경아 고생했고"하면서 별거 아닌 거 물어보고 그러면 화가 확 나서 "선배님, 제발 금요일 오전에 전화하지 마요!" 소리쳐요.

사실 충북민언련 재정 상황이 많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언론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같이 걸어오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충북민언련을 포함한 언론 주체들과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 중이에요. 올해 옥천 언론문화제도 그런 생각으로 계획수 활동가를 기사 공모전 심사위원으로 초청하고 제보자와 옥천고 비평단, 언론인 지망생들도 초대할 거고요. 이번에 충북민언련 좋은 콘텐츠 포럼도 정말 좋았어요. 주민들이 그냥 보고 이해 안 가도 넘겨 왔던 걸, 직접 언론인들 입을 통해 제작 의도나 과정을 들을 수 있었잖아요. 같은 언론계에 있으면서도 지역에 좋은 보도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싶었네요. 만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충북민언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존의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한 운동 뿐 아니라 시민들이 다양한 미디어와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고 생산할 줄 아는 미디어리터러시를 기를 수 있도록 기여했으면 합니다.

돌멩이 하나로도 물길은 달라진다, 충북민언련 역할 필요해



안 건 수 회원

안건수 소장님은 지난 2004년부터 이주민노동자인권센터를 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늘 현장을 지키며 이주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를 맡아 굵은일에 앞장서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북민언련이 꼭 필요한 단체라서 20년 동안 후원하고 있다는 안건수 소장님을 만나 충북민언련이 해야 할 일과 지역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전망을

당신의 지지로 길을 내다, 회원인터뷰

들어보았습니다.

이주민 행복 위해서라면

대표님은 언제부터 활동하셨어요?

충북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1년 반을 일하다가 2004년 11월 16일 날 이주민 센터를 만들었어요. 처음엔 사무국장으로 일하다 대표를 맡아 이제까지 일하고 있죠.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2014년부터 맡은 것 같네요.

대표님은 예전부터 단체들에 연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많이 하셨죠. 그래서 기자회견같이 일 있을 때마다 꼭 참석하고 계시잖아요. 연대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려운 사안에 나서서 발언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 않나요?

연대회의가 대부분 약자들이 모여서 서로에 대한 연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잖아요. 연대회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기자회견 등에 나가려고 하고, 연대사나 규탄사나 발언을 해달라고 하면 준비를 하려고 해요.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기사들도 미리 보고 관련 자료들도 보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구상을 하고 참석하죠.

공부해가면서라도 꼭 하려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주민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여기 선주민들도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이나 장애인들이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그 속에 함께 사는 이주민들도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론은 이주민 이슈에 관심이 없다

평소 지역언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언론에 맞힌 게 많죠. 재작년 충북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주민과 관련한 문제 제기했을 때 한 언론사 기자가 대안없이 문제 제기만 한다고 충북대 병원 말만 듣고 기사를 썼어요. 사실 시민단체는 문제 제기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대안은 관련 기관들이 세워야 하는 거고 그리고 당시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잘 살펴 보지도 않고 병원 편만 들어 기사를 쓰더라고요.

언론이 이주민 관련 이슈를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어려워해요. 이야기를 한참 해주면 네 공부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서 다시 오지 않더라고요. 유일하게 공부해서 보도한 기자가 한 명 있어요. 지금은 미국에 가 있는 황상호 전 CJB 기자예요. 교도소 외국인 보호소 폭행 문제를 제대로 취재해 보도해 기자상까지 받았죠.

활동가들이 오래 활동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해

연대회의 상임대표도 말고 계시니 더더욱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거 같아요.

위기의식을 많이 느껴요.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제보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시민사회단체는 뭐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렇죠. 예전보다 싸움도 잘 못 하고 현안 대응도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지역에선 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이 가장 큰 조직인데 여기가 이슈가 딱딱 터지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치고 가고 싸움을 제대로 걸고 마무리를 제대로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기도 해요. 다른 단체는 싸움을 거의 안 하니까 더 문제고….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들도 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정부 보조금은 일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주는 데 그쳐야지 보조금 줬다고 다른 걸 못하게 눈치를 주고 그러면 그게 열린 정부라고 할 수 있나? 단체들도 보조금을 받든 안 받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입 다물고 있는 단체는 나는 시민사회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문 닫아야죠. 시민사회단체도 관변단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은데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바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청주경실련 사태가 여러 면에서 경종을 울렸습니다. 위계적인 조직 문화라던지, 청년활동가들의 대우 문제라던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지점

들이 분명히 있어요.

경실련처럼 수직적인 관계를 만드는 구조는 이제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 가야 발전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적인 방법들을 자꾸 찾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하는 건지 고민도 많이 해요.

후배 활동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내가 뭐 특별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뭘 요청을 하기보다는 민주적인 운영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입 활동가들이 오래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10년 20년을 해야 그 속의 전문가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몇 년 하다가 금방 그만두지 말고 오래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많아졌으면 하죠. 그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래 하려면 후원자도 많아야죠.

맞아요. 우리 사회가 후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고 정치인들만 세금 공제해주는 게 아니고 시민사회 활동도 해주면 100% 다 세금 공제해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관심도 갖게 되고 후원도 더 많이 하게 될 텐데... 인프라 지원도 해주면 좋겠어요. 공간이라든지, 이블레멘 CMS 처리비용 같은 것도 연대회의 소속 단체들끼리 모여서 비용을 줄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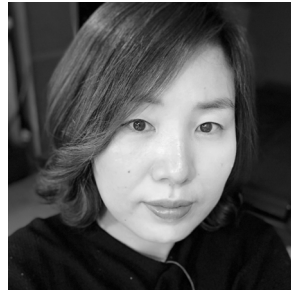
당신의 지지로 길을 내다, 회원인터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충북민언련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충북민언련이 있어서 그나마 언론들이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 눈치는 안 보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보는 척하지만 볼 수밖에 없어요. 충북민언련이 감시해야 기레기들이 그나마 정신 차리지 않겠나요. 충북민언련은 작은 돌맹이 하나라고 생각해요. 큰 흐름은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돌 하나 올려놓으면 달라지죠. 돌이 버터주면 물이 돌면서 너울지않아요. 정화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 하길 바라요.

지역주민 권리를 지켜내려면 이번엔 달라야 한다



이수희 충북민언련 대표

그렇게 많은 비가 쏟아진 건 청주에 살면서 처음이었다. SNS에 올라온 소식들이 심상치 않아 시간마다 뉴스특보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지금 내가 사는 지역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뉴스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충북지역 곳곳에서 홍수 피해를 전하는 기자들 모습에 고마움마저 느꼈다. 그러나 감동할 때가 아니었다. 피해가 너

무나 컸다.

오송지하차도 참사로 청주시민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워낙 피해가 큰 탓인지 모든 언론의 관심이 쏠렸다. 언론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음을 조목조목 따져 보여주었다. 인재가 아니라 관재(官災)라는 언론의 비판도 쏟아졌지만 지금까지도 경찰, 청주시, 충북도 모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이다. 그 누구도 잘못했다고, 책임지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외면했던 김영환 지사는 “내가 현장에 가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말로 공분을 샀다. 김 지사는 유기족을 만나 사과의 뜻을 밝히긴 했지만, 유기족의 분향소 연장 운영 요구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분향소는 도청에서 청주시도지재생허브센터로 옮겨졌다. 자신의 취임 일주년을 기념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내외 사진을 충북도청 내에 걸어 빈축을 샀던 김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묻게 만드는 분향소를 충북도청에 오래 두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다.

김영환 지사의 여러 기막힌 행보 탓에 상대적으로 가려진 이범석 청주시장은 아예 카메라 앞에서 고개조차 숙이지 않았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서면으로 사과했다. 청주시민 14명이 희생됐는데 서면 사과라니...! 형식적으로나마 사과를 했으니 그만이라고 생각한 건가? 이들의 여처구니없는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사고 수습을 핑계로 국회 출석을 미뤘던 두 단체장은 소속 당인 국민의힘 덕을 톡톡히 봤다. 국회행정안전위

원회는 잼버리 대회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핑계 삼아 부러 파행을 선택했다.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선 안 된다.

다행히(?) 오송지하차도 참사 사건은 언론의 보도로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았고 명백한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인지 지역언론들도 이전과는 다른 보도 태도를 보였다. 자치단체장을 일방적으로 감싸거나 그러진 않았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도 많았다. 보도자료 받아쓰기만 하던 일부 매체들도 민주당이나 시민단체가 내놓은 김영환 지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따옴표로 묶어 전하기도 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사건은 지역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지역언론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줬다. 사건의 원인을 살펴보고 책임을 따져 묻는 보도들을 지켜보면서 지역 언론이 지역주민의 권리를 지켜 내는 최소한의 보루 역할을 한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 언론이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 지역언론이 선택한 침묵(에도 이유가 있겠지만)의 대가로 의혹들은 쉽게 사그라들고 자치단체장들은 지역주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이번엔 좀 달랐으면 한다.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는 모습을 보고 싶다.

땡윤 뉴스를 보고 싶지 않다



선지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장악을 지휘했던 이동관 씨가 돌아왔다. 이동관 씨는 출근길 인터뷰에서 “언론의 자유는 보장한다. 다만 공산당 기관지는 언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위 종북과 같은 낡은 이념 논리를 앞세워 언론을 손보겠다는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언론도 24시간 우리 정부 욕

만 한다”며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역할을 부정했다. 이쯤 되면 ‘땡윤 뉴스’를 볼 날도 멀지 않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념 전쟁에 나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벗어나는 모든 주장과 논리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상징과 같은 홍범도의 동상을 철거하려고 한다. 사회 곳곳에 공산주의 세력이 잠입해 있다며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가진 모든 세력과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결기를 드러냈다. 심지어 국정원은 ‘북한이 국내 반정부세력에 오염수 반대 활동을 지령’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반대 여론을 색깔론으로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보수언론은 앞다퉈 이를 보도하며 정부의 이념 전쟁에 불을 지르고 있다.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이 사람을 죽이고, 바다와 산을 죽이고, 생태계 전체를 파괴하고 있는데도 진실은 정부의 이념 공세에 은폐되고 있다.

정부가 이념 공세를 펼치는 동안 민생은 추락하고 있다. 치솟은 물가로 국민의 허리가 휘는데 가계 소득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곳곳에서 이 대로는 살 수 없다고 아우성치는데 정부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정부에게 언론과 방송이 장악된다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민생에 미래가 있을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상식이다.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는다. 재벌 대기업들은 경제신문사를 설립해 자본의 논리를 설파하고, 자본이 장악한 종편 채널이 즐비하다.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

론을 찾는 게 더 어려운 한국 사회다. 이제 정부까지 나서서 다른 의견을 가진 세력과 시민에게 재갈을 채우고 언론을 국정홍보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 민주주의가 끝도 없이 퇴행할 위기다. 이에 맞설 힘은 어디에서 모을 수 있을까?

수십 년간 반복돼온 국가권력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싸웠던 언론노동자들은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고 있다. 이제 “공영방송은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왔다”며 언론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방통위원장과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연대가 절실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자본과 권력에 의해 작동되는 언론 시스템을 넘어 시민의 눈과 귀가 되는 언론의 재구성이다.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과 호흡하며 민주주의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릴 풀뿌리 언론이다. 여기에 제도 언론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다양한 미디어도 필요하다. 이 힘을 모아야 언론을 장악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세력에 맞설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언론 운동이 필요하다.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는 일, 시민의 눈으로 언론을 감시하는 일,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재생산되지 않도록 차별과 배제 속에서 뿔을 잃어버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 시민의 곁에서 지역 언론이 커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 시민이 참여하고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하는 일 등 언론 운동은 할 일이 너무 많다. 특히 매서운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언론 운동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 소금과도 같은 역할

을 할 것이다. 충북민언련이 소중한 이유다. 충북민언련의 분투를 기대한다.

풀뿌리언론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황민호 옥천신문 대표

‘군청 앞에서 식발 시위를 해도 뉴스 한 줄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인근 지역신문까지 제보가 올까? 수십 번의 제보에도 좀처럼 행정구역을 넘어서려 하지 않는 습 때문에 멍청하고 망설이며 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제호에 지역명이 딱 하니 박혀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취재에는 나름 합당한 이유가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웃의 어려움

에 언제까지 모른 척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흔히 언론판에서 이상적인 모델로 먹히는 ‘옥천신문’이 타지역에서 자기복제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안타까워하며 재생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떤 다듬어진 매뉴얼과 축적된 시스템으로 타지역의 풀뿌리 언론 창간을 적극 도와줄 수 있다면. 이런 생각으로 2년 전 코로나19 시작되기 전 인근 영동으로 자청해 무료 강연을 다녔고 풀뿌리 언론을 만들려고 주체가 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됐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걸 놓으면서 삼시간에 의기충천했던 마음들은 이내 흩어졌다.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여전히 제보가 행정구역을 넘어 지속적으로 월경을 시도했고, 그런 제보를 묵혀둘 수만은 없었다. 옥천의 가장 변방 청산면에서 지난해 면 지역 최초 마을 주간신문을 만들면서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하기 시작했고 생활권인 인근 영동과 보은의 소식까지 매만지기 시작했다. 바운더리가 커지다 보니 만날 사람과 처리해야 할 민원이 연결과 집중되는 것이 어려웠다. 이미 보은 지역에는 두 개의 지역 주간 신문이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고, 그 필요와 쓸모에 가장 크게 부응한 영동을 중심으로 한 소식을 4개월 전부터 다루기 시작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듯이 민주주의와 공공성에 목말랐던 주민들이 천천히 신문을 찾았다. 변방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꼬가, 경제에서 느끼는 다양성의 문화가, 제대로 된 풀뿌리 언론이 없는 영동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옥천신문은 또 하나의 복제된 풀뿌리 주간신문을 과감히 시작한다. ‘주간 영동’, 10월부터 불리게 될 제호이다. 이제 옥천신문만을 언급하지 않도록, 옥천신문의 34년 된 축적된 신문 제작기술과

저널리즘에 대한 태도를 짧은 시기에 빠르게 이식할 예정이다. 위기이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한 달 한 달이 늘 고비이지만, 이웃 영동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옥천처럼 제대로 된 풀뿌리 언론을 하나 만들어보기로 결의를 한 것이다. 흔히 지방일간지 출신들이 지역에서 창간하면 지자체를 몇 개씩 끼고 신문을 만든다. 지자체 광고를 염두해 둔 포석이다. 하지만 풀뿌리 언론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지자체 광고보다 밀착된 보도로 구독자에 집착한다. 주민 하나하나의 민원과 제보가 소중하고, 그것이 지역의 기록이며 구독의 연장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옥천신문이 34년 전 구독 한 부로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 영동에서 구독 한 부로 시작하고 있다. 풀뿌리 언론은 34년 역사의 옥천신문도 여전히 힘든데, 새로 시작하는 풀뿌리 언론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도 알음알음 지역에서 구독을 소개해주고, 노동조합에서 후원해주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제보나 민원, 후원과 연대를 꾸준히 해주는 것에 감읍할 따름이다.

나는 바라고 있다. 이게 제발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를, 영동에서 시작된 새로운 풀뿌리 언론의 실험이 제발 활착하여 뿌리내리고 가지를 뻗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그래서 사이비 언론만 출창 난립하는 지역마다 이기운을 전하고, 이 씨앗을 심어주고 싶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간간이 잇을 만하면 열리는 선거와 집회에서만 확인하는 판타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민주주의는 일상이고 살아야 한다. 숨 쉬는 공기여야 하고, 밥과 물이어야 한다.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오랫동안 배굼으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물을 못 마시면 안 되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일본일초 살아가는 데 간절하게 필요한 요소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권력과 자본을 견제, 감시, 비판하며 끊임없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

하는 풀뿌리 언론은 반드시 필요하다. 옥천신문이 지역을 넘어, 경계를 넘어, 건강한 풀뿌리 언론을 만드는 선봉에 설 것이다. 깃발을 들겠다. 120년 전 제2의 동학농민혁명처럼 지역마다 창궐하는 부패와 부조리를 소거하고, 새로운 풀뿌리 공론장을 만들려는 지역의 민초들은 같이 힘을 모아 달라. 지역마다 건강한 공론장을 재건하는 원탁의 기자단을 모집하며 하나 하나 도장 깨기 하듯 시작하고 싶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내면,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 풀뿌리 언론은 결코 자본과 권력이 만들 수 없으며 지역 시민사회만이 만들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이어야 한다. 돈과 힘에 의해 말과 글이 왜곡되면 그 지역은 이미 연옥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땅바닥에서 솟구쳐 나오는 말과 글을 지키는 일, 우리 모두 일상에서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옥천신문이 늘 함께할 것이다.

우리의 '삶'을 말하는 지역 언론이 필요하다



유진영 노동당 충북도당 사회운동위원장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하는 일이 있다. 포털 검색창을 열고 '충북', '충북 여성', '충북 인권', '충북 노동', '충북 기후'라는 검색어를 넣어본다. 지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복사_붙여넣기 한 듯 똑같은 보도자료 기사들 속에서 지역 현안을 파악하는 것은 시간이 적게 드는 일은 아니다. 대부분 기사는 도지사와 시장의 말 한마디, 지역 유지단체의 활동

하나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일이 있는지 지역 뉴스나 기사를 본다고 알 수 없다. 지역의 대부분 언론사가 자본과 권력에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정도가 심하다. 뉴스 클리핑을 할 때마다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올해 초중반 무렵부터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강박적으로 언론에 집착했다. 일하면서 시사 라디오를 꼬박꼬박 들었다.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찾아보고, 유튜브까지 찾아 들었다. 그러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언론을 보고 싶지 않았다. 단식일수, 시간 단위로 이재명이 누워있는지 앉아있는지까지 보도하는 언론을 보면서 내가 쫓아가려고 했던 언론은 무엇일까. 허망했다. 아는 사실이었지만 기가 찼다. 언론에는 우리가 없었다. 우리의 삶, 투쟁과 요구는 포털에서 검색하고 찾아야 보일 뿐이었다.

얼마 전 충북민언련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역언론의 새 판을 만들다 - 좋은 콘텐츠·혁신 사례 공유 포럼'이 진행됐다. 옥천신문 황민호 대표는 포럼이 열리기 전날(9.2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며 옥천군청을 점거하고 농성을 진행했지만, 포털에 옥천을 검색하면 '서화천에 발견된 포탄' 뉴스뿐이었지 아무것도 보도되지 않았다며 지역언론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성토했다. 이렇게 보도되지 못한 것들이 수없이 많지만, 발로 뛰는 보도가 없다면 그저 흘러가 버릴 뿐이다. 우리의 삶과 연결된 중요한 사건들이지만.

이런 척박한 환경이지만 대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있다. 주민들의 목

소리를 담아내고 자본과 권력에 굴하지 않는 지역 언론인들이 있고, 기자들이 있다. 충북민언련 20주년 기념포럼에서는 탐사 보도로 언론에서 주류로 다루지 않는 주체들의 이슈에 집중하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밀접하게 보도했던 지역 기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런 기자와 언론사가 많아져서 포럼이 매년 진행되면 좋겠다.

시민단체로서 충북민언련의 활동들도 있다. 꾸준히 나오고 있는 지역언론 모니터링과 매일 뉴스를 모니터링해서 지역 이슈를 훑어주는 TRAP은 지역뉴스를 찾아보기 난망한 나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다.

지위진 이들의 목소리를 담았던 도전도 있었다. <다른시선>과 <떼다>는 충북민언련이 직접 독립 매체로서 시민들의 언론을 만들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널리 퍼트렸다. <다른시선>과 <떼다>를 지역사회에서 만난 우리는 이제 알아버렸다. 우리를 대변하는 언론이란 얼마나 짜릿하고 멋진 일인지.

지역언론의 변화를 기대하며 충북민언련은 지난 20년간 달려왔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미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멈추지 않았던 이 꾸준함과 새로운 도전이 변화를 꼭 만들어 낼 것이라고 믿는다. 그 포부가 '언론운동의 판을 뒤집다'로 표현된 것 아닐까? 뒤집힌 그 판은 '나의 목소리가 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말해주는' 언론이 만연한 지역언론 판이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끈질긴 지구력을 찬양하며



박소영 충청리뷰 편집부국장

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 충청리뷰에 입사했다. 그리고 나는 충청리뷰를 22년째 다니고 있다. 그 사이 두 아이를 낳았고, 첫째 아이를 낳고 100일 쉬고 나왔고 둘째 아이는 세상 분위기가 바뀌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다. 회사를 다니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기자 일은 늘 반복된 일 같 으면서도 매일 다른 일들이 펼쳐졌다. 호기심이 많고 반복되는 일을 심심

하게 여기는 나 같은 사람은 기자라는 직업이 지루할 틈이 없어 좋았다. 그렇게 1년만 다니고 그만두자는 생각은 바뀌어 22년을 채웠다. 주간지 기자인 나는 매주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숙제하듯 살았던 것 같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어김없이 책상에 앉아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한 글자 한 글자 입력했다. 이 일을 통해 나는 단련됐으며 성장했다. 수행이기도 했다. 내 눈앞에 폭탄이 떨어져도 기사를 써야 한다는 걸 배웠으니까. 독자와의 약속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웠다.

기자 일의 좋은 점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생각을 읽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한 개인일지라도 확장되면 지역이었고 세상이고 우주였다.

충북민언련을 처음 만난 것도 기사를 시작하고 몇 해 지나지 않아서였다. 지나고 나면 긴 세월인데 돌아보면 참 짧다. 충청리뷰 기자로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던 것처럼 충북민언련도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을 것이다. 때로는 가까이서 지켜보았지만 사실 멀리서 볼 때가 더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부채의식이 있다.

지역신문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를 다루는 충북민언련 조직은 얼마나 더 힘들겠는가. 기자 일이 좋으면서 이 일이 계속 생존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때도 있다. 지금처럼 지역의 '관계'와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신문이 무슨 경쟁력이 있을까 싶고, 구매자들이 원하는 건 과연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종이신문이 유튜브에 쇼츠에 또 다른 새로운 플

랫폼에 압도당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다.

내 인생의 팔 할을 기자로 살았고,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지는 잘 모르겠다. 긴 세월 동안 남들의 즐겁고 슬프고 아프고 속상하고 억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공감하고 의심하며 확인하는 수많은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설레지 않는 순간이 올 것이고, 더 이상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오면 나는 펜을 놓을 것이다. 그리고 나면 나 자신에게 천착하고 싶다. 어쨌든 조직보다는 개인이 삶이 더 행복하면 좋겠다. 그러려면 역설적으로 조직이 튼튼해야 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고 지지를 받아야 한다. 가끔씩 내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다. 거대 담론부터 미시 담론까지. 매일 끊임없이 토론하고 고민하는 데 답이 안 보인다. 나는 오늘 무엇에 저항하고 있으며,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충북민언련은 지역 언론사들을 모니터링하고 발표해왔다. 애정과 애증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쨌든 난파선과 같은 지역언론과 시민사회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노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순간도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노를 놓지 않는다면 어딘가에 도달해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



김현정 충북대 심리학과 박사과정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일 년 경력의 초짜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제시하게 되는 컨설팅 의견은 인구의 절반은 여성인데 지자체의 각종 사업에서 여성의 수혜율이 적으니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자는 거다. 작은 마을의 협의체부터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까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참여율은 더더욱 낮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내면 응당 따라오는 대

답이 있다. “적절한 사람이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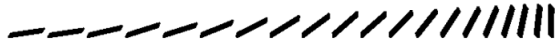
우리는 그 ‘적절한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지역에서 해당 분야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은 일면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연령대 특정 성별에 사람들이 그 자리를 독차지한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와 의견은 자연스럽게 배제된다. 청주시만 해도 시 산하 위원회 여성위원의 수는 34.5%에 불과하고, 특히 의결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0명인 위원회도 전체의 11%에 달한다. 여기에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언론은 지역에서 과소 대표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적절한 사람’ 또한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작년 충북민언련에서 발간한 ‘다른시선’과 ‘떼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다. ‘다른시선’은 지역 개발 이슈, 여성 혐오가 판치던 지방 선거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기후정의, 동물권, 청소년 인권 등 많은 이슈들을 다루었다. ‘떼다’는 농민 여성, 청년 여성, 페미니즘 정치 등 지금껏 보이지 않았던 여성들에게 주목했다. 보이지 않아 드러나지 않았을 뿐 여성은 어디에나 있다. 비단 여성 뿐만 아니라 권력의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청년, 노인, 장애인, 이주여성, 농민, 노동자들은 ‘적절한 사람’이 되기엔 너무 가시화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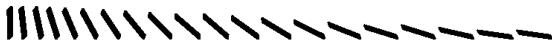
충북민언련은 지역언론모니터링과 미디어 교육을 통해 지역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준다는 점에서도 ‘적절한 사람’ 발굴하기에 기여하고 있다. 충북민언련이 20년을 넘어 30년, 40년 더 오래 우리 곁에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SECTION 3

걸어온 길



충북민언련 20년 주요 운동사를 정리했습니다



144 이재학 PD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154 지역민이 담긴 지방선거 보도를 위해, 지역언론 선거보도를
모니터링하다

161 충북민언련 10대 운동

173 충북민언련史

이재학 PD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CJB청주방송 부당해고 노동자 이재학 PD. 그가 CJB청주방송을 상대로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을 접하고 2019년 7월에야 故 이재학 PD를 만났다. 이재학 PD는 2018년 4월 동료 프리랜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강제 하차당했다. 이재학 PD는 청주방송 노동자임을 확인받고자 법정 투쟁에 나섰다. 이재학 PD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프리랜서라 불리는 노동자, 동료들을 위해서 재판에서 꼭 이겨 스스로 증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끝까지 싸울 거라는 그의 다짐은 2020년 1월 22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무너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게 없다... 억울해서 미치겠다...”는 마지막 유서를 남긴 채 이재학 PD는 2020년 2월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충북민언련은 2023년 2월13일 대전충청지역미디어 정책간담회가 열린 현장에서 일인시위를 하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 2020년 6월 17일 이두영 CJB청주방송 이사회 의장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규탄 기자회견



▲ 2020년 6월 29일 <이재학PD에게 편안한 밤을> 투쟁 문화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촉구했다. 이튿날인 2월 14일 이재학 PD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도 출범했다. 충북민언련을 비롯해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대책위에 참여했다. 충북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학PD사망사건은 사회적 타살이라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재학 PD는 죽음에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 2020년 5월 28일 청주방송 대주주인 이두영 씨는 민주노총 충북본부 조종현 본부장과 충북민언련 이수희 사무국장에게 각각 1억 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대책위원회가 일부 언론에 게재한 의견광고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었다. 명예훼손 소송은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분노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두영 회장과 CJB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가 연이었다. 마침내 6월 22일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재학 PD 죽음의 책임이 청주방송에 있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CJB청주방송은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충북대책위는 서울 대책위와 함께 진상조사 결과 수용을 요구하며 총력 투쟁에 나섰다.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합의가 번복되면서 충북대책위는 방송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 천막농성 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많은 분이 출근길 피켓시위, 점심시간 일인시위 등에 동참했다. 이재학PD사망사건 대책위는 피켓시위, 로비 연좌농성, 끝장 투쟁 문화제 등을 벌여가며 청주방송을 압박했다. 마침내 7월 28일 청주방송 사장은 공개 사과했고, 방송사 안에는 고인의 추모공간을 마련했고 명예 사원증도 수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청주방송은 또다시 합

의를 깨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때마다 대책위는 이재학 PD의 1주기를 앞두고 다시 청주방송 규탄 집회를 벌여야 했다. 2021년 5월 12일 이재학 PD가 소송을 제기한 2년 8개월 만에 이재학은 CJB청주방송 노동자라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재학PD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청주방송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 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2021년 6월 17일 해산을 결정했다.

이재학 PD는 방송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무늬만 프리랜서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외쳤다. 이재학 PD가 죽음으로 고발한 방송계의 수많은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되었다. CJB 청주방송만이 아니라 방송계의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에 이제 모두 나서야 한다. 충북민언련은 비뚤어진 방송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필요한 역할을 앞으로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CJB 이두영 의장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충북민언련 입장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재학PD사망사건 덮을 수 없다
이두영 CJB이사회 의장 지역민영방송 대주주 자격 없다

이두영 CJB 이사회 의장이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충북민언련) 이수희 사무국장과 민주노총 충북본부 조종현 본부장을 상대로 각각 1억원의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두영 의장은 CJB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10일 지역 주간신문 충청리뷰와 옥천신문과 인터넷 신문 충북인뉴스에 실은 의견광고 “방송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낳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입니다”에 대해 해당 광고가 허위 사실 이므로 이두영 의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두영 의장은 향후 허위 광고로 인해 원고의 인격과 명예가 더더욱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두영 의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경우 1건당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두영 의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한 광고 내용은 “정규직처럼 일하면

서 월 160만 원, 대주주 이두영이 방송 경영과 인사에 개입, 친인척에게 일감 몰아주며 방송 사유화, 노동자가 권리를 말하면 내쫓고 탄압, 법원 소송과정에서 진실 은폐, 이두영은 진상규명 방해 중단” 등이다. 충북대책위가 매체에 광고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지역과 전국 대책위 입장이며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들이다. 이두영 의장을 규탄하는 광고는 이미 지난 3월20일 전국 대책위 명의로 전국권 일간지 1면에도 실린 바 있다. 이두영 의장은 전국 대책위의 광고 내용이나 언론보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다가 지역 대책위가 발표한 광고에 대해서만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30일에 회장직을 퇴임했어도 이두영 의장은 여전히 CJB의 대주주이다. 이두영 의장은 이재학 PD 사망사건에 대해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명예훼손부터 주장하더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이두영 의장은 소장에서 자신이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충북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청주지방법원 시민사법 참여위원회 위원장, 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충북도지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며 명예를 강조했다. 이런 자리들은 이두영 의장이 CJB의 대주주로서 회장 지위를 가졌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지역민영방송의 대주주로서 자신의 명예만 탐하면 그만인가.

충북민언련은 이두영 의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은 이재학 PD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회피하기 위한 교활한 회책이며,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협박이자 선전포고라고 판단한다. 지역민영방송 대주주인 이두영 의장이 충북민언련 활동기를 겁박하는 자체가 언론인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방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사망 사건

증하는 것이며, 방송의 사유화로 지역언론의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일이다.

충북민언련은 이재학 PD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전국에 언론단체,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해나가겠다.

2020년 6월 16일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민언련 성명- CJB 이재학 PD 사망사건 합의에 부쳐

CJB청주방송은 ‘고 이재학 PD’ 합의안 철저하게 이행하고, 언론계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나서라

CJB청주방송(이하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합의안이 드디어 타결됐다. 이 PD가 목숨을 끊은 지 170일 만이다. 합의안에는 이재학 PD가 근로기준법상 청주방송 노동자로 인정된다는 내용과 함께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다. 입사 16년 만에 ‘죽음’으로 항거하고 나서야 청주방송 정규직 노동자가 된 이 PD는 세상에 없다. 그러나 그가 남긴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목소리는 합의안에 오롯이 담겼다.

합의안을 통해 청주방송은 노동자성이 확인된 비정규직 9명의 정규직화를 결정했다. 방송계 노동자들과 함께 용역회사를 통해 고용한 청소·경비 노동자 4명의 정규직 전환도 결정됐다. 진상조사보고서에 정규직화 대상

으로 적시된 작가 9명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방안과 직접고용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고, CG(컴퓨터그래픽)와 운전 등을 맡은 파견노동자 16명은 3개월 내 노사교섭으로 고용방안을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생애 후배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설움을 못 느끼길 바란다”는 이 PD의 마지막 소망이 이제야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전국 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는 언론계가 이번 합의에 그치지 않고, ‘제2의 이재학’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 PD는 14년간 현장과 편집실에서 밤낮을 새우며 정규직 노동자의 2~3배에 달하는 일을 했음에도 급여는 정규직 노동자의 60% 수준밖에 받지 못했다. 이런 비상식적인 노동은 CJB청주방송 한 곳이 아닌 언론계에 만연한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의 문제다. 이 PD가 외쳤던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CJB청주방송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하는 모든 언론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CJB청주방송이 합의안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이행하는 지 감시하는 일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CJB청주방송은 최종 합의안 채택을 눈앞에 두고도 수 차례 논의를 뒤엎고, 유족에게 “회사가 돈을 줄 테니 다른 건 문제 삼지 말라”며 문제 해결에 진정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PD의 유족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이성덕 CJB청주방송 대표와 협의를 진행했고, CJB청주방송의 진심을 믿고 합의안을 발표했다. CJB청주방송은 올해 8월과 10월, 2021년 1월, 2022년 1월, 2023년 1월까지 3년간 5번의 이행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성덕 대표가 “담보는 따로 없지만 신뢰해달라”고 공언한 만큼, CJB청주방송은

합의안 이행에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한다.

고 이재학 PD의 동생 이대로 씨는 합의안 발표 현장에서 “세상에서 제일 용기 있던 사람, 저희 형 이재학 PD를 기억해달라. 그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나쁜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를 세상에 알리려 했고, 동료들을 위해 싸우고 세상을 바꿔보고자 큰 용기를 냈다는 사실을, 본인 남은 인생을 모두 바쳤음을 꼭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전국 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는 고 이재학 PD와 그가 남긴 목소리를 끝까지 기억하겠다. 또한 이 PD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CJB청주방송이 약속한 합의 이행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주시하며,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

2020년 7월 24일

전국 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

지역민이 담긴 지방선거 보도를 위해, 지역언론 선거보도를 모니터링하다

충북민언련이 창립한 다음 해 2004년도는 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다. 충북민언련은 전국언론노조 충북지부와 함께 공동으로 지역신문과 방송의 국회의원 선거보도를 모니터했다. '2004충북총선보도감시단'을 결성해 선거보도를 모니터하고, 그 결과를 매주 발표해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2004충북총선보도감시단은 17대 총선 선거보도 모니터 결과를 엮어 백서를 발간했다. 충북민언련 실무자와 모니터 분과 회원 등을 중심으로 꾸려 활동했다. 충북민언련이 처음으로 지역언론을 모니터링한 결과는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선거보도 모니터 결과 언론은 정책보도를 외면하고, 유권자 책임론을 강조하면서도 유권자 운동에 대해서 형식적인 보도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다. 미디어 선거 시대를 맞아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과 후보 동정 중심 보도에서 벗어나 유권자가 바라는 의제

를 분석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



▲ 2010 6.2 지방선거보도 모니터단 발족기자회견 및 토론회 ©심규상

충북민언련은 선거 때마다 지역언론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하면서 바람직한 유권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역민언련과 공동으로 지방선거 보도 모니터단을 구성해 바람직한 선거보도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지방선거서 지역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 어떤 매체도 우리 지역 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거보도 모니터를 통해 지역언론의 가치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다.

특히 2010년 6.2 지방선거 모니터에서는 여론조사 보도를 중점적으로 모니터했다.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보도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보도는 부정적 선거보도 경향인 경마식 보도의 대표적 형태다. 심지어 2022년 대선 당시 <KBS충북>은 직접 제작한 12건의 뉴스 중

선거보도 모니터

9건을 여론조사 결과 전달에 썼다. 여론조사로 기자의 취재를 대신한 것이다. 언론이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도하는 것은 꾸준히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이다. 오차범위 내 접전도 ‘찬성’ 혹은 ‘반대’로 보도되어 여론을 확대해석하거나 왜곡하기도 하고, 의혹에 따라 변화하는 지지율을 시시각각으로 보여주며 정치권의 의혹 공방 언론플레이를 부추기기도 한다. 조사 방법이나 대상, 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여론조사의 맹점이다. 이런 이분법적 선거 여론조사 보도가 지역사회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모니터했다.

선거마다 반복되는 보도관행

선거보도를 모니터링할 때마다 반복하는 말들이 있다. ‘경마식 보도 하지 마세요’, ‘거대 양당 후보에만 치우친 보도 하지 마세요’,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이벤트 형 유세 보도하지 마세요’ 2018전국지방선거미디어감시연대는 선거보도감시준칙에 “보도해주세요”와 “보도하지 마세요”를 추가해 언론이 해야 하는 보도와 하지 말아야 하는 보도를 아예 명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굳어진 보도관행은 선거마다 반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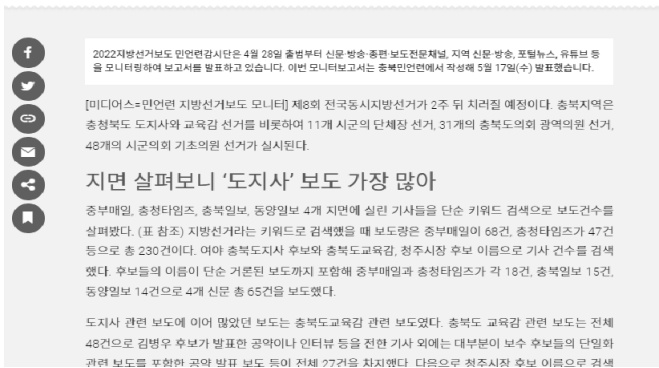
코로나19가 몰아쳤던 2020년에는 선거보도의 비중 자체가 낮아지기도 했다. 방송 3사의 선거보도 비중이 14.8%에 그쳤으며 단신으로만 보도되는 경우도 40.6%에 달했다. 당시 충북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도의원 재보궐 선거도 치러졌다. 그러나 도의원 재보궐 선거의 경우는 선거가 있는 지도 모를 정도로 언론보도가 없었다. 각 정당들의 공천 결과를 다루는

보도에만 열을 올리기도 했다. 공천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조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도에 등장한 정당도 거대 양당의 비중이 높았다. 이외에도 선거 때마다 ‘수성과 탈환’, ‘각축전’, ‘격전지’ 등의 전쟁용어가 사용됐다. 후보들의 함량 미달 발언이나 상대 후보를 헐뜯는 언사를 그대로 옮겨 네거티브 확산기 역할을 하는 것도 꾸준했다. 언론은 갈등을 필요 이상으로 부추기고 후보자 간의 대결을 강조해 유권자들의 정치 피로도를 높였다.

지방선거가 ‘대통령 대리전’이란 언론, 기획보도도 ‘재탕’

[2022 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총복 1차 모니터보고서

2022 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 업력 2022.05.17 20:48 | 수정 2022.05.17 23:16



▲ 2022 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총복 1차 모니터 보고서

2022년 6·1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3개월 뒤에 치러졌다. 이에 따라 네거티브 공방전을 주로 다루던 기존 선거 보도에 지방선거를 대선에 종속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더해졌다. 대부분의 언론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귀향길을 함께 한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의 SNS 사진을 보도

선거보도 모니터

했다. <충청타임즈>는 충북지방선거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현 대통령 간 대리전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헤드라인을 아예 <전현직 대통령 대리전 표심 어디로?>라고 뽑기도 했다. 지역언론부터 지방선거를 대선의 대리전으로 틀지은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선거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매번 똑같은 선거보도 속에서 충북민언련의 역할을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유권자를 위한 보도에 '주목'하라

유권자 중심의 보도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모형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 선거보도의 현실이다. 충북민언련은 유권자 중심의 보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기본적으로는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인지,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고 싶게끔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모니터하기로 했다. 단순한 후보동정, 경마식 보도, 비방전 중계보도는 결코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보도가 아니다. 또한 유권자 보도라고 하여 유권자 한두 명을 인터뷰하거나 정책만 쪽 나열해 놓는 보도도 유권자 중심의 보도는 아니다. 유권자 중심의 의제를 설정하고, 시민패널단을 구성하고, 정책검증단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선거보도에 있어서 유권자들에게 정말 이 기사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전국민언련에서는 바람직한 선거보도를 선정

했는데 <옥천신문>은 그중 하나였다. <옥천신문>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도 정책중심의 보도로 눈길을 끌었다. 당시에는 분야별로 주민들로부터 정책제안을 받아 이를 선거보도에 반영하고, 후보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정책 보도를 이끌었다. 당시 <옥천신문> 백정현 편집국장은 “지난 2006년과 올해는 또 달랐다. 더 이상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의지한 보도는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백국장은 직접 유권자들을 만나보니 4년 전의 제안들이 진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결과물들이 <좋은 정책이 좋은 옥천>이라는 기획시리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한 정책을 소개해주고 우수한 정책을 옥천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막막한 언론 현장인 것 같아도 이렇게 빛이 되어주는 언론인들은 존재했다. 선거보도 모니터링에서 비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유권자를 위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조명해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실제로 빛나는 보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2018 지방선거에서 <CJB청주방송>은 선거특별취재팀과 교수, 변호사, 청년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꾸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알리미에 공개된 도지사 후보와 시장군수, 교육감 후보들의 5대 공약을 집중 분석했다. 2022년엔 지방선거가 대선에 이어 치러지며 많은 언론이 지방선거를 대선의 대리전으로 여기기도 했으나, 그런 와중에도 빛나는 기사는 있었다. <충청타임즈>는 거대 양당이 대선에 집중하는 차원에서 지선 출마 예정자들의 선거 운동을 제한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가 지선 선거구 획정을 두 달 이상 미루는 상황을 연이어 보도했다. <중부매일>은 사설에서 지방선거가 실종되었음을 비판하며 “지방선거가 그 자체로 움직일

선거보도 모니터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MBC충북〉은 총 다섯 건의 기획 기사를 꾸려 청년정치가 필요한 이유를 살피고, 2030 청년들이 면접관이 되어 충북 도지사 후보를 직접 검증하도록 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단체장으로 선출된 이들이 청년들의 단체장으로도 적합한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한 〈MBC충북〉을 20주년 기념 포럼에 불러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다.

언론 환경이 변화하며 많은 이가 언론을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언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을 크게 좌지우지하기에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에 〈옥천신문〉 백정현 전 편집국장은 유권자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MBC충북〉의 이지현 기자는 소외된 이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갖게 하는 것이 언론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이들의 말처럼 많은 신문과 방송에서 유권자들이 ‘나’와 ‘우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공정한 선거보도를 통해 언론이 존재 이유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충북민언련 10대 운동

01 언론악법에 맞서 공영방송 지키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뒤흔들려는 시도는 무수히 많았다. 충북 민언련은 2003년 12월 공영방송지키기 충북연대를 결성해 정권의 권력장악 시도를 비판해왔으며,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에도 맞서 전국민언련과 함께 여론과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시키고, 보수적 여론의 독점을 초래한다며 반대 투쟁을 했다. 지난 2011년에는 충북도의 조중동매 종편에 주어지는 광고 예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 충북도가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다.



▲ 2017년 6월 22일 KBS 고대영·MBC 김장겸 사장 퇴진 요구 기자회견

충북민언론 10대 운동



▲ 2023년 8월 11일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 기자회견

공영방송 지키기는 곧 지역미디어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길이다. 충북민언련은 최근에도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일인시위 및 기자회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강제 해임 비판 기자회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반대 투쟁 등을 위해 전국언론노조 등과 연대하고 있다.

02 충청일보 바로 세우기

2004년 10월14일 충청일보 직장폐쇄를 기점으로 충북민언련을 중심으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민중단체들로 충청일보 바로세우기 범도민 대책위를 결성해 활동했다. 충청일보 사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까지 구성해 해결을 도모했으나,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노조원들

과 민중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도민주 운동이 추진되어 2005년 8월15일 새충청일보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충청일보 경영진 측에서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제호를 지키기 위해 편법 발행을 하기도 했으며, 범도민대책위 공동 대표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는 등 끝까지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비합리적인 처사를 보였다.



▲ 2004년 11월 9일 충청일보 바로세우기 범도민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송봉석

03 신문으로 위장한 반민족 범죄집단 조선일보 선언

2007년 3월 1일 88주년 삼일절을 맞아 충북민언련은 조선일보를 “신문으로 위장한 반민족 범죄집단”이라고 규정하는 역사적 선언을 했다. 조선일보의 친일행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현실을 직시하며

충북민언련 10대 운동

조선일보의 반민족 범죄행위를 다시 고발했다. 같은해 10월에는 조선일보 친일행각과 우리 사회 주요 사안에 대한 왜곡보도 사례를 묶은 책 <신문으로 위장한 범죄집단 조선일보>를 발행해 배포했다.



▲ 2007년 3월 1일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

04 지역신문 지원에 앞장서다

충북민언련은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지역민의 여론을 담아내는 건강한 지역언론이 있어야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2009년 4월 6일에는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공동으로 신문의 날을 맞아 지역언론을 지키겠다는 독자선언도 했다. 지역신문

을 지역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운동도 펼쳤다. 충북민언련은 지난 2010년 10월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역신문이 처한 현실과 바람직한 지원방법 등을 논의했다.



▲ 2011년 3월 9일 지역신문지원조례제정 추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중부매일

05 지역언론 개혁을 위해 목소리 내다

2005년 7월에는 충북도교육청 출입 기자들 촌지 수수 사건, 그해 10월 충주시청 일부 출입 기자들에게 추석 떡값이 전달된 사건 등에 대해 충북민언련은 성명을 발표하고 비판에 나섰다. 당시 기자들은 자정결의대회를 열었고, 충주시장은 시장직을 잃었다. 촌지 관행 외에도 지역언론사의 윤리 문제 등이 불거질 때마다 언론인의 윤리가 제대로 서야지 언론도 사회의 공익기능을 담당하는데 뗏뗏할 수 있다며, 윤리강령 등을 제정해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충북민언련 10대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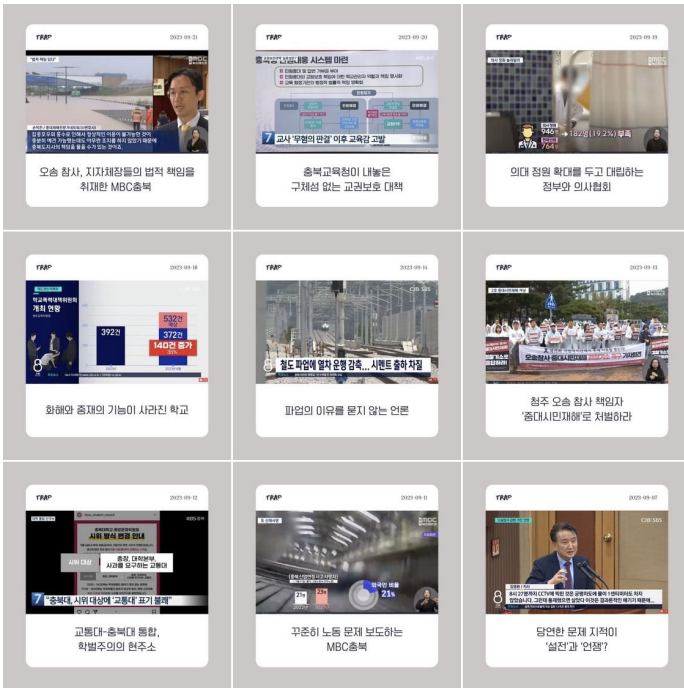
▲ 2007년 7월 2일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 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합리적인 예산 편성 기준 마련을 위한 지역민언련 공동기자회견

한편 충북민언련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충북지역 지자체의 언론홍보예산을 분석해 발표했다. 충북도를 비롯한 13개 시군 모두 별도의 홍보비 집행기준 없이 관행대로 언론 홍보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충북민언련은 지역민언련과 함께 홍보비 집행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등 정책적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홍보비 집행 기준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06 꾸준한 지역언론 모니터링

충북민언련은 2004년 충북총선보도감시단 결성을 시작으로 충북지역언론에 대한 본격적인 모니터링에 나섰다. 충북민언련은 각종 선거 때마다 지역언론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바람직한 유권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선거보도 모니터링만이 아니라 신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문제 등 전국적인 사안에 대한 기획모니터링 등도 실시하였다. 충북민언련은 지역

언론운동의 판을 뒤집다



▲ <TRAP> 인스타그램 @ccdm_trap

뉴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언론에 대한 관심을 높여 지역언론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9년까지 매일 아침 지역일간지 쑤아보기 <충북뉴스브리핑>을 발행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지상파 3사 대상 지난주 베스트 & 워스트 주간 모니터링 등을 발표했으며, 현재는 <TRAP>이라는 이름으로 지상파 3사 방송뉴스를 중심으로 데일리 모니터링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다.

07 언론학교부터 NIE,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까지

충북민언론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언론학교, 학부모를 위한 NIE교육,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글쓰기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만났다. 한국언론의 현실과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시민들이 지역미디어의 공공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충북민언론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자 노력하였다.



▲ 2007년 6월 29일 언론학교



▲ 2020년 6월 25일 언론학교

08 이재학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투쟁에 함께하다

CJB청주방송 이재학 PD는 2018년 4월 동료 프리랜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강제 하차당했다. 이후 법정투쟁을 벌이다 2020년 2월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재학PD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결성돼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였다. 충북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충북본부를 중심으로 충북대책위원회도 구성해 함께 활동했다. 이재학PD사망사건 대책위는 피켓시위, 로비 연좌 농성, 끝장투쟁 문화제 등을 벌여가며 청주방송을 압박했다. 마침내 2020년 7월 28일 청주방송 사장은 공개 사과했고, 방송사 안에는 고인의 추모공간을 마련했고 명예사원증도 수여했다. 2021년 5월 12일 이재학 PD가 소송을 제기한 2년 8개월 만에 이재학은 CJB청주방송 노동자라는 근로자지위학

충북민언련 10대 운동

인 소송 2심 판결이 내려졌다. 충북민언련은 이재학 PD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방송계의 비정규직 문제해결 등 구조적인 문제에 목소리를 냈다.



▲ 2021년 1월 27일 故 이재학 PD 추모주간 투쟁선포 기자회견

09 지방선거 특별판 페이지 <다른시선> 운영

충북민언련은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 민주노총 충북본부, 페미니스트 활동가들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특별페이지 <다른시선>을 운영했다. <다른시선>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의제들을 '다른시선'으로 바라보고자 기획했다. 6·1 충북 지방선거 특별페이지 <다른 시선>은 적·녹 보라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석해 정치와 연결하려는 시도

를 선보였다. <다른 시선>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한 공론장 소유 욕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른시선>은 매일 같이 칼럼을 발행했으며, 선거 이슈를 다른시선의 시각으로 취재해 보도했으며, '유권자가 묻는다'와 같은 기획 인터뷰해 보도했다. 기성 언론에서 양당 중심의 보도를 이어갔다면 다른 시선에선 진보정당 등 소수정당 후보들과 그들이 내세운 공약 소개도 충실히 했다.



▲ <다른시선> 편집국장 계획수, 발행인 이수희, 선지현, 장우정

10 여성의 목소리 <떼다>에 답다

충북민언련은 2022년 11월 '청주여성시민매거진 <떼다>'를 창간했다. 떼


충북민언론 10대 운동

다는 '첫발을 떼다', '여성이 입을 떼다', '차별의 꼬리표를 떼다'라는 모토로 지역 여성들이 발행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기반 시민 참여형 매체이다. 떼다를 통해 여성과 젠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러한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어 시야를 확장하고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청주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는 여성들의 취향, 고민, 지향이 드러났다. 1호는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총 4,000부가 인쇄됐다. 떼다는 지난해 1호에 이어 올해 2호를 발행했다.



▲ <떼다> 1호와 2호 표지

충북민언론 연혁



2023년	상시	지역언론 일간 모니터링 <TRAP> 운영 신문 읽기 소모임 <신문물> 운영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연대
	9월	2023 청암 송건호 언론문화제 참여 (09.11) 좋은 콘텐츠·혁신 사례 공유 포럼 <지역언론의 새 판을 만든다> 개최 (09.26)
	8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반대 투쟁
	6월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투쟁 MZ세대의 노동 - MZ세대가 만난 노동조합 참여 (06.26)
	4월-6월	우리문고와 함께 하는 마을 속 특색 프로그램 <성안골의 부활> 마을신문 만들기 교육 진행
2022년	상시	지역언론 일간 모니터링 <TRAP> 신문 읽기 소모임 <신문물> 운영

		이재학 PD 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11월		청주여성시민매거진 <떼다> 창간 (11.24) KBS청주 뉴스7 모니터링
9월		후원행사 <반짝이는 우리의 밤> 개최 (09.28)
7월		청주여성시민매거진 <떼다> 시민기자단 교육 1강) 청주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 김수정 젠더사회 문화연구소 이음 소장 2강) 젠더데스크가 이끈 변화 - 이정연 한겨레 젠더데스크 겸 젠더 팀장 3강) 공정 보도와 젠더 감수성 - 박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4강) 매력적인 기사 제목 뽑기 - 유수빈 경향신문 편집기자 5강) 신문 편집의 이해 - 유수빈 경향신문 편집기자 6강) 마을에서 가삿거리 찾기 - 박누리 월간옥이네 편집장 7강) 선택받는 보도사진 - 박누리 월간옥이네 편집장 8강) 청주에서 취재하기 - 박소영 충청리뷰 부편집장 9강) 기사쓰기 실습1 - 박소영 충청리뷰 부편집장 10강) 기사쓰기 실습2 - 박소영 충청리뷰 부편집장
4월-6월		2022 6·1 지방선거 특별페이지 <다른시선> 창간 및 운영
2월-5월		지역언론 선거보도 모니터링
2021년	상시	이재학 PD 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언론 모니터 발간

신문 읽기 소모임 <신문물> 운영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하반기)

11월

기획강좌 <언론은 노동자를 어떻게 지우고 있는가> 개최

- 1강) 노동자 지우는 한국 언론, 무엇이 문제인가
 - 탁종렬 노동인권저널리움센터 소장
 - 2강) 언론보도 변해야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 바꾼다
 - 강태선 세명대학교 산업안전보건과 교수
 - 3강) 여성, 청년, 방송 비정규직 - 방송작가가 바라보는 방송이라는 영역
 - 김한별 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
 - 4강) 충북언론보도, 왜 '노동'을 지우는가
 - 계희수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 좌담) 언론의 노동보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 계희수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 김기연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대외협력국장
 - 박윤준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 선지현 노동자교육공간 동동 대표
 - 탁종렬 노동인권저널리움센터 소장

토론회 <abc 대체지표가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과 제언> 참여 (11.24)

토론회 <시청자·독자위원회 현황과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참여 (11.23)

10월

후원행사 개최 (10.28)

6월

<지역언론, 시민이 바꾼다!> 시민 모니터링 교육 실시 (06.15)

2020년

상시

이재학 PD 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2019년

- 6월-9월**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디어리터러시 능력 키우기 <시민언론학교> 개최
- 1강) 언론과 사회 : 잘못된 만남과 새로운 만남
-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 2강)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저널리즘 :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모든 것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3강) 미투 이후의 한국언론 : 강남역에서 미투, N번방까지
-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 4강) 인권과 언론 :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미디어, 인권의 문제들
- 이은규 인권연대 숲 일꾼
- 5강) 지역언론이 나아갈 길 : 풀뿌리 언론과 언론개혁
- 김남균 충북인뉴스 편집국장
- 황민호 옥천신문 제작실장
- 6월** CJB청주방송 이두영, '이재학 PD 충북대책위' 1억 손배소 제기
<이재학 PD에게 편안한 밤을> 투쟁 문화제 (06.29)
- 3월-4월** 지역언론 선거보도 모니터링
- 3월**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49재 추모집회
- 2월** 이재학 PD 사망 사건 충북대책위원회 출범
- 상시** 일간신문 대상 <충북뉴스브리핑> 매일 발표
지상파 3사 대상 지난주 베스트&워스트 주간 발표
- 12월** 전북민언련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지역 시민언론운동 현황과 과제> 참여 (12.14)

2018년	11월	정보공개 청구 분석 보고서 <도·교육청·시 세 곳 출입기자 밥값 1억 5천여만 원> 발표
	6월	<충북지역 방송 3사 시청자위원회 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간담회> 참석 (11.13)
	상시	회원행사 <민중가요 부흥회> 개최 (06.27)
	상시	일간신문 대상 <충북뉴스브리핑> 매일 발표 지상파 3사 대상 지난주 베스트&워스트 주간 발표 회원소모임 <오후 세시의 글쓰기> 운영
	7월	포럼 <6·13 지방선거와 지역언론의 미래> 개최 (07.17)
2017년	5월	2018 충북지방선거미디어감시연대 발족 및 활동
	상시	일간신문 대상 <충북뉴스브리핑> 매일 발표
	10월	미디어포럼 <지역, 플랫폼 혁명을 만나다> 주최 (10.30)
	9월	영화 <공범자들> 공동체 상영회 및 최승호 감독과의 대화 (09.07)
	7월	<2017 지역신문 활성화와 개혁을 위한 특별 토론회> 진행 및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공동

		선언 (07.28)
	6월	미디어포럼 <공영방송 정상화 우선해야> 주최 (06.26)
	4월-5월	지역언론 선거보도 모니터링
	3월	2017년 대선미디어감시연대 발족
2016년	상시	일간신문 대상 <충북뉴스브리핑> 매일 발표
	11월	언론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충청언론학회 토론회 <충청권 대방론 보도의 허와 실> 참여 (11.03)
2015년	상시	일간신문 대상 <충북뉴스브리핑> 매일 발표 회원 영화모임 <봄> 운영
	10월	토론회 <자치단체 홍보비 집행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참여 (10.13)
2014년	상시	일간신문 대상 <충북뉴스브리핑> 매일 발표 회원 영화모임 <봄> 운영
	6월	회원모임 <민중가요 부흥회> (06.27)
2013년	상시	일간신문 대상 <충북뉴스브리핑> 매일 발표

2012년

- 회원 글쓰기 모임 운영
- 11월** 책 <충북민언련 10년을 말하다> 발간
 - 창립 10주년 기념 충북민주언론시민상 제정 (옥천신문 이안재 대표, KBS청주 이정훈 기자 수상)
 - 창립 10주년 기념식 (11.26)
- 6월-7월** 창립 10주년 기념 연속좌담회 <충북 지역 언론과 언론운동을 말하다> 개최
 - 1회) 지역언론 현실을 말하다
 - 연구민 충북민언련 운영위원
 - 오윤주 한겨레신문 기자
 - 이재표 청주마일 대표
 - 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국장
 - 한인섭 중부매일 기자
 - 2회) 지역언론 희망을 쓰다
 - 김승호 충북민언련 운영위원
 - 박미라 두꺼비신문 편집장
 - 이은규 충북민언련 운영위원
 - 정진아 충북민언련 운영위원
 - 황민호 전 옥천신문 편집국장
 - 3회) 지역시민언론운동 10년 그리고 미래
 - 김윤모 충북민언련 공동대표
 - 박정규 전 청주대학교수
 - 오한홍 전 옥천신문 대표
 - 임명수 충북민언련 공동대표
- 4월** <길원득의 방송 이야기> 개최 (04.12)
- 2월** 창립 10돌 기념 제주 4·3 평화 기행 진행
- 상시** 일간신문 대상 <충북뉴스브리핑> 매일 발표
 - 회원 글쓰기 모임 운영

- 11월** 언론학교 <경제 민주화와 언론을 말하다> 개최
 - 1강) 경제 민주화를 말하다
 - 류동민 충남대학교 교수
 - 2강) 한국언론의 경제 보도 진단
 - 이정환 미디어오늘 기자
 - 3강) 재벌-즉별 언론의 실체
 -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 4강) 해고노동자가 말하는 쌍용차 이야기
 - 이창근 쌍용차 해고노동자

6월 KBS, MBC 파업노동자와 함께 하는 간담회

4월 다큐멘터리 <어머니> 공동체 상영 (04.24)

2011년

상시 일간신문 대상 <충북뉴스브리핑> 매일 발표

11월-12월 조중동TV 반대 시민언론학교 개최


- 1강) PD수첩을 말하다
 - 최승호 MBC PD
- 2강) 시사풍자로 유쾌하게 놀자
 - 노정렬 개그맨
- 3강) 신자유주의시대, 기자란 무엇인가
 - 변상욱 기자
- 4강) 미디어랩과 방송 공공성
 - 정연우 민언련 대표

8월 회원 1박 2일 여름 캠프 개최 (08.31)

6월 인터넷방송 <끈지방송> 개국 및 방송

4월 스마트폰 활용 강좌 개최

2010년	상시	일간신문 대상 <충북뉴스브리핑> 매일 발표
	3월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위원회 결성 및 토론회 개최
2009년	상시	일간신문 대상 <충북뉴스브리핑> 매일 발표
	5월	언론학교 개최 1강) 왜 언론 소비자 주권 운동인가 -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2강) 언론약법, 그것이 알고 싶다 -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3강) 언론약법과 위기의 언론인 - 고재열 시사인 기자 4강) 언론약법과 지역언론 - 박민 전북민언련 정책실장
2008년	상시	일간신문 대상 <충북뉴스브리핑> 매일 발표 전국민언련 공동 홍보예산 집행기준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6월-7월	<학부모를 위한 NIE 교육> 개최 1강) NIE의 이해 및 스크랩 방법과 활용 2강) 신문과 친해지자 (신문 바로 알기, 신문 기사의 종류와 이해) 특강) 건강한 아이를 위한 부모교육 4강) NIE를 통한 창의성 계발 1 5강) NIE와 교과서 연계활용 6강) 신문을 활용한 토론수업 7강) 인성교육을 위한 NIE 1 8강) 인성교육을 위한 NIE 2



2005년	5월-6월	시민연합 으로 개칭 (02.22) 언론학교 개최 1강) 신문, 똑바로 보자 - 손석춘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2강) 고발전문 기자의 방송 이야기 - 이상호 MBC 기자 3강) 패러디뉴스와 방송뉴스 - 이명선 미디어룸 아나운서 4강) 뉴미디어 - 인터넷 라디오 - 김용민 라디오21 국장 5강) 언론개혁운동의 희망 찾기 - 오한홍 지역언론개혁연대 공동대표
2004년	상시	충청일보 바로세우기 투쟁
	3월	2004 충북 총선보도 감시단 결성 (충북 최초 선거보도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2003년	11월-12월	공영방송지키기 충북연대 활동
	11월	충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창립 (11.26)

충북민언련 성명서·논평·기자회견 모음

- 2023.10.05. **성명** 충청리뷰 검찰예산 검증 보도 누가 막았나
- 2023.09.13. **기자회견** 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에 대한 조속한 기소를 촉구한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공동)
- 2023.08.23. **기자회견** 이동관 임명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파괴 선언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반대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 2023.08.11. **기자회견** 언론장악! 학폭무대! 이동관은 자진사퇴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충북지역협의회·민주노총충북본부·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
- 2023.08.02. **논평**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기 나선 김영환 충북도지사 제정신인개
- 2023.07.31. **성명** 상습 음주운전 기자 언론계에 발 못 붙이게 해야
- 2023.07.27. **논평** 오송 참사 재난보도, KBS 수신료 가치 보여줘
- 2023.07.10. **기자회견** 지역 공영방송 소멸 부추기는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하라!
- 2023.07.01. **성명** 국민의견 배제한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하고 시민 공론화 추진하라 (전국민언련 공동)

- 2023.06.26. **논평** 대책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부터 다시 정립하라 (지역민언련 공동)
- 2023.05.16. **기자회견** 방송통신위원장 강제 해임은 위헌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언론시민단체 공동)
- 2023.04.27. **논평** 언론과 시민에 재갈 물리는 김영환 지사 규탄한다
- 2022.08.11. **논평** 범죄전력·토호유착 서창훈 회장, 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 당장 사퇴하라! (전국민언련 공동)
- 2022.06.20. **성명** 국민일보 기자 금품수수 사건, 백해무익한 기자단부터 해체하라 (전국민언련 공동)
- 2022.05.19. **성명** 언론 토론회 검증 거부한 후보자, 국민 선택받을 자격 없다
- 2022.05.16. **성명** 지역시간대 수도권 후보자 토론회 방송한 KBS 지역 국, 지방선거 역행 말라 (전국민언련 공동)
- 2022.04.08. **성명** 1분의 팩트체크도 하지 않는 언론을 규탄한다
- 2021.09.14. **성명** 다양성, 성평등, 지역성 반영하지 않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이대로 안 된다! (전국민언련 공동)
- 2021.08.11. **논평** 지역 대표할 공영방송 이사 반드시 나와야 한다! (지역민언련 공동)
- 2021.05.27. **성명** 지역언론 싹 짓밟는 민주당출신 은평구청장, 은평구청 은평시민신문에 대한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전국민언련 공동)
- 2021.05.25. **기자회견** 언론개혁 촉구 시민사회 비상시국선언 (언론개혁 촉구 시민사회 비상시국선언 참여 단체 공동)

- 2021.05.21. **성명**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노동자' 판결 수용하고 미이행 합의안부터 즉각 이행하라 (전국민언련 공동)
- 2021.03.22. **성명** 조폭 출신 기자 행패, 이상천 제천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 2021.01.27. **기자회견** 충북대책위 오늘 1주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
- 2020.12.09. **성명** 지역 언론사의 모바일 뉴스 채널 입점 확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국민언련 공동)
- 2020.11.19. **입장문** 활동가가 더 이상 부속품처럼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충북청주경실련 사고자부 결정에 대한 공동 입장)
- 2020.10.26. **의견서** 불법으로 받은 MBN 최초승인은 취소되어야 한다 (37개 전국 언론·시민사회단체 공동)
- 2020.10.13. **성명** 충북도의 행정명령은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명백한 행정권 남용이다
- 2020.10.05. **기자회견** 4차 최종 합의 훼손하는 이두영 의장·CJB 청주방송 규탄한다!
- 2020.08.12. **성명** 광봉호 옥천군의원 언론 기고 표절은 범죄다
- 2020.08.05. **입장문** 이재학 PD의 뜻, 충북민언련이 함께 하겠습니다!
- 2020.07.24. **성명** CJB청주방송은 '고 이재학 PD' 합의안 철저히 이행하고, 언론계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나서라 (전국민언련 공동)
- 2020.07.20. **성명** 기자 광고배분 방치한 제천시에 책임을 묻는다
- 2020.07.14. **기자회견** 반복되는 약속파기, CJB청주방송에 끝장투쟁을 선포한다!

- 2020.06.21. **성명** 성차별 채용관행으로 짓밟힌 여성 아나운서 노동인권 대전MBC는 인권위원회 권고 즉각 수용하라 (전국민언련 공동)
- 2020.06.17. **논평** CJB청주방송과 이두영 의장은 이재학PD 사망 진상 규명 방해하지 말라 (전국민언련 공동)
- 2020.06.16. **성명** CJB이두영 의장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충북민언련 입 장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재학 PD사망사건 덮을 수 없다
- 2019.12.18. **논평** 출입처 공무원을 시민처럼 인터뷰... 취재 윤리 어긋나
- 2019.09.10.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MBC충북 징계 결정 관련 충북민 언련 논평 혁신 단행하여 공영방송 역할을 다하라!
- 2019.07.17. **논평** 주인을 위한 브리핑룸에서 기자가 갑질이라니 적폐가 따로 없다
- 2019.05.23. **기자회견** 지역 언론·민주주의 내팽개친 네이버를 규탄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한국지역언론학 회·지방분권전국회의·(사)지역방송협의회 공동)
- 2019.05.15. **성명** 네이버는 '지역' 홀대를 멈춰라! (전국민언련 공동)
- 2019.01.23. **성명** 지역지상파 민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묻는다
- 2018.11.12. **성명** 청주시 브리핑룸 운영 개선 방안 밝혀야
- 2018.08.13. **성명** 공영방송 이사회에 지역 대표할 인사 필요하다 (전국 민언련 공동)
- 2018.06.28. **성명** 언론인 비리 쉬쉬하면 지역언론 신뢰 무너진다
- 2018.05.02. **기자회견** "새로운 국민주권시대, 공정한 선거보도로부터 시 작하자!" (2018 충북지방선거미디어감시연대 발족)

- 2017.12. **성명**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권역별 지원방안에 대한 입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사)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지역언론학회, 지역신문통신노동조합 공동)
- 2017.10.11. **기자회견**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 계획 재검토와 개혁적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 2017.09.05. **기자회견** 언론노조 MBC. KBS 파업을 지지합니다! (충북 지역시민사회단체, 정당, 민주노총 공동)
- 2017.06.14. **성명** 지역 대표 방통위원, 이제는 나와야 한다 (지역민언련, 한국지역언론학회, 지역방송협의회 공동)
- 2017.03.24. **기자회견** 방통위의 TV조선 '부정 재승인' 규탄 언론단체비상국회의 긴급 기자회견 (언론단체비상국회의의 공동)
- 2017.03.10. **성명** 박근혜 탄핵 인용, 주권자의 승리다- 새 정부는 대대적인 언론개혁에 나서라 (전국민언련 공동)
- 2017.02.24. **성명** 최악 중의 최악 김장겸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전국민언련 공동)
- 2017.01.05. **논평** 적폐 드러낸 시청자미디어재단 개혁하자 -비리 주범 이석우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전국민언련 공동)
- 2016.03.10. **성명** 지역MBC공동상무제와 노조전임 업무복귀 명령 중단하라 (전국민언련 공동)
- 2015.08.21. **성명**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민방의 편성권을 침해한 SBS 등에 대한 법적조치와 함께 미디어크리에이트에 대한 재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전국민언련 공동)
- 2015.05.15. **성명** 시청자 권익 기관마저 낙하산과 방송장악 재물로 삼나 - 이석우 이사장 임명을 철회하라 (전국민언련 공동)

- 2015.02.15. **기자회견** [이완구 총리후보 인준 저지 및 언론정상화 촉구 범국민기자회견] 이완구 후보는 자진 사퇴하라!
- 2014.06.30. **논평** 권언유착의 적폐 기사실 부활시킨 청주시, 민선 6기가 재검토하라!
- 2014.06.04. **성명**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길환영 사장을 파면하라! (지역민언련 공동)
- 2013.07.30. **성명** 한범덕 청주시장은 공식사과하고, 비위근절 대책 마련하라!
- 2013.07.18. **성명** 한겨레·부산일보 기자에 대한 재갈물리기 소송 즉각 철회하라 (전국민언련 공동)
- 2013.07.18. **성명** 불방결정 납득 할 수 없다. <타켓, 유성지회의 두 번째 봄> 방영을 촉구한다! (전국민언련 공동)
- 2013.05.20. **성명** 허위사실 날조하여 5.18민주화운동을 훼손시킨 TV조선, 채널A 종편채널 허기를 취소하라! (전국민언련 공동)
- 2012.09.27. **논평** 철저한 수사만이 모두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이다
- 2012.07.29. **성명** PD수첩 작가 해고 즉각 철회하라! (전국민언련 공동)
- 2012.04.06. **성명**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 의혹 보도태도를 보며 사회 공기(公器)로서의 지역언론을 기대합니다!
- 2012.01.06. **성명** 한나라당의 '날치기'와 민주당의 무늬만 거부, '인증샷' 행태를 규탄한다
- 2012.01.03. **성명** 더이상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놀아날 수 없다 (전국민언련 공동)
- 2011.12.08. **성명** 지역언론 죽이는 조중동매 종편 예산 편성 부당하다! 즉각 철회하라!

- 2011.03.11. **선언문** [2011년 충북민언련 인터넷 방송을 시작합니다! 선언] 우리가 미디어다
- 2011.01.18. **선언문** 국민적 재앙 ‘조중동 방송’은 철회되어야 한다 (‘조중동 종편’ 선정 취소 및 추가 특혜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 2010.12.31. **논평** 무능하고 천박한 정권이 ‘괴물’ 만들었다 (전국민언련 공동)
- 2010.04.21. **성명** 김호복 청주시장의 촛지와 항응제공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해당기자의 사퇴를 촉구한다!
- 2009.12.24. **성명** 문광부는 지역신문의 퇴보를 조장하지 말라!
- 2009.12.10. **성명** [이명박 정부의 지역 언론 길들이기에 대한 성명] 지역 언론에 대한 회유·협박 즉각 중단하라 (전국 지역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공동)
- 2009.10.29. **논평** [헌재결정에 대한 충북민언련 논평] 민주주의는 죽었다
- 2009.08.07. **성명** [쌍용차사태 취재 기자 연행 관련 성명] 정당한 취재 활동이다! 기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대전충남, 충북민언련 공동)
- 2009.07.23. **기자회견** 언론악법 원천무효! 한나라당 규탄한다! (충북지역 민중사회단체 공동)
- 2009.07.20. **기자회견** 남상우 청주시장 및 보훈단체 고소고발 기자회견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충북본부, 한겨레가족 청주모임,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
- 2009.07.13. **입장문** 폭력행위에 가담한 보수단체 회원들의 엄중한 처벌과 남상우 청주시장의 책임을 묻는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

- 캠페인 충북본부, 한겨레가족 청주모임,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
- 2009.07.09. **논평** [언론악법 저지 천막 농성 과잉 대응에 나선 남상우 청주시장 규탄 논평] 남상우 시장, 한나라당 총성 위해 공무 원까지 동원하나?
- 2009.07.09.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즉각 폐기 하라! (언론개혁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충북본부, 한겨레가족 청주모임, 충북언론노조협의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
- 2009.07.02. **성명**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 2중대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
- 2009.06.29. **논평** [언론악법 관련 한나라당 단독 국회 개회에 대한 논평] 언론악법 강행처리 결사반대!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즉각 폐기하라!
- 2009.05.20. **성명** [미디어총청 기자 취재방해에 대한 연대성명] 대전경찰청의 '취재방해 및 인터넷언론 차별행위'를 규탄한다
- 2009.04.06. **기자회견** [신문의 날 맞이 지역독자선언 기자회견] 공존과 상생, 지역언론 생존은 독자의 힘부터! 독자의 힘으로 지역 언론 지키자!
- 2009.04.02. **성명** 정우택 지사와 충청북도는 오선준 충북도립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즉각 해촉하라! (충북청주경실련,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부, 충북민언련 공동)
- 2009.03.09. **논평** [도립예술단 지휘자 인사문제와 관련한 논평] 누구를 위한 침묵의 카르텔인가!
- 2009.02.27. **기자회견** 반민주적 직권상정 한나라당 규탄한다! 한나라당

- 은 즉각 언론악법 폐기하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공동)
- 2009.02.05. **논평** [보은군 홍보소식지 증회 발행에 대한 논평] 증회발행 뚜렷한 명분 제시 필요하다
- 2009.01.20. **성명** MB 언론악법은 '지역말살법'이다! (이명박정부의 '지역말살법'을 반대하는 전국시민사회단체 공동)
- 2008.12.29. **성명** 언론장악 7대 악법 저지를 위한 언론노조 총파업지지 한다!
- 2008.12.22. **성명** 여론의 다양성, 지역성 무시하는 언론 관련 7대 악법 반대한다! (충북언론노조협의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
- 2008.12.18. **성명**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안 삭감관련 성명] 지역신문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전국민언련 공동)
- 2008.12.09. **성명** 자치단체와 언론사와의 불륜관계를 청산하라!
- 2008.11.10. **논평** 한국지역신문협회, 강원랜드 '홍보지'인가? (지역민언련 공동)
- 2008.09.10. **논평** ['방송의 날' 주간 지역방송 보도특집에 대한 논평] 지역언론의 위기는 지역 풀뿌리민주주의의 위기 (지역민언련 공동)
- 2008.05.26. **논평** [충주시의회 해외연수 동행 관련 증부매일 보도 및 해당 기자에 대한 논평] 자부담 했다고 문제가 없다는 건가
- 2008.03.25. **논평** [충청매일 기자에 대한 충주시장 망발 관련 논평] 자치단체와 언론 건강한 감시와 견제 필요하다

- 2007.10.11. **성명** 정치권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맡아먹을 참인가? (지역민언련 공동)
- 2007.06.27. **성명** [충청투데이 옥천 주재기자 폭행 사건 불구속입건에 대한 성명] 술에 취해 행패부리는 것이 기자가 누리는 특권인가
- 2007.06.08. **성명** [동료기자 흥기로 찌른 모 일간지 기자 긴급체포에 대한 성명] 칼까지 휘두르는 기자에 충격받은 지역주민
- 2007.05.03. **성명**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 선정을 철회하라! (전국민언련 공동)
- 2007.04.27. **논평** 종합유선방송 채널군(群)별 편성의무화는 필요하다 (전국민언련 공동)
- 2007.04.21. **논평** 균발위는 제대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라 (전국민언련 공동)
- 2007.03.01. **기자회견** 신문으로 위장한 반민족 범죄집단 조선일보를 반대한다!
- 2007.02.02. **성명** [중부매일 기자의 알선수재혐의 긴급체포에 대한 성명] 언론인 부정부패 범죄행위까지 윤리의식 도(度) 넘었다
- 2006.11.06. **성명** [한빛일보 대표 보험사기죄 구속 관련 성명] 범죄행위에 앞장선 언론사 대표, 무너지는 신뢰 어찌하나
- 2006.09.29. **성명** [한창희 충주시장 당선무효 확정 관련 성명]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촌지 제공은 명백한 범죄이다!
- 2006.09.21. **성명** [CJB 청주방송 모 피디의 촌지수수에 대한 성명] 또 촌지라니 건강한 언론인 윤리 절실하다! 구태에 젖은 충북 협회도 자성하라!

- 2006.05.29. **성명** 종합유선방송사들의 일방적 횡포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라! (전국민언련 공동)
- 2006.05.16. **성명** 성추행, 음주운전까지... 부적절한 술자리 그만두라!
- 2006.04.25. **성명** [청주예총의 일부 문화부 기자 촌지 지급에 대한 성명] 촌지 관행에 마침표를 찍자!
- 2006.04.20. **성명** [대한일보 박만건 회장의 <시민의소리> 기자 폭행과 광주전남민언련 활동가 협박에 대한 전국민언련 규탄 성명] 당장 신문사 문닫고 싶은가
- 2006.04.13. **입장문** HCN충북방송의 가입자를 무시한 일방적인 가격 인상과 채널변경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한주부클럽연합회충북지회 청주YMCA 청주YWCA 청주경찰서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
- 2006.03.30. **성명** [청주검찰청과 출입기자단의 부적절한 술자리에 대한 성명] 검찰과 기자들의 불감증을 고발한다!
- 2006.03.16. **기자회견** [충주시청 출입기자 촌지수수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지역주민 기만하는 충주시장기자단은 각성하고, 양심선언에 나서라!
- 2006.02.21. **논평** [충청투데이 제천 주재기자 도박사건 연루에 대한 논평] 충청투데이는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충북민언련·대전충남 민언련 공동)
- 2006.01.27. **성명** [200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중부매일충북일보 선정에 대한 성명] 지역언론 개혁에 적극 나서라!
- 2005.12.05. **논평** 중부매일은 조속한 후속조치를 실시하라!

- 2005.12.01. **성명** [충부매일 선거 여론조사 수익사업에 대한 성명] 충부 매일의 뼈아픈 각성을 촉구한다!
- 2005.11.08. **성명** [충주시청 출입기자 촌지수수 사건에 대한 성명]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지역주민 철저히 기만한 충주시와 출입기자단은 사과하라!
- 2005.10.18. **성명** [충청일보 위장폐업 판정에 대한 성명] 위장폐업 판정, 옛 경영진 책임 필요하다
- 2005.10.04. **성명** [충주시청 출입기자단 추석 떡값 제공에 대한 성명] '관행' 아래 지역주민 기만하는 충주시와 일부 기자는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라!
- 2005.08.02. **성명** [도교육청 기자실 촌지 수수 사건에 대한 성명]제 식구 감싸기에 그치지 말고 개혁에 나서라!
- 2005.07.28. **성명** [도교육청 기자실 촌지 수수 사건에 대한 성명] 이제 관행에 마침표를 찍어라!
- 2005.07.27. **성명** [KBS 열린채널의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 방송보류 판정에 대한 성명] KBS 열린채널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으로서의 본래 취지를 살려라! (전국민언론 공동)
- 2004.11.17. **성명** [충청일보 폐업결의에 대한 성명] 위장폐업결의로 충청도민 우롱하는 충청일보 사주 규탄한다 (전국민언론 공동)
- 2004.11.09. **기자회견** [충청일보 바로 세우기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지역언론개혁의 시작 충청일보 바로세우기
- 2004.11.05. **성명** [조선 동아 불매운동본부지지 지지성명]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의 배후 조선동아를 응징하자 (전국민언론 공동)
- 2004.10.15. **성명** [충청일보 직장폐쇄 단행에 대한 성명] 참 언론 거듭나

- 는 길 가로막지 말라!
- 2004.10.05. **성명** [충청일보·중부매일의 연합시론 사설 도용에 대한 성명]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부끄럽지 않은게! (충북민언련, 충북언론노조협의회 공동)
- 2004.09.16. **성명** 충청일보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사주의 합리적 결단을 촉구한다!
- 2004.08.30. **성명** 충청일보는 파행적인 경영을 중단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해라!
- 2004.03.05. **논평** 충청리뷰 '맞짱' 보도가 주는 충격 -도대체 왜 이러나
- 2004.03.03. **기자회견** [2004충북총선보도감시단 기자회견] "미디어선거 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 2003.12.11. **선언문** 한나라당은 공영방송 체제를 뒤흔들지 말라! (공영방송 지키기 충북연대 시청자 선언)
- 2003.11.20. **성명** 한나라당은 공영방송을 위협하지 말라! (공영방송 지키기 충북연대)

충북민언련 모니터링 보고서 모음

- 2022.11.29. [KBS뉴스 7 모니터] 지역성과 심층성 강화한다던 KBS <뉴스7>은 어디로
- 2022.05.31.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충북 3차 모니터보고서] 다른 결과 쏟아내는 여론조사, '청년정치' 주목하기도
- 2022.05.24.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충북 2차 모니터보고서] 네거티브 공방, 후보 비난 중계만 전해서야
- 2022.05.18.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충북 1차 모니터보고서] 지선이 '대통령 대리전'이란 언론, 3선 도지사 퇴임갈엔 '찬양만'
- 2022.03.08. [충북 선거보도 4차 보고서] 대부분 '말잔치' 중계했지만, 약자 참정권 보장 문제 조명하기도
- 2022.02.25. [충북 선거보도 3차 보고서] 구태의연한 "충청의 사위" 여전, 검증 없이 전달만 하는 언론
- 2022.02.18. [충북 선거보도 2차 보고서] 네거티브 확성기 습관 버리지 못했지만, 불만한 정책 보도도 다수
- 2022.02.11. [충북 선거보도 1차 보고서] 기자 취재 대신하는 '여론조사'와 특별취재 없는 '특별취재팀'
- 2021.08.30. [언론모니터] 청주도심 통과에 '기우제 저널리즘' 선보인 방

	송 3사
2021.08.13.	[언론모니터] 북이면 소각장 조사 결과 다각도에서 파고든 KBS ② 방송모니터
2021.07.12.	[언론모니터] 북이면 소각장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 지역민 외면한 언론들 ① 신문모니터
2021.04.19.	[언론모니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비언론인들이 추적한 민영방송 '회장님' 보도
2021.01.04.	[언론모니터] KBS청주 뉴스7 40분에 전국뉴스 비중 40% 차지
2020	〈방송계 치부에 침묵한 방송사들, 보도해야 변화한다 민언련 모니터 보고서〉 발표
2020.04.14.	[2020 총선 방송 5차 보고서] 쟁점없는 선거, 끝까지 무소속 출마 여부만 관심갯나
2020.04.08.	[2020 총선 방송 4차 보고서] 공약기획보도 늘어...단순나열 보단 분석을
2020.04.02.	[2020 총선 방송 3차 보고서] 선거보도 비중 늘어나, 후보 동정보도 많아
2020.03.25.	[2020 총선 방송 2차 보고서] 깜깜이 선거 NO, 미디어선거 이끌어야
2020.03.18.	[2020 총선 방송 1차 보고서] 코로나에 묻힌 선거보도 그나마도 공천뉴스가 대부분
2018.05.31.	[2018 충북지방선거미디어감시연대 신문 4차 보고서] 이시종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 제목 많아
2018.05.31.	[2018 충북지방선거미디어감시연대 방송 4차 보고서] 후보

- 동정 보도 다시 늘어나
- 2018.05.24. [2018 충북지방선거미디어감시연대 신문 3차 보고서] 유익/유해한 보도 적은 편, 전투용 용어 나타나지 않아
- 2018.05.24. [2018 충북지방선거미디어감시연대 방송 3차 보고서] 고교 무상급식 쟁점으로, 유권자 의제 보도도 나와
- 2018.05.17. [2018 충북지방선거미디어감시연대 신문 2차 보고서] 후보 동정 중심, 보도자료 보도 비중 높은 편
- 2018.05.17. [2018 충북지방선거미디어감시연대 방송 2차 보고서] 단신 보도 · 후보동정 공천 관련, 민주당 비중 높은 편
- 2018.05.10. [2018 충북지방선거미디어감시연대 신문 1차 보고서] 후보 별 보도자료 받아쓰기 보도 비중 너무 높다
- 2018.05.10. [2018 충북지방선거미디어감시연대 방송 1차 보고서] “충북 패싱” 강조 지역감정 부추겨, 강호축 쟁점이라면 검증 필요
- 2016.11.01. [언론모니터] 충청대망론 보도 이대로 괜찮나?

펴 낸 곳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발 행 일 2023년 9월

편 집 현슬기

표 지 김현아(능이디자인)

운영위원 김현정, 박소영, 선지현, 유진영, 황민호

사 무 국 이수희(대표), 계획수, 현슬기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 <https://www.ccdmcb.org>

이 메 일 cbmedia@hanmail.net

전 화 043-253-0383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cdmcb>

후원계좌 303-01-407602 (농협)

이 책은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The Beautiful Foundation